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2007. **5** Vol. 185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_
파인(巴人)의 봄이 오면과 김동진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풍류로 벗을 삼은 단원(檀園) 김홍도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_
예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도시 비엔나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夏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77세에 만나요!

바이올린 · 이성주

2007. 5. 18(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공동주최 | 부산광역시 | 부산일보사

공연문의 |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ulture.busan.kr

입장권 | 균일 15,000원

※ 정기회원 1인 4매까지 30% 할인 (단, 홍보부 전화예약 후 입금 회원에 한함)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서면 / 영광동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동서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개금 / 신개금LG CLS (신개금LG 단지 내 898-9109)
 남포동 /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덕천동 /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하단 /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대연동 /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소프라노

LEE JAE RAN

RECITAL

이재란 독창회



Heidenröslein 들장미
 Seligkeit 행복
 Die Forelle 송어
 Lachen und Weinen 웃음과 울음
 Die junge Nonne 젊은 수녀
 Ave Maria 아베마리아
 Der Hirt auf dem Felsen 바위위의 목동
 Suleikas zweiter Gesang 2개의 술라이카 노래
 Lied der Mignon 4개의 미뇽 노래
 Frühlingsglaube 봄의 찬가



피아노/최민경



클라리넷/백중필

2007. 5. 17 (목) PM 7:30

해운대문화회관

주최 : 오페라단 가야

※ 입장권 : 일반 20,000원 / 문의 : 051-747-6139

어린이날 특집음악회 1
은정뮤직아카데미 초청연주회 Eunjung Music Academy Concert

오월의 음악천사

최우수 음악학원 초청 발표회
반주 박덕진
해설 김종진

- 피아노 박나리(좌동초등1학년)
- 피아노 이명지(좌동초등2학년)
- 피아노 정승경(좌동초등2학년)
- 피아노 임지연(좌동초등3학년)
- 리코더 김준형(좌동초등3학년)
- 리코더 황민영(좌동초등3학년)
- 피아노 진정현(부흥초등3학년)
- 피아노 박다은(좌동초등3학년)
- 피아노 이승민(좌동초등6학년)
- 리코더 김도환(좌동초등3학년)
- 오카리나 김진아(좌동초등6학년)
- 피아노 서지우(좌동초등3학년)
- 피아노 송원경(광남초등4학년)

부산 해운대 신도시에 자리잡은 은정뮤직아카데미는 각종 콩쿨과 음악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음악학원

5/1

어버이날 특집음악회 2
소년의집관현악단 특별연주회 Boystown Symphony Orchestra

초록빛 소년들의 합주

전국 최고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쌓고 있는 일리시(중·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



하느님과 자연을 담은 음악으로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뜻뜻한 소년들의 성스러운 연주는
바로 찬미와 감사입니다.

지휘 안영경
협연 소프라노 이솔미
해설 김윤선

5/8

부·울·경을 연결하는 음악 네트워크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음악회

PBC TUESDAY CONCERT

2007-5
피비씨 화요일 음악회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새롭게 단장한 가톨릭소극장 051-462-1870
www.bccenter.or.kr



음악감독 윤성원

후원

스승의 날 특집음악회 3

부산음악페다고지연구소
차세대 유망주 음악회
Little Virtuosos Concert



리틀비르투오조의 향연

부산 음악페다고지연구소에서 마련하는 중·고등학생 음악 유망주의 발표회



해설 김수진

5/15

조태희교수 문하생 아리아스 제3회 특별순회연주회
Arias pasión de España

스페인의 열정



해설 우경준



조태희 중앙대 명예교수



소프라노 신동숙 소프라노 김민순 소프라노 정선미 소프라노 이솔미 소프라노 신승혜 소프라노 김은주 소프라노 김민진 피아노 조양명

5/22

소프라노 이영은 초청독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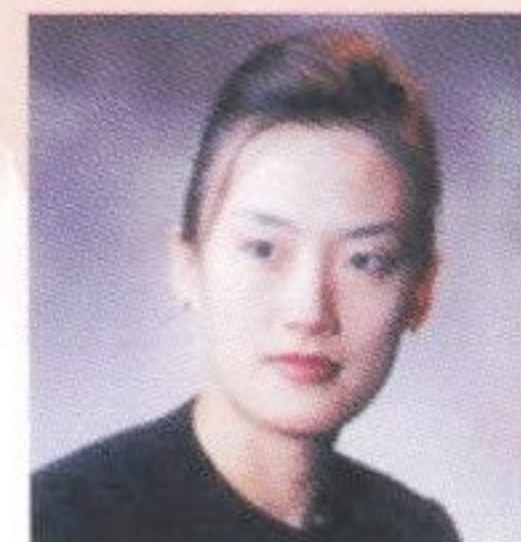
Soprano LEE YOUNG EUN Recital

5월의 향기

해설 오동주



소프라노 이영은은 이탈리아 국립음악학교 L. RECCIA CONSERVATORIO(diploma, 만점 수석)와 이탈리아 로마 사립음악학교 A.I.D.A Accademia 와 Bela bartok Accademia 졸업하고 이탈리아 국제 성악콩쿨 L. Infantino 대회에서 최우수 가창상을 수상한 재원이다. 현재, 부산예술중고등학교, 경성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마산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녀의 독창회는 오케라 아리아를 주레퍼토리로 구성하여 5월의 향기를 전해 줄 것이다.



반주 피아니스트 이현주

5/29

이 음악회는 라디오 FM(부산·경남 FM101.1, 울산 94.3MHz)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실황녹음 방송됩니다.

www.birdclassic.co.kr

PBC 화요일음악회

녹음은 클래식음악 녹음전문기업 Bird Classic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www.birdclassic.co.kr

이제, 자신의 연주를 음반과 DVD로 소장하십시오!

클래식 연주자들이 바라던 클래식 전문 녹음실 & 촬영 스튜디오

연주 실황 녹음 · 음반 녹음 · 교수 연구실적 녹음

연주 실황 촬영(DVD, SVHS) · 콘서트 촬영

051-744-1150 / 011-562-8773

BIRD classic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센텀벤처타운 504호



Contents

2007 · 05



- 08 부산문화회관 5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드뷔시의 바다를 들으면 그 바다가 보인다 · 이동신
- 12 반갑습니다 |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
- 14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 파인(巴人)의 봄이오면과 김동진 · 김상훈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예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도시 비엔나 · 이승주
- 20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풍류로 벗을 삼은 단원(壇園) 김홍도 · 강성일
- 22 우리춤 산책 | 승무 · 흥기태
- 24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화양연화를 위하여 -한성희 <Image of Form-Rose> · 김형술
- 26 연극속으로 | 연극과 체질 · 유상훈
- 28 그곳에 가면 | 광안리 해변 '빛 · 바다 미술관'
- 30 우리는 문화가족 |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부산 · 경남지부
- 32 지금 준비중 | 부산 장편영화 '도다리'
- 34 이 사람 | 제 25회 부산연극제 연출상 수상한 오정국
- 35 문화가화제 | 5월 축제속으로 떠나자
- 38 쉽게 듣는 클래식 | 소품의 세계 7 · 곽근수
- 39 부산시립예술단 관람가이드
- 44 5월 프로그램 가이드
- 63 세계의 뮤지컬 | 뮤지컬 헤드윅 · 이상훈
- 64 새로 나온 음반
- 65 새로 나온 책
- 66 부산문화회관 소식
- 6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7년 4월 25일

· 인쇄처 (주)세한기획 TEL. 865-0080, FAX. 852-7085
614-0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263-4 하이웰 B/D B1층

■ 표지설명 : 우리나라 음악신동 1호, 세계로 진출한 1세대 음악인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해 온 피아니스트 한동일이 5월 11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시민과 만나다.

※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5

월 공연일정

전시실

추사서화예술전국대전-대전시실

5월 4일(금)~5월 7일(월) (4일 시상식-국제회의장)

문의 김중영(752-8587, 011-772-8587)

2007 부산국제연극제 미디어사진전-중전시실

5월 5일(토)~5월 15일(화)

문의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627-2744)

전국학생미술 공모전-대전시실

5월 11일(금)~5월 13일(일)

문의 박태진(468-0538, 016-558-0531)

제 11회 부산회화제-대·중전시실

5월 21일(월)~5월 27일(일)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제 27회 전국서도민전-대·중전시실

6월 1일(금)~6월 5일(화)

문의 한국서도예술협회(554-4850, 011-864-6288)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9쪽)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1	tue	김옥련발레단 2007 숲속 발레 '별' 13:00, 15:00, 20:00 5만원 · 3만원 · 2만원/김옥련(626-9486, 016-835-0831)
2	wed	김옥련발레단 2007 숲속 발레 '별' 13:00, 15:00, 20:00 5만원 · 3만원 · 2만원/김옥련(626-9486, 016-835-0831)
3	thu	
4	fri	
5	sat	2007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한국 '로미오와 줄리엣' 18:30 3만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6	sun	2007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한국 '로미오와 줄리엣' 16:00, 19:00 3만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7	mon	
8	tue	
9	wed	교례아오페라단 10 테너 페스티벌 19:30 2만원 · 1만원/안상철(010-2400-5271)
10	thu	제 4회 한국가곡 대축제 부산공연 '겨레와 함께, 노래와 함께'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한국가곡협회 부산지부(016-585-0206)
11	fri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0회 정기연주회 '그레이트 콘서트'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12	sat	뮤지컬 '2007 루나틱' 16:00, 19:30 5만원 · 4만원/AN시티(1644-4484)
13	sun	뮤지컬 '2007 루나틱' 15:00, 18:30 5만원 · 4만원/AN시티(1644-4484)
14	mon	사랑이 있는 음악회 '그리움이 가득한 오월의 향기' 19:30 5천원 · 3천원/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15	tue	소프라노 김문희교수 정년음악회 19:30 초대/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16	wed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2007년 교과서 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안상철(010-2400-5271)
17	thu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제 20회 정기공연 19:30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5-8106)
18	fri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금년새와 11시에 만나요' 11:00 균일 1만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19	sat	테너 이철성 독창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016-861-6105)
20	sun	
21	mon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부 제 20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
22	tue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9:30 16만원 · 12만원 · 8만원 · 5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23	wed	
24	thu	
25	fri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 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26	sat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과 함께 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 연주회 17:00 2만원 ·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27	sun	2007 해동검도 공연 18:00 초대/(사)세계해동검도연합회(633-1780~1)
28	mon	
29	tue	
30	wed	
31	thu	부산시립무용단 제 56회 정기공연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 날'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중극장

MEDIUM THEATER

- 1 tue 독일가곡연구회 '5월에 부르는 사랑의 노래' 19:30
1만원 · 5천원/김현식(011-566-4172)
- 2 wed 정우영과 클라리넷 이야기 19:30
균일 1만원/조영훈(011-574-3687)
- 3 thu 멜로매니아 제 13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민정식(301-9701)
- 4 fri
- 5 sat 2007 부산국제연극제-한국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15:00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6 sun 2007 부산국제연극제-한국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14:00, 17:00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7 mon
- 8 tue
- 9 wed 2007 부산국제연극제-한국 부산시립극단 '수전노' 20:00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10 thu 2007 부산국제연극제-한국 부산시립극단 '수전노' 20:00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11 fri 2007 부산국제연극제-한국 부산시립극단 '수전노' 20:00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12 sat
- 13 sun
- 14 mon 2007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독일-러시아 '로버츠 드림' 20:00
3만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15 tue 2007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독일-러시아 '로버츠 드림' 19:30
3만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16 wed 최윤자의 춤 19:30
초대/최윤자(010-3156-2496)
- 17 thu 트리오 방데레 초청 내한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문화(633-8990)
- 18 fri
- 19 sat 부산치과 남성양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강병화(628-1214)
- 20 sun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23회 부산 피아니스트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21 mon 작곡동인 잉태 제 2회 작곡발표회 19:30
최석태(607-6126, 019-623-1547)
- 22 tue
- 23 wed
- 24 thu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23회 부산 피아니스트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25 fri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제 23회 부산 피아니스트페스티벌 19:30
균일 1만원/이소영(011-9336-1679)
- 26 sat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33회 정기연주회 '솔로의 밤' 19:30
균일 1만원/서숙지(018-563-6692)
- 27 sun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 33회 정기연주회 '듀오의 밤' 19:30
균일 1만원/서숙지(018-563-6692)
- 28 mon 고신대학교 관현악단 제 8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고신대학교(990-2283)
- 29 tue 윤대우 초청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부산문화(635-9081)
- 30 wed
- 31 thu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6회 정기연주회 '바로크 음악의 향기'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9)

소극장

SMALL THEATER

- 1 tue
- 2 wed
- 3 thu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김정미(010-7499-0108)
- 4 fri
- 5 sat
- 6 sun 2007 부산국제연극제-미국 '닌자 햄릿' 14:00, 17:00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7 mon 2007 부산국제연극제-미국 '닌자 햄릿' 20:00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8 tue
- 9 wed 2007 부산국제연극제-한국미지 '산책하기 좋은 날' 20:00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10 thu 2007 부산국제연극제-한국미지 '산책하기 좋은 날' 20:00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11 fri
- 12 sat 2007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 결선' 15:00
무료/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13 sun
- 14 mon 2007 부산국제연극제 메소드 워크샵 발표공연 14:00
무료/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11-3703)
- 15 tue
- 16 wed
- 17 thu 향신회 정기작곡발표회 '故 임종길교수 추모 음악회' 19:30
초대/정승원(624-1657, 011-554-1657)
- 18 fri
- 19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 5중주 16:00
초대/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0 sun KIM'S PIANO 콩쿨 09:00
무료/김정희(628-4206, 017-552-4106)
- 21 mon 박영신, 김현애 듀오 피아노 리사이틀 19:30
초대/박영신(011-562-2694)
- 22 tue 예향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7:00
무료/김정숙(637-0580)
- 23 wed 엄희정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엄희정(010-3167-1554)
- 24 thu 청소년음악회 17:00
무료/김희선(623-7556, 019-391-7556)
- 25 fri 구영희 전통춤 19:30
균일 1만원/구영희(010-8811-8841)
- 26 sat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초대/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7 sun
- 28 mon
- 29 tue 부산시립극단 제 29회 정기공연 '칼맨'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
- 30 wed 부산시립극단 제 29회 정기공연 '칼맨'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
- 31 thu 부산시립극단 제 29회 정기공연 '칼맨' 19:30
1만원 · 5천원/부산시립극단(607-6136~8)

● 부산시내 기타공연 ⑤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tue** 세계 가면 체험전 10:00 - 대극장
5천원 · 3천원/시민회관(630-5200)
- 2 **wed** 세계 가면 체험전 10:00 -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제 11회 부산동인춤마당 19:30 - 소극장 임나영(016-879-6090)
- 3 **thu** 세계 가면 체험전 10:00 -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제 11회 부산동인춤마당 19:30 - 소극장 임나영(016-879-6090)
- 4 **fri** 세계 가면 체험전 10:00 - 대극장
5천원 · 3천원/시민회관(630-5200)
- 5 **sat** 세계 가면 체험전 10:00 - 대극장
5천원 · 3천원/시민회관(630-5200)
- 6 **sun** 세계 가면 체험전 10:00 -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2007 부산국제연극제 '바리데기' 15:00, 18:00 - 소극장 사무국(627-2744)
- 7 **mon** 월요일 영화 '여우비' 14:00, 19:30 -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2007 부산국제연극제 '바리데기' 20:00 - 소극장 사무국(627-2744)
- 8 **tue** 2007 부산국제연극제 '바리데기' 20:00 - 소극장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2744, 611-3703)
- 9 **wed** 2007 일동후디스 해피메시지 전국투어 대교콘서트 부산 15:00
- 대극장 초대/일동후디스(02-2049-2114)
- 10 **thu** 2007 부산국제연극제 '사이의 거리' 20:00 - 소극장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2744, 611-3703)
- 11 **fri** 2007 부산국제연극제 '사이의 거리' 20:00 - 소극장
2만원 · 1만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2744, 611-3703)
- 12 **sat** 2007 부산국제연극제 '익스트림 로미오와 줄리엣' 19:00 - 대극장
제 21회 부산청소년예술제 개막식 14:00 - 소극장 부산예총(631-1377)
- 13 **sun** 2007 부산국제연극제 '익스트림 로미오와 줄리엣' 15:00, 18:00 - 대극장
2007 부산국제연극제 '상현이가 소가 됐네' 14:00, 17:00 - 소극장
- 14 **mon** 월요일 영화 '드림걸즈' 14:00, 19:30 -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2007 부산국제연극제 '상현이가 소가 됐네' 20:00 - 소극장 사무국(627-2744)
- 15 **tue**
- 16 **wed** 제 35회 전국 남녀 초중고교 무용경연대회 10:00 - 대극장
신라대학교(999-5301)
- 17 **thu** 제 35회 전국 남녀 초중고교 무용경연대회 - 대극장 신라대학교(999-5301)
부산청소년연극제 축하공연 '친구' 19:30 - 소극장 부산연극협회(645-3759)
- 18 **fri** 부산청소년연극제 '관악페스티벌' 19:00 - 대극장 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청소년연극제 축하공연 '친구' 19:30 - 소극장 부산연극협회(645-3759)
- 19 **sat** 제 21회 부산청소년연극제 '청소년가요제 겸 힙합댄스경연' 14:30
- 소극장 무료/부산예총(631-1377)
- 20 **sun** 부산청소년연극제-무용공연 16:00 - 대극장 부산무용협회(632-5116)
부산청소년연극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09:00 - 소극장 부산예총(631-1377)
- 21 **mon** 월요일 영화 '300'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2 **tue** 제 21회 부산청소년연극제-부산영상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6:00, 19:00 - 소극장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 23 **wed** 제 21회 부산청소년연극제-부산여상 '탈선 춘향전' 16:00, 19:00
- 소극장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 24 **thu**
- 25 **fri** 제 21회 부산청소년연극제-부흥고 '다녀오겠습니다' 16:00, 19:00
- 소극장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 26 **sat**
- 27 **sun**
- 28 **mon** 월요일 영화 '이장과 군수' 14:00, 19:30 -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9 **tue**
- 30 **wed**
- 31 **thu**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tue** 이청행 피아노 독주회 19:30 - 소공연장
균일 1만원/KOREART(02-3775-3880, 010-6665-3880)
- 2 **wed** 금정수요음악회 '가족사랑음악회' 19:3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 3 **thu**
- 4 **fri**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0:20, 11:40 - 소공연장
균일 1만 5천원/동그라미그리기(818-1772)
- 5 **sat** 오페라 '마술피리' 16:00, 18:00 - 대공연장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1:00, 13:00, 15:00 - 소공연장
- 6 **sun** 오페라 '마술피리' 16:00, 18:00 - 대공연장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12:00, 14:00, 16:00 - 소공연장
- 7 **mon** 최은주, 김은희 피아노 듀오연주회 19:30 - 대공연장
균일 1만원/최은주(011-592-5697)
- 8 **tue**
- 9 **wed** 금정수요음악회 '정희자 클래스' 19:30 - 대공연장 박진홍(017-563-7966)
안티 스티밍 정기 작곡발표회 19:00 - 소공연장 정수란(011-9500-0469)
- 10 **thu** 유니슨 콰르텟 창단연주회 19:30 - 대공연장 프로인트(521-5729)
부산국악작곡가회 제 6회 연주회 19:30 - 소공연장 황익중(510-2942)
- 11 **fri** 소프라노 옥헤나 귀국 독창회 19:30 - 대공연장
초대/YJ엔터테인먼트(011-9604-8082)
- 12 **sat** 애광원 바람난 클래식 15:00, 19:00 - 대공연장 애광원(514-7717)
제 5회 아카데미 콘서트 19:00 - 소공연장 손욱(011-9520-4649)
- 13 **sun** 제 3회 소리모아 정기연주회 14:00, 18:00 - 소공연장
초대/소리모아음악원(514-8453)
- 14 **mon**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테마콘서트 2 19:30 - 소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15 **tue** 2007 스승의 날 기념음악회 19:00 - 대공연장 조경규(011-878-3369)
아르코발레노 정기연주회 19:30 - 소공연장 아르코발레노(011-568-2156)
- 16 **wed** 금정수요음악회 '바리톤 정성민 독창회' 19:30 -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박진홍(017-563-7966)
- 17 **thu**
- 18 **fri** 가족뮤지컬 '니안다와 디지몬 대소동' 10:20, 11:40 - 대공연장
이승재 귀국 작곡발표회 19:30 - 소공연장 이승재(010-9453-0061)
- 19 **sat** 가족뮤지컬 '니안다와 디지몬 대소동' 13:00 - 대공연장
사랑나눔음악회 18:00 - 소공연장 초대/이계원(011-836-6444)
- 20 **sun** 가족뮤지컬 '니안다와 디지몬 대소동' 13:00, 15:00 - 대공연장
균일 1만 2천원/초록공간기획단(1544-9786)
- 21 **mon** 부산신포니에타 제 58회 정기연주회 19:30 - 대공연장
1만원 · 6천원/김영희(510-2911)
- 22 **tue** 한정민 피아노 독주회 19:30 - 소공연장
균일 1만원/예은예술기획(627-2572)
- 23 **wed** 정안선 클래스 협주곡의 밤 19:30 - 대공연장 김영근(011-858-9434)
금정수요음악회 19:30 - 소공연장 박진홍(017-563-7966)
- 24 **thu**
- 25 **fri** 서혜주와 그랜드챔버의 로맨싱 더 바이올린 19:30
2만원 · 1만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26 **sat** 현과 춤과 재즈의 리얼리티 콘서트 19:30
2만원 · 1만원/금정문화회관(519-5651)
- 27 **sun**
- 28 **mon** 부산예술고등학교 제 20회 국악연주회 19:30 - 대공연장
초대/부산예고(514-1232)
- 29 **tue** 부산예중 제 9회 정기연주회 19:30 - 대공연장 부산예중(512-8092)
신문정 피아노 독주회 19:30 - 소공연장 피아니스트(244-1924)
- 30 **wed** 지휘자 슬라바 레디아와 함께 19:30 - 대공연장 김영근(011-858-9434)
금정수요음악회 19:30 - 소공연장 박진홍(017-563-7966)
- 31 **thu**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랑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5/12(토) 16:00, 19:30 5/13(일) 15:00, 18:30	뮤지컬 2007 루나틱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10%	(주)AN시티 (1644-4484)
	5/18(금) 11:00	부산시민을 위한 웰빙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균일 15,000원	3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5/22(화) 19:30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R석 160,000원 · S석 120,000원 A석 80,000원	5%	부산아트매니지 먼트(747-1536)
	5/25(금) 19:30, 5/26(토) 17:00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 과 함께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7080 그 세번째 이야기'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3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KBS부산홀	5/12(토) 19:30 5/13(일) 18:30	박효신 부산콘서트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R석 70,000원 S석 60,000원	소리엔터테인먼트 (755-4545)
	5/19(토)-5/20(일) 14:00, 18:00	2007 마당놀이 변강쇠	마당석, 변강쇠석 40,000원 옹녀석 30,000원 · 일반 20,000원	10%	컬처아이 (1588-8477)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5/5(토)-5/6(일) 11:00, 14:00, 16:00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VIP 25,000원 · R석 20,000원 A석 15,000원	10%	나눔기획 (1566-1085)
경성대학교 소극장	4/12(목)-5/13(일) 평일 20:00, 토요일 16:00,19:00, 일요일 15:00(월요일 공연없음)	연극쟁이 유순웅의 1인극 '염쟁이 유씨'	균일 25,000원	2,000원 할인	(주)코엔 (1544-3164)
가마골소극장	5/11(금)-6/3(일) 평일 19:30, 토요일 16:30, 19:30, 일 · 공휴일 15:00, 18:00(월요일 공연없음)	2007 가마골소극장 고정레퍼토리 '서툰 사람들'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10%	가마골소극장 (245-0042)

※2007 부산국제연극제 초대권 이벤트: 5/5(토)~5/15(화)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경성대학교, 너른소극장 외

- 8개국 참가작 전 작품을 볼 수 있는 초대권 이벤트.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게시판에 보고싶은 공연과 사연을 올려 주시면 5명을 선정, 초대권을 드립니다.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 북구/대한도서(덕천로타리 332-7339)



안녕하세요. 모짜르트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친절할 서비스
가족 · 연인 · 친구 · 각종 모임에 찾아주세요.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돈까스 ₩6,000원 (디저트 포함)
- ★3단샌드위치+원두커피 ₩6,000원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드뷔시의 바다를 들으면 그 바다가 보인다

이동신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

내 고향에는 <바다>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나와 내 고향 친구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늘 미지의 세계요, 동경의 대상이었고 바다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 무엇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겨울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해방감을 만끽하고자 했던 여행의 목적도 당연히 바다를 보러 가는 것이었고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동해 바다로 달려가 우리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했었다.

지금도 나는 바다를 보면 나도 모르게 김남조 시인의 <겨울바다>라는 시가 떠오른다.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었던 새들이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마저 얼어 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혼령을 갖게 하오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갔었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드뷔시의 <바다>를 들으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던 바다가 들리고 그 바다가 보인다. '관현악을 위한 3개의 교향적 소묘'라는 길다란 명칭을 달고 있는 이 작품은 그의 음악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던 시기의 작품인데, 드뷔시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작품이고 바다를 소재로 한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이다.

제1곡 '해상의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주 느린 템포로 시작되며 어두운 바다에 짙게 깔린 신비의 그림자를 묘사한다. 새벽 바다에서 점점 밝아 오는 수평선과 빛나는 하늘, 그리고 밝은 대낮까지의 변화를 미묘하게 그리고 있다.

제2곡 '바다의 유희' 해변가에 밀려오는 큰 물결과 작은 파도를 묘사한 우아하고 귀여운 음악이다.

제3곡 '바람과 바다의 대화' 바람과 바다가 만나서 어우러지는 잔잔한 파도에서부터 폭풍우와 광풍이 몰아치는 거친 파도,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고요한 바다가 묘사되고 있다.

어린 시절 소리 껍질을 귀에 대고 거기서 나는 파도 소리를 즐겨 들었지만 평생 단 한번 밖에 바다 여행을 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바다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드뷔시는 이렇게 3개의 악장을 통해 시시각각 변해가는 바다의 모습을 커다란 캔버스에 멀리서 흐릿하게 보여 지는 풍경화처럼 그려냈다.

〈누가 음악 창조의 비밀을 알겠는가? 바다에 대한 것을. 바다와 하늘 사이에 걸린 곡선. 잎 사이를 스치는 곡선. 새 울음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 내부에 다양한 인상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갑자기 이쪽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러한 기억의 하나가 우리들 밖으로 퍼져 가서 음악으로 들려오는 것이다.〉
(1911년 드뷔시의 답화에서)

바다에서 가까운 거리에 살게 된 지금은 참 행복하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바다를 이제는 언제라도 단숨에 달려가 볼 수 있으니 내겐 참으로 황재인 셈이다. 그래서 요즘은 틈만 나면 네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바다를 보러 간다. 굳이 바닷가를 거닐지 않아도 차에 드뷔시의 〈바다〉를 크게 틀어놓고 광안대교 위를 느릿느릿 지나가며 보는 바다도 내겐 너무 아름답다.

정지용 시인의 〈바다1〉라는 시가 절로 중얼거려진다.

오·오·오·오·오·소리치며 달려가니,
오·오·오·오·오·연달아서 몰아 온다.
간밤에 잠 살포시
머언 뇌성이 울더니,
오늘 아침 바다는
포도빛으로 부풀어졌다.
철썩, 처얼썩, 철썩, 처얼썩, 철썩
제비 날아들 듯 물결 사이사이로 춤을 추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예전에 같이 여행 갔던 친구들이 그리워진다. 다시 만나 밤새 떠들며 놀고 싶은데 모두들 왜 그렇게 바쁜 건지 만나기가 쉽지 않다. 오늘은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라도 챙겨야겠다. 그리고 바닷가에 살아서 너무 좋다는 철없는 자랑이나 실컷 해야겠다.

평생 음악을 즐기며 봉사해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



한국의 음악신동 1호, 세계로 진출한 음악가 1세대라는 수식어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 선생이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오랜만에 부산음악 애호가들과 만난다.

한동일 선생은 우리나라 음악계에 상징적인 존재이다. 궁핍한 전쟁 중에 탄생된 우리나라 첫 신동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감동의 선율을 전해준 주인공이다.

미국에서 연주자로, 교육자로 활동하다 50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한동일 선생은 2005년 울산대학교 교수로 새로운 음악인생을 시작했다. 그 스스로 자신의 영구 귀국에 대해

“피가 불렀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을 떠나 세계 27개국을 돌며 연주여행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역시 한국사람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이제 고국에서 우리의 음악도들, 또 아시아의 젊은이들을 위해 어려웠던 시절 내가 받았던 것처럼 많이 베풀어야 할 때인 것 같아 귀국을 결심했어요.”

어려운 시기 미국 유학길에 오른 한동일 선생의 일화는 유명하다. 1953년 12살 되던 해 그는 미군부대 행사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었고 당시 미5공군사령관 새뮤얼 앤더슨 장군이 신동 한동일의 후원자를 자칭하면서 선생의 인생이 큰 전환을 맞았다.

장군의 후원으로 한국과 일본의 미5공군사령부를 돌며 연주를 하게 되었고 미군들이 철모를 벗

어 1달러, 2달러씩 준 돈으로 스칼라십 펀드 5,000달러를 모았다. 1954년 6월 1일 여의도 비행장에서 열 두살 소년 한동일은 미국으로 귀환하는 새뮤얼 앤더슨 중장의 군용기에 함께 올라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이다.

서울을 출발해 동경,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일주일만에 뉴욕에 도착한 소년 한동일은 앤더슨 중장의 주선으로 줄리어드 예비 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당시 미국내에 화제를 몰고 다닌 그는 1956년 카네기홀에서 뉴욕필하모닉과 협연하고, 1965년 리벤티리트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우승했다. 케네디 대통령 재직 시 백악관에 초청받아 연주를 하기도 했다.

그는 도미 50주년을 기념해 2004년 아버지와 함께 연주한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회를 평생 잊을 수 없다. 한동일 선생의 아버지 한인항 선생은 서울시교향악단 창립멤버로, 당시 92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낸 뒤에도 1970년까지 타악기 주자로 활약했다.

“아버지가 올해 95세입니다. 지금은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지만 아버지와 함께 연주한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피아니스트로 성장한데는 아버지의 힘이 컸어요.”

전쟁 중 피아노가 귀한 시절, 아버지와 함께 피아노 한 시간을 치기위해 마포에서 전차를 타고 피아노가 있는 종로 3가까지 찾아다닌 옛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난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라흐마니노프도 몰랐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봤지요. 28살에 인대애나 음대 교수가 되어 세계 각국 학생들을 만났는데 한국학생들이 재주가 많았어요. 한가지 흠이라면 우리 학생들이 창조력은 많이 부족해요.”

부산은 그에게 각별한 인연이 있는 도시다. 6·25때 부산으로 피난와서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했고, 영도에서 열린 제 1회 이화경향콩쿠르에 참가하기도 했다.

서대신동, 초량에서 보낸 기억을 더듬으며 부산의 따뜻함을 다시금 느껴보는 한동일 선생. 평생 음악을 즐기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아름다운 거장과의 만남이 기다려진다.



2004년 도미 5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립교향악단 창단 멤버였던 92세 아버지와 함께 연주한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주회.

파인(巴人)의 봄이 오면과 김동진

김상훈 · 시인,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

봄꽃들이 다투어 피고 지는 가운데 절후(節候)는 성큼 성큼 여름철로 다가가고 있다. 봄철이 되면 봄을 예찬(禮讚)한 노래, 봄을 환호(歡呼)한 노래들이 절로 생각난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건너 마을 사는 처자(處子) 꽃 따러 오거든/꽃만 말고 내 마음도 함께 따가 줘//봄이 오면 하늘위에 종달새 우네/종달새 우는 곳에 내 마음도 울어/나물 캐는 아가씨야 저 소리 듣거든/새만 말고 내 소리도 함께 들어줘//나는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종달새 되어서 말 부친다오/나는야 봄이 오면 그대 그리워/진달래 꽃 되어 웃어보아요”

파인(巴人) 김동환(金東煥) 선생의 ‘봄이오면’이란 詩다. 파인하면 우리는 그의 대표작 ‘국경의 밤’ ‘승천하는 청춘’ ‘눈이 내리느니’ ‘북청(北靑) 물장사’ 등을 상기하게 된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친 그의 초기 작품에는 북방적 정서를 바탕으로 일제의 탄압과 수탈정책에 견디다 못해 남의 나라로 쫓겨 간 백의동포들의 슬픔과 고통과 원통함을 강렬한 저항정신으로 노래하고 있다.

“가끔 가다가 당나귀를 울리는 눈보라가/막북강(漠北江) 건너로 굽은 모래를 쥐어다가/추위에 얼어 떠는 백의인(白衣人)의 귀뿔을 때리느니” 詩 -〈눈이 내리느니〉 일부- “아아, 무사히 건넌을까/이 한밤에 남편은/두만강을 탈 없이 건넌을까//저리 국경 강안(江岸)을 경비하는/외투 쓴 검은 순사(巡査)가/왔다 갔다 오르랴 내리랴 분주히 하는데/발각도 안되고 무사히 건넌을까//소금실이 밀수출 마차를 띄워놓고/맥(脈)이 풀려서/과! 하고 붙는 어유(魚油) 등잔만 바라본다” 詩 -〈국경의 밤〉 일부.

“여러 사람들이 고요히/동무의 시체(屍體)를 갖다 묻었다/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거의 묻힐 때 죽은 병남(丙男)이 글 배우던 서당집 훈장(訓長)이/ ‘그래도 조선 땅에 묻힌다’ 하고 한숨을 휘- 쉰다” 詩 -〈국경의 밤〉 일부- 일제에게 나라와 조국 땅을 빼앗겨 버리고 시베리아나 만주벌판으로 쫓겨 가거나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기 일쑤이던 당대 식민지 조선백성의 비참하고 덧없는 삶의 모습이 날카롭게 반영되고 있다. “그래도 조선땅에 묻힌다”라는 구절은 이러한 현실인식과 민족의식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 된다. 조선 땅에 묻힌다는 사실만으로도 당대 망국민, 유랑민으로서의 조선인에게서는 행복한 일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대 조선인의 가슴 속에 〈조선땅〉 〈조선말〉은 바로 살아있는 조선심(朝鮮心)의 표현이며 동시에 민족혼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파인 김동환의 초기 詩가 북방의 정서와 강인한 생명의지, 변경지방의 비극적 현실, 암흑시대의 서사적 저항 정신 등을 밑바닥에 깔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을 떠나면서도 조국광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송화강 뱃소리(파인 작곡)’ ‘강이 풀리면(오동일 작곡)’ 같은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하겠다.

“새벽하늘에 구름장 날린다/에잇, 에잇, 어서 노 저어라 이 배야 가자/구름만 날리나/내 마음도 날린다//돌아다보

면 조국은 천리란다/에잇, 에잇, 어서 노저어라 이 배야 가자/온 길은 천리나/갈 길은 만리다/산을 버렸지 정이야 버렸나/ -중략- 여기는 송화강 강물이 운다야/에잇, 에잇, 어서 노저어라 이 배야 가자/강물만 울더냐/장부도 따라 운다” 詩 <송화강 뱃노래>의 일부다. “강이 풀리면 배가 오겠지/배가 오며는 님이 타겠지/님이 안타도 편지야 타겠지/오늘도 강가에서 기다리다 가노라/님이 오시면 설움도 풀리지/동지선달 얼었던 강물도/제멋에 녹은데 왜 아니 풀릴까/오늘도 강가에서 기다리다 가노라” 詩 <강이 풀리면>이다. <송화강 뱃노래>에서는 망국의 슬픔과 한을 안고 멀리 남의 나라 땅으로 쫓기어가는 우리겨레의 참담한 심정을 읊었고, <강이 풀리면>에서는 조국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언젠가는 이룩될 해방과 광복을 간독(懇篤)하게 소망하고 있다.

들머리에서 소개한 <봄이 오면>과 함께 애송되고 있는 파인의 <산 넘어 남촌 (김동현 작곡)>을 보면 “산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꽃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내음새/어느 것 한가진들 실어 안오지/남촌서 남풍불제 나는 좋데나//산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저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가/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때/버들 발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나는 좋데나//산 넘어 남촌에는 배나무 서있고/그 나무 아래에는 각씨셨다가/그리운 생각에 재(嶺)에 오르니/구름에 가리어 자취 안뵈네/끊었다 이어오는 가는 노래는/바람을 타고서 고요히 들리네?” 봄에 대한 갈망과 기쁨을 읊고 있으나 파인에게 있어서는 이 시 또한 조국의 해방과 광복을 상징적으로 읊고 있다고 하겠다.

노산 이은상의 시 ‘가고파’를 작곡한 김동진선생은 평소 김동환의 시 ‘봄이 오면’을 가장 애송했다. 어느 날 밤 그는 학교(송실전문) 기숙사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끝내고 풍금을 치면서 발성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 곧 오선지에 선율을 옮겼다고 한다. 그때가 1931년, 이 곡은 봄의 향수가 서린 노래로서 작곡 되자마자 삼시간에 온 송실학당에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창되었다고 한다.

작곡자 김동진선생은 평남 안주(安州)에서 태어났다. 조부와 부친이 교회목사였기 때문에 독실한 기독교적 가정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이때 교회의 풍금소리에 매료되어 음악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 송실중학 3학년 때 말스베리(Dwight R. Malsbary) 선생에게 정식으로 바이올린을 지도 받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그는 문학에도 흥미를 갖고 많은 시집들을 섭렵했다고 한다. 1933년 그의 은사였던 무애(無涯) 양주동선생을 통해 노산(鸞山) 이은상시인의 시조를 읽고 우리나라 서정가곡의 최고 걸작이라 평가받고 있는 <가고파>를 작곡 했던 것이다. 또한 이 <가고파>를 작곡하자 그의 바이올린 선생이었던 말스베리에게 작곡에 대한 재질까지 인정받게 되어 화성학, 대위법 등 작곡에 관한 기법과 심지어 피아노 조율까지 배우게 되었으며, 한편 송실전문 미국인 교수였던 루즈선생의 부인에게 성악을 시사하게 되어 하루종일 음악속에 묻혀 나날을 보내었다. 1936년 도쿄에 유학, 스즈끼(鈴木鎮一)선생에게 본격적으로 바이올린을 시사하면서 도쿄 일본고등음악학교에 진학, 착실히 음악교육 과정을 밟았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던 해 12월 바이올린 하나만 달랑 들고 월남할 때 신분을 밝힐 만한 증거가 없어 찢찢 매다가 “헌병 아저씨, 내고향 남쪽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를 알지요” 하고 자신이 바로 그 <가고파>의 작곡자라는 사실을 알려, 간신히 위기를 모면 한 일은 유명하다. 그는 월남 후에도 명태(1954), 낙동강(1954), 길(1956), 못잊어(1957), 진달래꽃(1957), 초혼(1957), 탄금대(1968), 한산섬(1968), 사월의 왈츠(1970) 등 불후의 명곡들을 많이 작곡했다.

예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도시 비엔나

이승주 · 비엔나 통신원



연주자들이 꼭 한번 서길 원하는 뮤직페어라인 골든홀

인구 200만명이 겨우 넘는 작은 도시 비엔나. ‘손바닥 만한 도시’라는 표현은 비엔나에 가장 잘 어울린다. 예부터 수없이 많은 예술가와 지성인을 품은 이 작은 도시 비엔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이라 손꼽았다. 어떻게 이 작은 도시 비엔나가 그 명성을 지금까지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과거의 예술가들은 찬란했던 역사와 맞물려 비엔나에 가면 경제적인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예술을 마음껏 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비엔나로 몰려들었고, 또한 비엔나는 그들의 요구에 알맞게 마음껏 예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때문에 비엔나 태생이 아닌 하이든, 베토벤, 모차르트들과 같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비엔나에 모여들었고, 비엔나는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 나누고 싶은 예술을 함께 나누고 생활하고 연주를 하는 동안 비엔나의 참 매력에 마음을 빼앗긴 그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준 곳 역시 비엔나이다. 때문에 이곳은 후세에도 음악인이 또한 모든 예술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로 예술이 숨쉬는 도시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클림트를 비롯한 쉴러 등 화가와 20세기 기초 건축의 역사를 바꾼 오토 바그너, 그리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까지 비엔나는 예술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다.

비엔나는 예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도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어찌면 예술에 대해서만은 겸손할 줄 모르는 비엔나시민들의 자부심 또한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다.(우리네들도 과거 반만년의 역사속 자부심만으로 강국들 틈에서도 역사적 자존심 하나 곳곳이 내세울 수 있지 않던가.)

이런 예술, 특히 음악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콧대 높은 이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연주가 있었다. 지난해 6월과 9월 무려 2회에 걸쳐 그들의 자존심이자 음악인들에게 가장 서고 싶은 무대인 비엔나의 뮤직페어홀라인 골든홀을 한국인에게 개방하고자 말했다. 뮤직페어라인은 1870년 1월 첫 연주를 시작으로 140여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실력있고 전통있는 연주단체와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해왔다. 그만큼 이 홀은 연주자들이 꼭 한번 서보고 싶어하는 홀 중의 하나이다.

이 꿈의 무대에 설 수 있었던 동양인, 그 중의 한국인은 과연 몇이나 될까. 하지만 지난 2006년 6월 21일 드디어 굳게만 닫혀 있었던 그들의 문을 열게 된 연주회가 시작되었다. 그것도 한인 뮤직매니지먼트사가 기획하고, 한인 지휘자에 한인 협연자들로 이루어진 철저한 우리 손으로 일구어낸 연주회가 열린 것이다. 또한 우리의 연주에 눈물짓고, 기립박수로 환호를 보내준 이들은 모두 비엔나 또는 더 먼 곳에서 우리의 연주를 보겠다고 달려온 오스트리아 클래식 음악애호가들이기에 더욱더 의미있는 연주인 것이다.

이 연주회는 (주)쎌부른클래식매니지먼트의 오스트리아 본사인 IMK(Verein fuer Internationale Musik und Kulturfoerderung/국제음악 및 문화진흥협회)가 주최하는 'Schwingungen(영어로는 Swing)' 시리즈이다. 'Schwingungen'은 흔들림, 진동, 물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독일어이다. 단어의 뜻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음악이 물결 쳐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IMK의 대표를 맡고 있는 MS. Sonja Steindl(한국명 : 권숙녀)은 1996년 비엔나에서 클래식음악 매니지먼트사인 IMK를 조직하였으며, 이후 15년 만에 오랜 소망이던 콘서트시리즈를 그것도 비엔나 뮤직페어라인에서 열게 된 것이다.

시리즈 첫번째의 이번 연주는 Mozart Collegium Vienna(지휘 Christian Schulz)와 피아니스트 김정원 그리고 소프라노 박미혜가 함께했다.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모차르트의 곡으로 이루어졌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KV.488로 시작하였다. 뒤를 이어 소프라노 박미혜가 모차르트 오페라 아리아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아름답고 서정적인 목소리는 그 자리에 함께한 이들의 마음과 함께하기에 충분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시작한 Schwingungen 시리즈의 제 2회 연주는 9월 18일에 개최됐다. 이 연주는 지휘자 배종훈의 하이든 서곡으로 시작하여 플루티스트 최나경,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서민정이 함께하였다.





'Schwingungen' 시리즈를 주최한 IMK대표 Sonja Stein과 연주장을 찾은 오스트리아 실버협회장이자 전 내무부장관인 Andreas Khol.

항상 연주자들은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청중이 느끼게 됐을 때, 또 그 느낌을 자신이 되돌려 받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라고 한다.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을 함께한 연주자와 청중은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끊임없이 전달하느라 연주가 끝난 얼마가 지난 후에도 서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오스트리아 실버협회장 Mr. Andreas Khol(전 내무부장관)과 비엔나 시장 Mr. Michael Haeupl이 참석하여 본 연주회를 기획한 IMK의 권숙녀 협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향후 이 연주 시리즈의 성공적 행보를 자신했다. 음악은 마음으로 통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서로가 서로

에게 감사하는 연주. 그 연주의 감흥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번 2007년에도 Schwingungen시리즈는 6월과 9월에 기획되어있다. 먼저 6월에 있을 Schwingungen 연주의 시작은 후학양성과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양숙이 그리그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연주할 예정이다. 올해로 서거 100주기를 맞는 그리그가 26세에 작곡한 피아노콘체르토는 화려하면서 극적이며, 그리고 극히 북구적 성향을 가진 곡으로 유명하다. 이 곡을 작곡하고 그리그는 로마에 머물고 있던 58세의 리스트를 찾아가 곡을 보여주었고, 이 곡을 연주하면서 꼼꼼히 살펴본 리스트는 그리그에게 '두려움없이 이대로 나아간다면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에 자신이 보증수표를 써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황금홀을 가득채울 관객들에게 피아니스트 이양숙이 들려줄 그리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피아니스트 이양숙이 황금홀에서 풀어내어줄 그리그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Schwingungen시리즈의 기획으로 한국 음악계에 큰 획을 그은 IMK의 협회장을 맡고 있는 Sonja Steindl은 Schwingungen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준 연주자들에게 오히려 그 감사의 뜻을 전하며, 또한 향후 세계음악계에 진출하는 한국인 음악인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을 밝혔다.

사실상 한국인들의 비엔나로의 이주정착은 1972년 8월 26일 최초로 한국 간호원 50명이 비엔나 국제 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실상 우리의 비엔나로의 이주는 예술을 위함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60~70년대 가난했던 시절, 들어보지도 못했던 서양의 부자나라에 가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젊었던 그들이 지닌 꿈을 이룰 수 있으리란 생각만으로 큰 걸음을 결심한 이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낯설고 물설고 언어 또한 익숙하지 않았던 이들의 고생과 눈물을 우리는 아마 짐작도 못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성실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생활을 했다. 이러한 시기에 이들의 노

력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어준 분이 있다. 바로 권영민 전비엔나대사이다. 이들의 노력은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추억을 함께 회상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비엔나 오타클링²에 위치한 ROSEN SAAL³에서 열렸다. 무엇보다 이번 연주는 권영민 전 비엔나 대사와 함께한 자리여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연주의 시작은 피아니스트 박상욱, 첼리스트 정다운, 바이올리니스트 이호준으로 구성된 VMC트리오 팀의 모차르트 곡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현재 비엔나 국립음대에 재학중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유망주이다. 뒤를 이어 플룻을 전공하고 있는 김유진과 심규리의 듀엣으로 바하의 목가적이면서 아름다운 선율로 사랑받고 있는 Sonata in E flat Major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피아니스트 박상욱의 경쾌하고 화려한 리스트의 Rigoletto-Paraphrase와 쇼팽의 Scherzo No.2로 이어졌다.

특히 마지막을 장식한 쇼팽의 Scherzo No.2는 쇼팽이 27세에 작곡한 곡으로 그의 정열과 젊음, 그리고 사랑이 담긴 곡이라 할 수 있다. 1972년 8월, 처음 이곳 비엔나공항에 도착하였을 때의 그 젊음을 그리고 그때의 꿈을, 젊은 피아니스트 박상욱의 연주로 다시 한번 회상하지 않았을까 싶다.



2004년 개관과 함께 크고 작은 음악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는 비엔나뮤지션센터 앞 전경



현재 비엔나 국립음대에 재학중인, 박상욱, 정다운, 이호준으로 구성된 VMC 트리오

¹뮤직페어라인 : '음악모임'이라는 뜻이다. 대극장인 '황금홀'은 세계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심포니 전용홀이다. 지휘자 브루노 발터는 "뮤직페어라인 무대에 서기 전에는 음악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인 줄 몰랐다"고 표현할 정도로 홀의 음향을 자랑하고 있다. 길이 48.8m, 너비 19.1m, 높이 17.75m로 만석시 잔향시간 2.0초.

²오타클링 : 오토바그너의 작품. 오토바그너는 오스트리아의 건축가로, 제체시온운동(Sezession: 과거의 예술 전반에서 분리하여 건축·공예·회화·조각 등을 새로운 시대에 즉응(即應)한 예술로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종합적 운동)의 시조이며 간소하고 실용적인 건축양식을 주장했는데, 대표작으로는 빈광장 정거장, 헤이그 평화궁 등이 있다. 오타클링의 오타크는 황제의 이름에서 따왔다.

³S A L L : 비엔나뮤지션센터에 있는 홀이며, 2004년 센터의 오픈과 함께 음악인들을 위해 개관되어 크고작은 음악회가 꾸준히 열리고 있다.

풍류로 벚을 삼은 단원(檀園) 김홍도

강성일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대학교 강사

봄 물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놓았으니
 물 아래 하늘이요, 하늘 위가 물이로다
 이 중에 늙은 눈에 보이는 꽃은 안개 속인가 하노라
 - 김천택의 <청구영언> 중에서 - 김홍도 作



[선동야적] 제시 : 밤 깊어 학은 가고 가을 하늘 같이 고요한데, 산 밑 벽도화는 봄에 반쯤 피었구나.

단원 김홍도(1745-1806)하면 대개 토속미가 넘치는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화가로만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그는 그림뿐만 아니라 시와 글씨는 물론이고 뛰어난 음악가이자 풍류인이다. 저명한 미술 평론가 오주석은 단원 김홍도를 시서화(詩書畫)의 삼절(三絶)에 음악을 더하여 시서화악(詩書畫樂), 즉 사절(四絶)이라는 말을 지어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사계의 권위자 문일평은 화가로 신선의 경지에 올랐다하여 그림신선, 즉 화선(畵仙)이라고 지칭하였다. 김홍도가 음률에 밝고 음악을 좋아했다는 사실은 그의 스승 강세황이 이미 단원기(檀園記)에서 밝히고 있다.

사능(김홍도)은 음률에 두루 밝았고, 거문고·젓대며 시와 문장도 그 묘를 다하였으며 풍류가 호탕하였다. ... 사능의 사람됨을 보면 얼굴이 준수하고 마음가짐은 깨끗하여 보는 이는 모두 사능이 고상하여 속세를 넘어섰으며, 시중거리에 자잘한 무리가 아님을 알 것이다. 품성이 거문고와 젓대의 전아한 음악을 좋아하니 매 번 꽃피고 달 밝은 저녁이면 때때로 한 두 곡조를 연주하며 스스로 즐겼다. 옛사람을 좇으며 그 풍채와 정신이 우뚝했다.

이렇듯 표암 강세황은 제자 김홍도를 음률과 시·문장에 그 묘를 다하고, 마음가짐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풍채와 정신이 우뚝했다고 하였다. 당시의 흥해(포항)군수 성대중은 단원의 통소 소리를 듣고 '청성집'에서 이러한 시를 남겼다.

청량사 밖 다리위에 달이 기울어
 산 빛이며 시내소리 고요하도다.
 누가 보냈나 신선의 통소
 표연이 한번 불어보니
 바로 학 타고 생황 불던 신선이구나.

김홍도가 한 때 경북의 안동역장으로 근무할 당시 성대중은 청량산 계곡 바위에 앉아 그의 통소 소리를 듣고 “멀리서 대하면 곧 신선이요, 가까이서 본 즉 사람이다” 하였다.

청량산(경북 봉화)은 경상좌도의 명산이다. 갑진(1784)년 감사 이병모 공께서 여럿을 거느리고 가실 때 나도 따라가 청량사에 이르렀다. 봉화현감 심공저, 영양현감 김명진, 하양현감 임희택, 칠방(안동역장) 김홍도도 함께 왔다. 심공저와 나는 전부터 악숙이 있었고 칠방 김홍도는 나라 안의 으뜸가는 화가로 이름났다. 산은 고요하고 달은 밝은 데 계곡의 바위에 나누어 앉았다. 김홍도가 통소를 잘 불어 한번 불게 하였다. 성조(聲調)가 맑고 뛰어나 숲 위로 멀리 퍼져 나가자 못 자연의 소리가 숨을 죽이는 것 같았으며 여운이 길게 퍼졌다. 멀리서 들으면 필시 신선이 학을 타고 생황을 불며 내려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무릇 멀리서 대하면 곧 신선이요, 가까이 본 즉 사람이니, 옛적에 일컬은 바 신선이라는 것도 모두 이와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니라.(淸凉山記).



[단원도] 의 진솔회(眞率會)

단원 김홍도는 통소뿐만 아니라 거문고에도 능하였다. 서른일곱 살 되던 사월 첫 일에 김홍도 자신의 집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살자”란 풍류계로 ‘진솔회(眞率會)’가 있었다. 이날 단원은 거문고로 이 모임을 이끌었는데, 그 광경이 <단원도>에 보인다. 그림 위에 쓴 김홍도의 발문은 이러하다.

창해 선생이 북쪽 백두산을 오르고 변경을 두루 다닌 후 동쪽 금강산으로부터 나의 초출한 집을 찾은 것이 신축(1781)년 봄 청화절(4월 1일)이었다. 뜰의 나무엔 햇별이 따스하고 바야흐로 만물이 화창한 봄날에 나(단원)는 거문고를 타고, 담졸 강희언은 술잔을 권하고, 선생께서는 모임의 어른이 되시니 이 모임이 진솔회(眞率會)였다. 그 후 해가 다섯 번 바뀌어 강희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 창해 선생을 만나게 되니 그 정력은 늙어서도 쇠하지 않으셨다. ... 닷새 간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예전처럼 이야기 하다 강희언의 생각에 슬픈 느낌이 뒤따르는지라. 당시에 광경을 <단원도>로 한 폭 그려 창해선생에게 드린다. 갑진년(1784) 12월 입춘 2일 후에 단원 주인 사능 김홍도 그리다.

그리고 1784년 여름, 대구 감영 징청각에서 풍류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홍신유는 김홍도가 떠나는 모습을 이렇게 시로 지었다. “대구에서 돌아가는 길 준마의 등에 올라타니, 거문고 갑 통소 집을 보고 학이 길게 우짖누나” 김홍도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는 좋은 거문고와 통소 소리에 춤추지 못하게 됨을 서운해 했다는 뜻이다. 이렇듯 단원은 당대의 화가로 시와 글씨는 물론이고, 거문고와 통소에 명인이었다. 또한 그는 비파와 생황도 즐겨 연주한 것으로 유명하다. 화가로서 악의 경지를 넘어선 풍류인으로 선도(仙道)로 살다간 예성(藝聖)이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오래 살며 생활이 풍족해지고, 문화적 척도로 서점에 책이 넘쳐도 우리문화가 위기라고 걱정을 한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산업화로 인하여 인위적인 모임이 주를 이루고, 시와 그림 그리고 악이 어우러진 풍류적인 모임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 결과 물질의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이 그림자와 같이 뒤를 따르지 않는지 고뇌해 본다.

승 무

홍기태 ·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梧桐)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승무라고 하면 이렇듯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시인 조지훈의 승무를 떠올리게 된다.
 승무의 아름다움은 섬세한 언어로 표현되었고 이 아름다운 한편의 시로 그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진 춤이다. 이러기에 사람들은 직접 보지 않고도 하이얀 고깔과 외씨버선, 휘어
 져 감기우고 뺨는 장삼의 날개 짓으로 승무의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감히 승무는 아무나 추나” 승무는 결코 쉽게 누구나 흥내 낼 수 없는 춤이다. 오로지

몸짓 수행을 수없이 반복한 사람만이 고고한 춤사위를 흠뻑릴 수 있다. 온갖 춤사위가 집대성된 한국 춤의 백미가 바로 승무인 것이다.

승무의 유래는 불교 문화적 입장에서 본 김만중 소설 중 구운몽에서 나왔다는 설과 탈놀이에서 노장과 과거승의 번뇌가 낳은 춤이라는 설이 있으나 어느 것이 확실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황진이가 지족선사를 유혹하려는 춤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으며, 1910년쯤 기방에서 발전되었다는 설도 전해진다. 그러나 불교 의식무용인 법고춤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

승무는 정신과 그 춤사위 구성으로 볼 때 우리 민족 대대로 역사적 삶의 몸짓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골격이 세워지고 오랜 세월의 형성 과정을 거쳐 조선시대 말에 완전히 하나로 독립되어 정립된 민족춤으로 우리 역사의 구조이며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승무는 수천년 삶의 지혜와 역사의 직관적 형상화이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로 지정된 승무는 민속춤의 정수라고 할 정도로 한국 춤의 모든 기법이 집약되어 있는 춤이다. 오늘날 승무는 불교 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이 아니고 민간연향에서 무원이 흰 장삼을 입고 붉은 띠 모양의 가사를 매고 흰 고깔을 쓰고 추는 춤을 가르킨다.

승무는 창우들이 판놀음에서 발전하여 민간연향에서 두루 연행되었는데 조선 말기에 신갑두, 백설채, 한성준과 같은 승무 명인들이 나왔다.

1900년대에는 협률사, 광무대, 원각사와 같은 극장 무대에서 승무가 공연되었다. 특히 승무의 무대 공연에는 한성준의 활약이 컸다. 승무는 약간씩 지역마다 특징이 다르게 전승되어 왔는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한성준에 의하여 발전된 경기, 충청 승무와 이대조에 의해 발전된 호남지방의 승무이다. 한성준의 춤은 한영숙에게 이대조의 춤은 이매방에게 전승되었다. 한영숙은 이미 작고했으며 그 뒤로 이해주, 정재만으로 전승되고 있다.

승무는 해금, 젓대, 목피리, 곁피리, 장고, 북으로 편성된 삼현육각의 반주로 이루어진다. 먼저 매우 느린 6박자의 긴 염불의 반주로 춤을 추는데 매우 느린 움직임에 이르다가 돌연히 한삼을 날려 교묘한 곡선을 그려가며 춘다. 좀 빠른 6박자 반 염불 장단에 세워 놓은 북을 몇 차례 어르며 치고 나서 씩씩하고 구성진 4박 장단인 타령에 까치걸음으로 발을 딛고 완자걸이로 한삼을 뿌리고 연풍대로 돌면서 활달하고 유연하게 춤을 춘다. 이어, 자진타령으로 이어지는 빠른 움직임, 흥겨운 4박자 장단인 굿거리에 발을 벌리어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한삼을 꼬리치며 뿌리고 걸치며 일어서서 여러 교묘한 사위로 흥겨운 춤을 추다가 오금을 굽히고 손을 소매에서 꺼내어 북채를 양손에 쥐고 세워 놓은 북을 어르며 간간히 치다가 활달한 구성진 자진모리 장단으로 북을 친다. 끝 무렵은 매우 빠르고 격렬한 휘모리 장단으로 북 가락을 몰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흥겨운 굿거리 장단에 팔을 소매에 넣고 뿌리며 춤을 추며 마친다.

승무는 이처럼 춤에 뛰어난 명인들에 의하여 가꾸어진 춤인 만큼 춤사위가 매우 세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도 무속무가 갖는 어르고, 맺고, 푸는 리듬의 섬세한 표현과 중춤이 갖는 한삼사위의 오묘함이 조화된 매우 우수한 춤으로 꼽히고 있다.

화양연화를 위하여

— 한성희 <Image of Form-Rose> —

김형술 · 시인

花樣年華(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를 일컬을 때를 흔히 ‘꽃 피고 새 우는 시절’이라고 말한다. 눈부시게 밝은 햇빛 아래 천지에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즐겁게 우짖는 시절, 마음 속에 한 점 근심걱정도 없어 행복한 감정이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순간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분명 존재했거나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며 회상할 때 사람들은 ‘그때 그 꽃피고 새 울던 시절’은 참 좋았지, 혹은 언제 그런 시절이 오려나, 라고 말한다. 그러나 양조위와 장만옥이 출연한 왕가위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찾아온 사랑의 한 순간을 의미한다. 금지되어 축복받지 못하는 사랑의 늪을 힘겹게 건너와 혼자가 되고난 후에야 두 연인은 비로소 그 늪을 건너오던 순간이 그들 인생의 화양연화였음을 깨닫는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생애에서 화양연화란 어쩌면 미처 감지하고 인식하기도 전에 쉽사리 지나쳐버리는 한순간의 찰나일 지도 모른다. 그 순간을 무심히 지나쳐보내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난 후의 어느 날 문득, 아하! 그때가 내 삶의 꽃피고 새 우는 시절이었어, 라고 탄식하게 되는 일. 그게 삶의 모순이자 묘미일지도. 천지개벽이 없는 한 때가되면 꽃이 피고지고 새들은 울고 지저귀며 돌아왔다 다시 떠나기를 반복한다. 어떤 꽃피는 날은 행복하고 어떤 꽃피는 날은 쓸쓸하다. 어떤 날의 새소리는 울음소리로 들리고 어떤 날의 새소리는 변명 혹은 비명으로 들리기도 한다. 삶은 끝없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이다. 그 외줄 위를 오가는 시간의 표정은 오로지 자신의 마음가짐이 좌우한다. 그러니 천지에 피고지는 꽃, 숲과 들과 마을을 오가는 새들의 목소리는 순전히 어떤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산물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산물들이 쌓여서 행복과 불행에 관한 기억들이 된다. 꽃과 새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대표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관물들의 형상이지만 또한 그저 마음이 빚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기도 하다.

관화가 한성희의 그림에서는 늘 <Image of Form>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거기에 간혹 <Bird> <Flower> <Tree>같은 부제가 붙어있기도 하지만 부제가 없는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는 하나의 형상이 가지는 이미지의 속성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실적으로 묘사된 하나의 오브제가 전혀 실제적이지 않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그림들, 이를테면 허공에 떠있는 돌멩이, 나무의 수맥 속에 서있는 사람,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에 피어있는 꽃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나의 오브제가 실제적이지 않은 전혀 낯선 공간에 배치될 때, 그 사물은 강렬하고 낯선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리고



한성희 작 <Image of Form-Rose, 60x50cm, Mezzotim, 2006>

하나의 사물 자체가 가진 일반적인 속성을 환기함과 동시에 전혀 이질적인 속성을 상상하게 한다. 그런 아이러니들을 다시 낫설지 않은 아름다움으로 한 공간에 배치하거나 몇 개의 화면분할로 부딪치게 하는 작업은 사물 그 자체가 가진 이미지를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낸다. 이 그림 <Image of form - Rose> 또한 그런 맥락에 놓인 그림이다. 화면을 가득 메운건 밝고 부드러운 색채로 그려진 꽃과 나무의 잎과 새들의 희미한 형체들이다. 보는 이의 마음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이 형상들과 색채는 화면의 배경과 같은 색으로 도드라진 산과 나무와 연못의 형태 위에 겹쳐져 평면적인 장식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화면의 중앙에 놓인 건 어둡고 강렬한 색채로 그려진 모노톤의 장미 한 송이이다. 잎과 줄기와 꽃이 놓인 공간을 지워버린 채 어둠 속에 떠있는 듯한 단색의 꽃. 지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긴 했으나 정작 그 색채의 명암으로 인하여 이 꽃은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밝고 따뜻한 주변의 형상들을 그저 장식으로 거느린 채 저 홀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꽃. 마치 화석인 듯 제 본래의 색채와 질감을 잃어버린 꽃의 이미지는 낫설고 불길하며 우울한 아름다움을 내뿜는다. 어쩌면 인간이 기억하고 상상하는 화양연화의 본질은 이 그림 속의 형상들처럼 희미한 형체를 가졌거나 비현실적인 꽃의 이미지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생명이 멈출 때까지 시들지도 소멸하지도 않는 딱딱한 기억들을 희석 또는 장식하기 위하여, 그럼으로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기위하여 사람들은 화양연화에 관한 환상들을 저마다 하나씩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두운 장미꽃같은 시간 근처에 화사하게 밝히기 위하여.

연극과 체질

유상훈 · 연극배우



2007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극단 목화의 '로미오와 줄리엣'

연극하는 팔자는 머리 깎고 스님 되는 팔자만 하다고 한다. 왜 스님 되었는지 묻지 않음이 절에서의 불문율이라면 왜 연극하는지 의미 따위는 이제 나에게 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듯 하다. 오히려 연극하며 지나온 시간들이 의미가 되고 연극행위 하는 것이 life style로 정착되어버린 건지 모르겠다. 의미를 곱씹든 뭘 하든 머물기 시작하면 이미 over하고 있거나 침체되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경험을 무대 위에서 뼈저리게 겪어온 우리네 업종이다.

같은 말을 공연이 끝날 때까지 수

백 번 반복하다 보면 말의 본질적 의미의 재현보다 이성과 정서 의지가 불러일으키는 힘의 크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사람인 이상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이유로 하여 매번 똑같은 감정을 드러내기란 불가능하다. 경험이든 상상이든 소리의 크기이든 몸동작의 작은 기억이든 지금 처한 현실적 상태이든 타인의 도움이든 무엇이든 끌어 들여 현재를 획득해야 하는 연기자의 숙명을 겪다보면 아무리 작은 것도 무한한 의미가 부여되고 아무리 큰 이유도 그저 한 개의 이유에 불과해진다. 그러자니 한번 흥이 나면 그 어떤 윤리나 도덕적 의미보다 그 흐름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버리는 체질이 형성되는 듯도 하다. 무대 위에서나 생활 속에서도 저(人性)를 가지고 노는 일이 일인데 더 강한 기억만이 인성을 지배하는 존재의 특성상 무대 위에서 겪는 강한 체험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생활 속에 그 몸에 남아 있을 것이다.

다른 극단들에 객원 출연을 하다보면 집안마다 기풍이 다르듯 극단마다 기풍(氣風)이 틀리다. 혹은 작업 때마다 구성원의 변화로 기풍이 다르다. 쉽게 술로 예를 들자면 한때 난 맥

주는 입에도 대질 않았다.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헌데 어느 작업 이후로 몇 년이고 내내 맥주만 꺼떡 없이 마시고 다녔다. 어떤 작업엔 막걸리만 즐창 마셔댔고, 어떤 작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번도 술좌석을 한 적이 없는가 하면, 어떤 작업은 거의 매일 연습 끝을 술로 장식하던 때도 있었다. 술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예전엔 연습이 끝나면 선배님들 술자리에 감히 빠질 수가 없었다. 허나 이제는 집단적인 술 모임도 드물거니와 연령별로 기호별로 삼삼오오 자리도 나뉘어지는 듯하다. 어느 극단의 공연 뒤풀이엔 소주 두 병으로 끝이 났대나 어쩐대나. 아무튼 어떤 작업엔 쉬지 않고 피워대는 연출부의 줄담배 연기를 감내 해야 했고, 어떤 작업엔 종교집회장소를 연습장으로 쓰다보니 건물 반경 내의 어느 곳에서도 담배연기를 구경할 수가 없었다.

웁고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극대치의 산출(產出)을 위한 저마다의 자구(自求)적인 노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 하긴 사실을 정확하게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머리 쳐박고 한 힘을 모으다 보면 어떤 유형의 창출을 낳게 되는 것이겠지. 세상의 변화도 사실 이와 같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자니 남녀는 눈이 맞아야 바람이 나듯, 일이란 것이 서로 배포가 맞는 이들끼리 모여 거사를 도모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저러한 이유로 혹은 연령층의 쏠림으로 인하여 극단마다의 고유한 기질들이 있는 듯 하다. 어느 선배는 연극을 하다 돌만 모이면 이미 정치적이 되어버리는 권력의 분배에 염증을 느끼고 훌훌 털고 산으로 들어가신 이도 있다. 어쩐던 연극은 모노드라마가 있긴 해도 그 또한 자기가 쓰지 않은 이상 대본이 갖고 있는 문풍(文風)과 스태프진들과 관객의 기운들을 희석 용해해야하는 집단 창작의 여정을 피할 수는 없다.

요즘 혈액형별 인간형을 재미로 구분해보듯 한때 사상 체질별로 자신을 구분 지어보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웬걸 난 모든 체질에 조금씩 다 걸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컨대 연극작업이라는 것이 작가와 연출, 배역들과의 기운들이 한바탕 섞여 가는 여정이라 체질 또한 그러한 후천적 시간의 축적이 선천적인 것에만 머물게 하진 않게 하는 모양이다.

이렇듯 제아무리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한들 인생 통 털어 3할 치면 대타자로 기록되는 야구선수처럼 연극인도 배역과 연출, 어떤 관객, 그리고 그 순간의 타이밍을 감안하자면 표현이 결코 전부의 자기 것이 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부를 내걸어 최선의 방책을 다만 지향할 뿐인 한계성을 늘 동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삼 개월 연습장과 공연장을 쫓다 보니 봄 꽃이 언제 피었다 벌써 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한때 흥으로 표현의 바다를 들이마실 듯한 기세로 덤벼들던 기억도 있고 예지(銳智)와 유희(遊戱)로 한없이 현상을 비틀고 싶을 때도 있었던 듯하다. 지금 또 리얼리티의 재현보다 더 큰 형식미가 어디 있으며 개개인의 실제 삶은 그 어떤 드라마 보다 드라마틱하다고 중얼거려본다. 변함없이 이 땅에 계절이 가고 오듯 한 개인사에도 시절인연이 가고 다시 오기도 하는 것 같다. 사람이라는 것이 산세 지세 지수화풍 유전형질 시대풍토 온갖 것들의 영향을 주고받겠지만 지금여기 살아있는 자들의 발심(發心)만한 크기의 힘이 어디 있겠는가. 공연도 끝난 뒤의 이 시간, 자정(自淨)의 능력을 키워주는 고요한 내부의 자기이유에 귀 좀 기울여 보자꾸나.

바다와 빛, 예술작품이 어우러지는 광안리 야외미술관 바다·빛 미술관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광안리 바닷가가 바다와 빛, 예술작품이 어우러지는 야외미술관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지난 4월 5일 준공식을 가진 '바다·빛 미술관'. 광안대교와 오륙도가 바라다보이는 광안리해수욕장을 전시장으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故 백남준을 비롯한 거장 6인의 설치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바다·빛 미술관'은 빛과 영상이 어우러지는 조명, 영상예술작품들이 광안리 밤바다를 아름답게 수놓으면서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 예술적 향기를 더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준비해온 '바다·빛 미술관'은 프랑스 유력 일간지 리베라시옹 수석기자이자 프랑스 문화성 미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현대미술평론가 앙리-프랑수아 드바이유가 총예술감독

을 맡아 작가선정부터 개관까지 전 과정을 진행해왔다. '바다·빛 미술관'에 참가한 작가는 비디오 아트와 창시자 故 백남준씨를 비롯 심문섭(한국), 제니 홀처(미국), 장 피에르 레노, 샤를 드모, 얀 카슬레(프랑스) 등으로, 지난 2005년 11월 국제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붉은 원기둥에서 빛을 투사하는 장 피에르 레노의 '생명의 원천'. 지금까지 제작된 작가의 화분 중 가장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광안리 해변 가장 중심에 위치한 백남준의 유작 '디지털 테이션(Digitation)'은 청자 촛대 위에 모니터 5대를 설치, 등대와 같은 이미지를 연출한 작품이다. 400년전 광안리 바다를 수놓았던 진두어화(津頭漁火)의 햇불처럼 부산시의 번영과 바다·빛 미술관의 발전을 염원하며 모든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등대역할을 한다.



4월 5일 준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미술관 개원을 알렸던 '바다·빛 미술관'은 낮에는 자연의 조명 햇살 아래 자리잡은 거장들의 작품을, 밤에는 네온사인의 물결이 넘실대는 인근 야경과 어우러진 멋진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인故 백남준을 비롯한 거장 6인의 설치작품이 전시되어있는 '바다·빛 미술관' (사진은 광안리해변 가장 중심에 위치한故 백남준의 유작 '디지털레이션')

자연과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작품의 무대로 삼은 심문섭의 '섬으로 가는 길'은 수중모터로 뿔어올린 바닷물길에 레이저를 쏘아 갈매기와 해엄치는 소년, 동백꽃 등 부산을 상징하는 영상을 역동적으로 재현한다. 제니 홀처의 '빛의 메시지-부산을 위하여'는 수영구문화센터 옥상에서 빔 프로젝트를 이용, 삶과 사회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을 담은 빛의 메시지를 백사장으로 전사한다.

영화 예고편의 형식을 차용한 샤를 드모의 '영상 인터랙티브'는 '당신은 미래의 우주 비행사', '죽음 또는 명예', '외계인의 지성은 지구로부터' 등 3편의 존재하지 않는 영화예고편을 대형스크린을 통해 반복 상영한다. 빛의 조각가 얀 카슬레의 '은하수 바다'는 광안리 해변 테마거리 화분에 설치된 1,600개의 조명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파도가 일으키는 물보라를 의미하는 조명들은 파도와 육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물보라처럼 백사장과 아스팔트,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표현하고 있다.

붉은 동백꽃을 연상시키는 화분 모양의 작품으로 유명한 장 피에르 레노의 '생명의 원천'은 중국 자금성, 베를린 포트담광장, 프랑스 파리 풍피두센터 등 지금까지 제작된 작가의 화분 중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작품으로, 붉은 원기둥에서 빛을 투사한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야외의 열린공간에 전시된 만큼 수억원이 넘는 작품들의 도난과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품마다 CCTV를 설치하고 경비업체를 통해 순찰을 도는 것은 기본이고 가장 고가인 백남준씨의 유작 '디지털레이션'은 방탄유리와 향온, 항습장치까지 설치해 영구보존에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시연회에 이어 4월 5일 준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미술관 개원을 알렸던 '바다·빛 미술관'은 낮에는 자연의 조명 햇살 아래 자리잡은 거장들의 작품을, 밤에는 네온사인의 물결이 넘실대는 인근 야경과 어우러진 멋진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첨단예술이 어우러져 해수욕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바다·빛 미술관'은 광안대교와 부산바다축제, 국내 최대 규모의 부산불꽃축제에 이어 부산의 랜드마크로 알려 세계적 명소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음악으로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부산·경남지부



2003년 8월 온라인 카페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부산·경남지부(이하 베누스토)는 현재 회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메말라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음악이 좋아 만난 사람들 (사)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부산·경남지부 회원들은 그 음악적 열정 속에 이웃사랑이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앙상블을 빚어내고 있다.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는 지난 1999년 서울에서 먼저 결성되었다. 지난 2004년 4월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부산·경남지부 결성에는 1대 단장이었던 김문덕씨의 역할이 컸다. 서

울 회원으로 활동하던 김문덕씨가 직장을 부산으로 옮기면서 부산·경남지부의 싹을 틔웠다. 공식적인 결성에 앞서 2003년 8월 온라인 카페를 통해 활동을 시작한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부산·경남지부(이하 베누스토)는 현재 회원 9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거쳐간 회원도 500여명이 넘는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이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친 베누스토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직접 무대에 서는 정단원과 악기교습을 받는 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단원은 매주 목요일 정기모임을 통해 화음을 맞추며, 준단원은 요일에 따라 전공자로부터 직접 악기교습을 받고 있다. 베누스토 단원들의 열정은 80%가 넘는 정기모임 출석율에서도 알 수 있다. 부산·경남지부인 만큼 부산 뿐 아니라 진주, 진해, 울산 등 경남지역에서 찾아오는 회원도 10여명이 넘는다.

창단부터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온 지휘자 손명균씨. 독일 뒤셀도르프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양산시립관악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명균 지휘자는

“실력면에서는 전공자들로 구성된 프로 연주단체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며 “완성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음악을 통해 하나되는 모습은 지휘자로서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고 한다.

지인의 권유로 베누스토에 가입했다가 현재 단장을 맡고 있는 박경정씨는 50세를 넘긴 늦은 나이에 첼로의 활을 잡았다. 올해 77세라는 연세가 무색하게 지금도 연습에 참여하고 무대에 서는 박경정 단장에게 음악은 삶의 활기를 찾게 하는 소중한 원동력이다.

5년전부터 트럼펫을 연주해온 장호강씨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베누스토와 인연을 맺었다. 베누스토에서 홍보부장을 맡고있는 그는 “베누스토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단원들의 열정 외에도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며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하는 등 앞으로 오케스트라의 외적 성장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재정적 혹은 내부적인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과의 연대를 고민하고 있는 박강우 사무국장.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박강우 사무국장은 “자신의 실력에 대한 의구심에 쉽사리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며 기초과정을 마친 아마추어 연주자라면 베누스토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다고 하며 음악의 열정을 지닌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다.

2004년 7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이후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갖고 있는 베누스토는 6월 2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제 6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어렵게만 생각하는 클래식의 닫힌 틀을 깨고 관객과 소통하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그동안 클래식 뿐 아니라 영화음악, 재즈, 팝, 대중가요 등 장르를 초월한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해온 베누스토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도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클래식곡과 영화음악 등으로 관객과 하나되는 연주회를 선보일 예정이다.

음악을 통한 자아실현 외에도 베누스토가 중요시하는 것은 음악을 통한 사랑나눔. 그동안 음악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가져온 베누스토는 올해부터는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사랑이 필요한 곳을 적극 찾아나설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로 예정된 정기연주회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결식아동이 나 심장병 어린이 등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통해 따뜻한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문의/(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부산·경남지부(cafe.daum.net/venusto3)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이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친 베누스토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직접 무대에 서는 정단원과 악기교습을 받는 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가져온 베누스토는 올해부터는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 사랑이 필요한 곳을 적극 찾아나설 계획이다.

첫 장편영화 '도다리' 로 부산영화계에 기운 불어넣는 박준범 감독



생애 첫 장편 영화 '도다리' 촬영을 마친 박준범 감독. 8월 개봉을 계획으로 후반 작업이 한창이다.

부산의 젊은 영화감독이 생애 첫 장편 영화를 찍었다는 소식을 듣고 후반 작업이 한창인 센텀벤처타운 작업실을 찾았다.

부산에서 영화, 특히 장편 영화를 찍는다는 것은 크나큰 모험이다.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6편의 단편영화로 내공을 다진 박준범 감독(27). 열악한 지역 영화관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 그는 요즘 첫 장편영화 '도다리' 촬영을 끝내고 편집 작업을 하고 있다.

“총무로의 거대 영화사도 아닌 부산의 작은 영화사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부산의 어려운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이 촬영장에서 많이 격려 해주시고 촬영장에서 흔쾌히 캐스팅에 응해주시기도 했어요.”

도다리는 2월 5일부터 촬영을 시작해 3월 15일 새벽 촬영을 마쳤다. 보통의 영화가 3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촬영을 하지만 도다리는 촬영일정을 짧게 잡고 강행군을 했다. 촬영장비 대여와 작업 인력동원에 모두 돈이 들다 보니 크랭크인을 앞두고 세밀하게 촬영

영계획을 세우고 촬영에 들어가야 한다.

'도다리'는 결코 무능하지 않으면서도 취직을 못한 20대 중후반 상연, 우석, 청국 세 청년의 성장드라마이다. '도다리'는 배우부터 스탭까지 모두 부산사람이다. 상연 역에 박상연, 우석 역에 김우석, 청국 역에 김준영이 열연했다. 촬영장에는 보통 25~30명이 작업한다. '도다리를' 위해 영화사 러프컷을 오픈하기도 한 박준범 감독은 시나리오에서부터 제작, 감독까지 1인 3역을 맡았다. 기장 어시장, 해운대, 초읍, 부두, 송도 등 부산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편집 작업은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편집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 김솔이 흔쾌히 부산으로 내려와 도와주고 있다.

'도다리'는 박감독이 처음 대학 졸업 작품으로 구상한 작품이다. 시놉시스를 써놓고 보니 단편으로는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묻어 두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도전했다. 다행히 부산영상위원회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되어서 제작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 촬영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지원작으로 선정되지 않았

다면 아마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다.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제작자인 박감독의 몫이다.

한쪽으로 치우진 눈과 뼈, 삐뚤어진 입을 가진 독특한 외형으로 비정상적인 물고기 취급을 받는 도다리는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박준범 감독은 도다리의 특성처럼 현재 무능한 사회적 존재로 전락해버린 청년들의 모습을 영화에 담으면서 부산영화계의 현실을 절실히 느꼈다.

사실 '도다리'는 촬영이 끝났다 해도 안심할 수 없다. 편집과 사운드 작업 등 후반작업이 끝나도 부산에서 독립영화가 상영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독립영화의 경우 일반 상영이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보통 영화제 문을 두드린다. 박감독도 국내외 영화제에 '도다리'를 출품할 계획으로 작업 일정을 맞추고 있다.

“8월쯤이면 상영여부가 결정 나겠지요. 힘들게, 어렵게 만든 작품이 세상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묻혀버린다면 정말 힘 빠지는 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왕가위 감독의 영화에 매료되어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한 박준범 감독은 단편 시절부터 부산영화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역 영화인들이 큰 세상을 찾아 서울로 떠나는 판에 부산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무모하게 보이겠지만 부산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찌감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스물일곱이라는 그의 나이가 너무 부끄럽다.

“도다리 한편으로 부산 영화가 활성화 될 수는 없겠지요. 포기하지 않고 대중과 소통하면서 개성을 잃지 않는 부산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 총각 참 별나데이” 라는 영화 속 시장 아주머니의 말에 힘든 부산영화 판에서 뛰고 있는 영화인들을 위해 청국의 입을 빌어 외친다.

“다 아들들이라 생각하고 인심 좀 쓰면 안 됩니까?”

무엇보다 부산영화에 대한 관심이 큰 힘이 된다는 박준범 감독. 인심이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도다리'는 박준범 감독과 세상 속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도다리는 결코 무능하지 않으면서도 취직을 못한 20대 중후반 상연, 정표, 청국 세 청년의 성장드라마.



영화 편집에 몰두하고 있는 박준범 감독과 김솔 편집기사.

2007 부산연극제 연출상 수상한 극단 시나위 연출가 오정국



“작품에 참여한 모든 단원들에게 돌아갈 상을 저 혼자 차지한 거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수상의 영광은 저와 함께 한 단원들의 몫입니다.”

4월 16일 막을 내린 제 27회 부산연극제에서 연출상을 수상한 극단 시나위 연출가 오정국씨(41세). 2004년 ‘인류 최초의 키스’, 2005년 ‘B.C 2430’으로 대상인 최우수작품상과 연출상을 연거푸 수상한데 이어 올해 ‘얼굴없는 피카소’로 부산연극제에서만 3번째 연출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극단 바문사 ‘PLAY5’의 조명을 맡아 무대기술상까지 수상한 경력을 치면 4년 연속 시상식 무대에 오른 셈이다. 연출자로서 경력이 5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산연극제가 그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름을 알 수 있다.

연출상 외에도 남녀신인연기상을 수상한 연출작 ‘얼굴없는 피카소’는 정신병원을 무대로, 한 인간의 욕망이 불러일으킨 비인륜적 실험을 고발하는 내면 심리극이다. 전작들이 모두 그렇듯이 진지한 주제의 작품에 끌린다는 그는 연출자로서 무거운 내용을 어떻게 가볍게 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오정국씨가 작품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배우들간의 유대감이다.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배우들의 자연스런 연기양상들이 빛어진다고 믿고 있다.

1989년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오정국씨가 연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우연히 극단 현장의 단원모집 광고를 보면서 부터이다. 그 길로 극단 현장에 입단, 연기를 시작한 그는 오랜 기간 극단 현장 단원으로 활동했다. 연기자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극단 현장 시절 무대에 섰던 연극 ‘하늘로 간 고래’ ‘자갈치’ 등을 떠올리곤 한다. 현장 단원으로 같이 활동했던 조일영, 오계영, 하현관, 김윤석씨와는 함께 ‘동그라미 그리기’를 창단하기도 했다.

1996년 극단 시나위 창단멤버로 연기활동을 계속하던 오정국씨는 2002년 연극 ‘펠리컨’의 연출을 맡아 연출자로 첫 이름을 올린 후 2003년부터 부산연극제에 매년 신작을 선보여왔다. 부산연극제가 끝난 후 잠시 여유를 찾은 오정국씨는 부산시립무용단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 날’ 연출을 맡아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올 하반기에는 내년 1월 열린소극장 무대에 올려질 극단 시나위의 새로운 작품의 연출을 맡아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5월 축제속으로 떠나자!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축제가 올해로 조선통신사 파견 4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로 펼쳐진다.

따뜻한 봄날, 가족나들이 하기좋은 계절 5월을 맞아 부산 곳곳에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펼쳐진다.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축제

5월 축제의 첫 주자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축제'. 지난 17세기 이후 한·일간 문화교류의 첨병이었던 조선통신사의 선린우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축제'는 특

히 올해 조선통신사 파견 40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용두산공원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대장금' 속 문화를 체험하는 대장금 의상체험전과 대장금 음식만들기 체험행사가 열린다. 4일 오후 7시 동구 영가대 앞 조선통신사 광장에서는 일본으로 떠나는 조선통신사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해신제가 재현된다.

5일에는 오후 3시부터 한·일 양국 참가자 2,000여명이 참가하는 조선통신사 평화의 행렬이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렬에는 통신사를 맞이하는 동래부사 행렬과 조선통신사 행렬, 부산의 축제와 문화재 행렬 외에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표적인 축제행렬이 가세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어 저녁 7시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는 일본으로 떠날 조선통신사 일행을 위해 동래부사가 마련했던 전별연이 재현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역사속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듯.

■문의: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816-3371~2, www.tongsinsa.com)

2007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5월 2일부터 6일까지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직페스티벌인 2007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국내 최고의 인기마술사 이은결을 비롯 '마술사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FISM(국제마술협회) 2003년도 우승자 Norbert Ferre(프랑스), 2003년도 FISM 클로즈업부문 1위 Jason Latimer(미국), 재일동포 마술사 유지 야스다(한국명 안성우) 등 15개국 30여명의 마술사들이 출연, 최고의 마술축제를 선사한다.

'마술의 대중화'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마술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전 세계 유명 매지션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직페스티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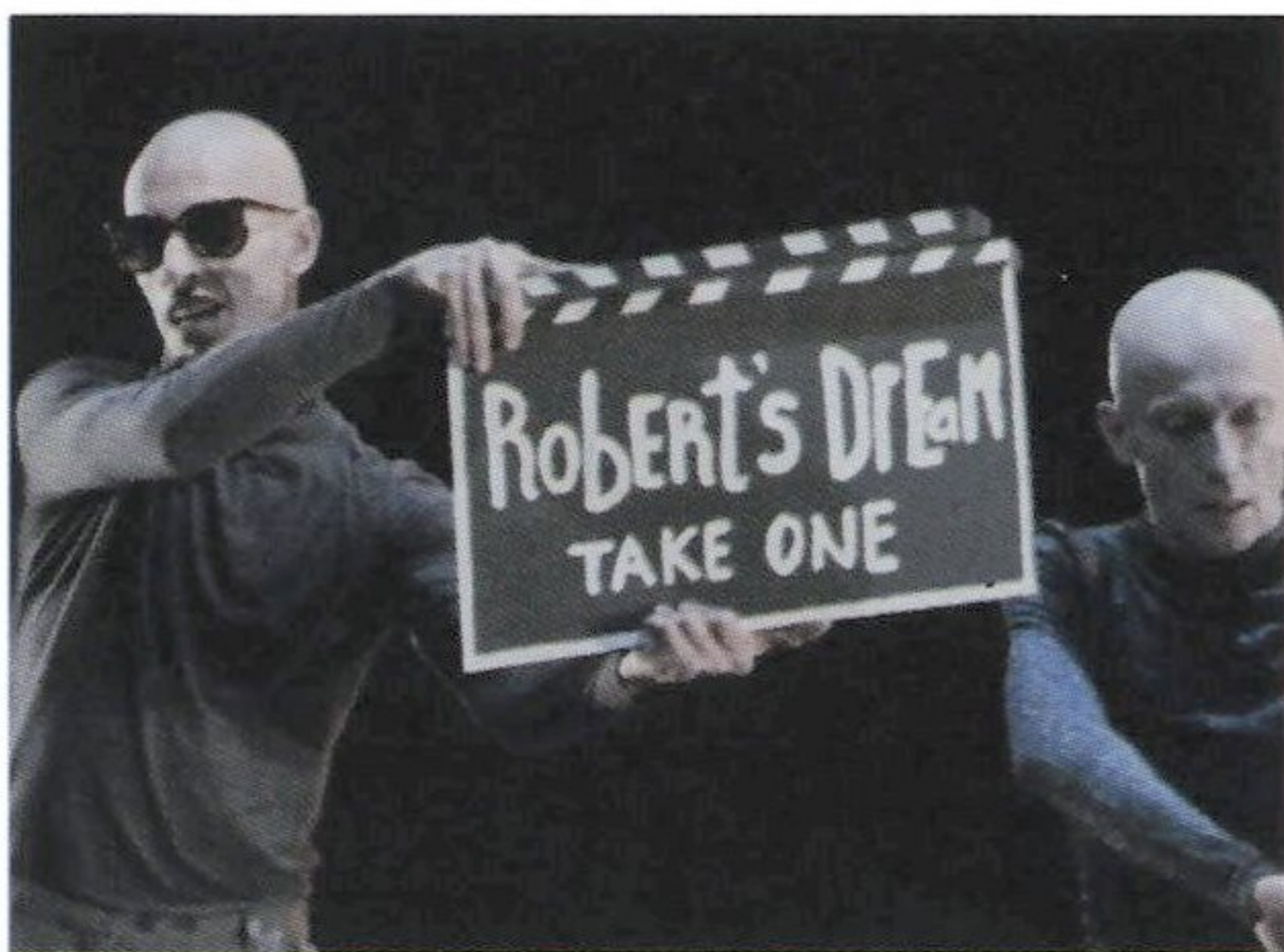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이번 2007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세계 최고의 마술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환상적인 매직콘서트 '매직갈라쇼'를 비롯 미화 1만불의 상금을 걸고 열리는 아마추어 마술사들의 뜨거운 경연장 '마술경기대회', 세계 최정상 매지션들의 공연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클로즈업 공연', 마술과 함께 펼쳐지는 신기한 가족마술극 '매직도깨비', 명인 매지션의 최고 마술비법을 배울 수 있는 '명인마술 강연', 신기한 마술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매직테마파크' 등 마술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 문의: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628-0935, www.hibimf.com)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5월 2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축제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한민국 축제박람회가 펼쳐진다. 부산국제영화제, 자갈치문화관광축제, 광안리 어방축제 등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를 비롯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70여개의 축제와 일본, 중국 지역의 축제들도 참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문의: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조직위원회(740-3471~5, www.fk.or.kr)



봄 부산을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2007 부산국제연극제.(사진은 폐막작으로 선정된 극단 데레보의 '로보츠 드림')

2007 부산국제연극제

5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봄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2007 부산국제연극제가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시민회관, 경성대학교, 너른소극장, 액터스소극장 등 부산 시내 9개 극장에서 펼쳐진다.

한국을 비롯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8개국 18개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 2007 부산국제연극제는 '세계명작 뒤집기'란 주제로, 명작희곡을 패러디하고 리메이크한 작품들을 통해 원작이 지닌 작품 고유의 힘과 연출가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된 작품들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개막작으로는 지난해 런던 바비칸센터에서 공연, 전회 매진을 기록한 한국을 대표하는 연출가 오태석의 화려한 한국식 셰익스피어, 극단 목화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선정됐다. 오태석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500년 전 셰익스피어의 감동을 현대적으로 재구성, 언어의 음악성과 시적 우아함을 보여준다. 폐막작으로는 독일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극단 데레보(Theatre DEREVO)의 '로버츠 드림(Robert's Dream)'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인다. '로버츠 드림'은 1960년대 후반 '핑크 플로이드'와 함께 영국 사이키델릭 음악계의 판도를 바꾼 '로버트 와이어프'를 모티브로 하여 신체적 언어로 표현한 작품이다.

올해는 참가작 모두 거리 쇼케이스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 시민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고 참여하는 10분 연극제, 연출가 메소드 워크샵, BIPAF 사랑방 등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참여행사가 함께 열린다.

부산국제연극제의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축제기간 동안 5개의 작품을 저렴하게 볼 수 있는 '5 Free Ticket'과 4인가족을 위한 '우리가족티켓', 공연 당일 2시간 전 한정수량으로 50% 할인 판매되는 'Time 티켓' 등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상품을 이용해보자.

■문의: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2744, www.pibaf.com)

랑데부 드 부산 2007

5월 27일까지 열리는 '랑데부 드 부산 2007'은 프랑스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이다. 올해는 피아노 트리오 방데레 초청콘서트(5월 1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을 비롯 부산국제연극제 초청 팀인 서커스 바로크의 웃음과 감동을 자아내는 연극 '인생은 아름다워' (5월 12일-14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프랑스영화제(5월 12일-17일 시네마테크 부산), 프랑스 도서축제(5월 1일-27일 교보문고 부산점), 프랑스 치즈의 밤(5월 24일 부산프랑스문화원)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문의: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2007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경성대학교에서는 영화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있는 단편영화 축제 2007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가 열린다.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는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제작된 다양하고 새로운 단편영화들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재능 있는 감독들의 지속적인 차기작 제작 지원을 통해 아시아단편영화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관객들과 호흡하는 활발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난 4월 1일자로 마감된 이번 영화제의 출품작은 벨기에, 브라질,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일본 등 해외 14개국 80여편을 포함한 총 600여편으로 집계됐다.

■문의: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사무국(742-9600, www.basff.org)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2007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금정산에서 펼쳐지는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2007'은 금정산 살림 대동 장승굿을 비롯 금정산 생명살림의 몸짓을 한국춤, 창작춤, 힙합 등으로 구성한 생명춤관, 개발과 파괴의 세력으로부터 금정산을 보호하자는 창작마당극 '날아라 금어야' (5월 20일 금정산성 동문)와 범어사에서 출발, 금정산성 북문을 거쳐 동문까지 걷는 야간산행 '달빛걷기' (26일 범어사)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생태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문의:금정산생명문화축전 추진위원회
(807-0490 ~ 1, www.sangood.org)



문화예술이 결합된 시민문화축제로 자리잡은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2007(사진은 축제 최고 인기프로그램인 '달빛걷기' 행사)

소품(小品, piece)의 세계 7 '소품의 종류'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리스트 교향시 '파우스트 (Faust)' 를 담은 음반

탄식곡(lament) 탄식곡의 유래는 죽은 사람에 대한 추억이나 애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슬픈 곡조의 소품을 쓴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라벨이 프랑스의 대작곡가 쿠프랭을 추억하기 위해서 쓴 '쿠프랭의 무덤'이 좋은 예가 된다. 이탈리아에서는 14세기 이래로 위대한 작곡자가 운명했을 때 탄식의 음악을 쓰는 것이 일종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다. 그러한 탄식음악에는 비가(Elegy), 무덤(Tombeau), 프랑트(Plainte), 아포테오스(Apotheos) 등의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와서 탄식곡은 특정인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단순한 소품, 즉 애상적인 감성이 표현되는 작품에도 '비가(悲歌)' 등의 표제를 붙였다. 포레(Faure)의 '비가'는 이러한 예에 속한다.

연습곡(Etude) 이 역시 19세기의 음악적 산물의 하나다. 피아노 기교를 숙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연습곡이 작곡되기 시작했지만, 단순한 교칙본(敎則本)의 범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예술성이 부가되어 있는 작품들도 수없이 만들어졌다. 쇼팽의 '연습곡'이나 리스트의 '연주회를 위한 초절기교 연습곡' 등이 이에 속한다.

표제음악(Programm Music) 음악외적인 요소가 작곡의 동기를 제공하고, 그 요소의 의미를 상징하는 표제가 붙는 소품들이 로맨틱 시대에 큰 유행을 보게 된다. 드뷔시의 '가라앉은 교회'는 갑자기 몰아닥친 해일로 바다 속에 잠긴 전설의 교회를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고, 윌리엄 버드의 '종(The Bell)'은 아름다운 종소리가 주제이다. 라모의 '암탕', 슈만의 '저녁' 등도 역시 표제음악에 속한다.

교향시(Symphonic Poem) 리스트(F.Liszt)에 의해서 창시된 교향시는 묘사적인 표제가 붙은 단일 악장 형태의 관현악 작품이다. 리스트는 1854년에 '타소(Tasso)'라는 작품을 서곡으로 작곡했는데, 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서곡이라는 말 대신에 '교향시'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교향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리스트는 "음악의 참 모습은 표제적인 요소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음악을 통해서 묘사적인 표제와 문학 작품의 구체적인 상(像)을 표현하려 했다. 이를테면 시의 내적인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 음악적인 수단으로 시를 작곡함으로써 음악 자체가 시가 되도록 하는 작업이 교향시곡의 작곡이 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독일의 레베(Loewe, 1796~1869)는 1830년에 '마제파'를 '음시(音詩, Tone Poem)'라고 불렀는데, 교향시와 음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표제가 달린 관현악곡은 이미 바로크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에 의해서도 많이 작곡되었다. 크네히트의 '음악에 의한 자연의 묘사'(1784년작)와 디터스돌프(Dittersdorf, 1739~1799)의 '오비드의 메타모르포제에 의한 12곡의 교향곡'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0회 정기연주회

부산 MBC 창사 48주년 기념 '그레이트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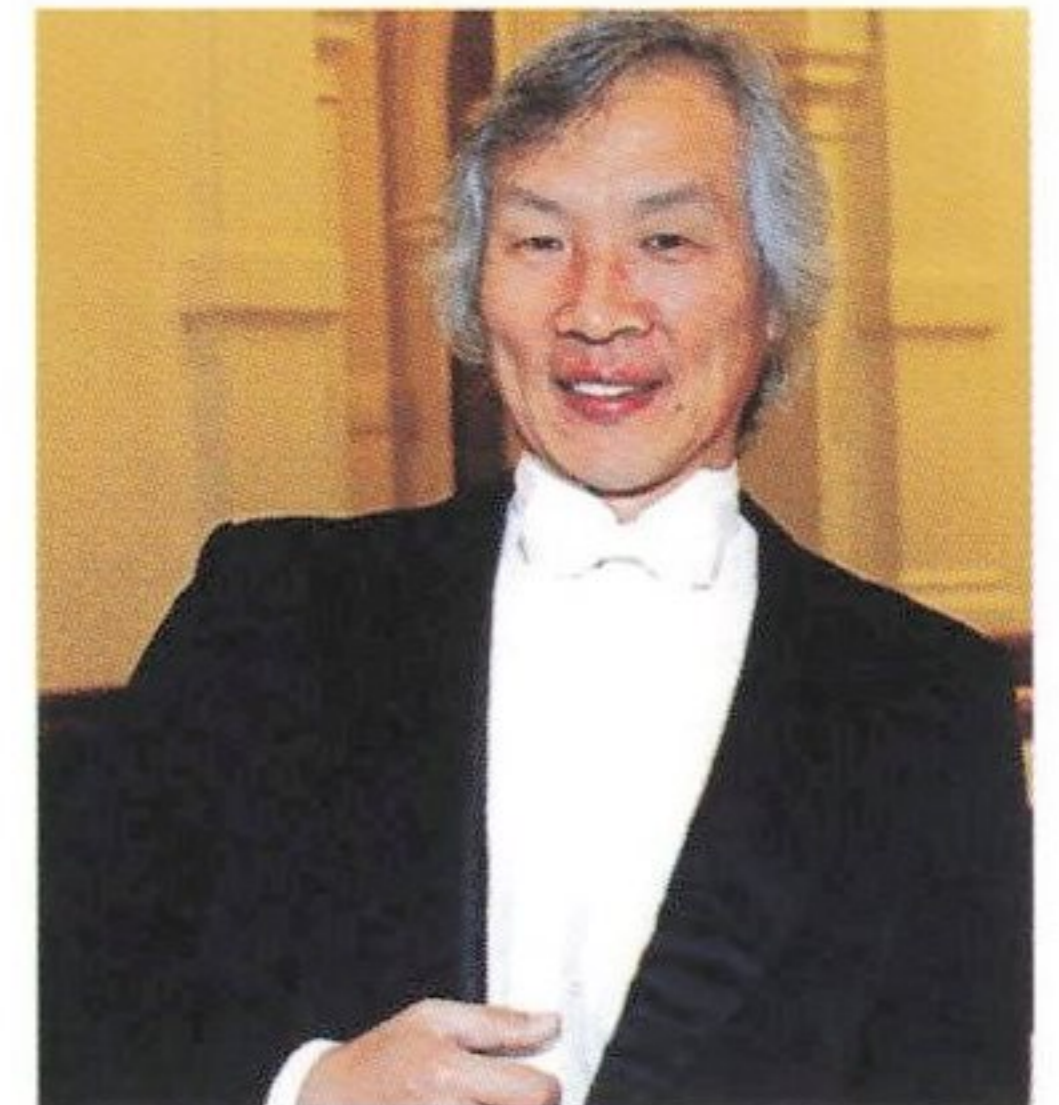
5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지휘자 곽승과 피아니스트 한동일과 함께 제 430회 정기연주회 '그레이트 콘서트'를 갖는다.

부산 MBC 창사 48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는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 거장들과의 만남으로 어느 연주회 보다 관심이 높다. 협연자 한동일은 한국의 음악신동 1호이자 세계로 진출한 해외진출 음악가 1세대이다. 줄리어드음대를 거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리벤트리트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었던 그는 첼로의 거장 파블로 카잘스로부터 '보기 드문 재능을 지녔다'는 찬사를 들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연주자 및 교육자로서 활동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등 27개국에서 활발한 순회 연주를 가진 한동일은 케네디 대통령 재직시 백악관에 초청되어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와 드뷔시의 '물에 비치는 그림자'를 연주하기도 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한국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모란장)을 수여받았다. 2004년 6월 1일 그의 도미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베토벤 협주곡의 밤에서는 그의 부친이며 서울시립교향악단 창단멤버(팀파니스트)인 92세의 한인항 선생과 함께 베토벤 협주곡 5번(황제)을 연주하여 모든 관객들에게 감동을 준 바 있다. 한동일은 현재 울산대학교 교수, 일본 히로시마 엘리자베스 대학의 석좌교수로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에 시작한 타이랜드의 창마이 음악페스티벌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 한동일은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내림나장조 작품 83을 들려준다. 이 곡은 일반적인 협주곡 형식과는 달리, 스케르초 풍의 제2악장을 덧붙여 4악장의 교향곡적 형식을 취하고 있어 '피아노로 연주하는 교향곡' 또는 '피아노를 위한 교향곡'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2부에서는 슈베르트가 생전에 완성한 유일한 교향곡인 '그레이트'를 오랜만에 연주한다. 1시간이 넘는 대곡이지만, 슈베르트가 그문덴과 가스타인에서 만사를 잊고 행복한 가운데 몰두한 작품인 만큼 슈베르트 특유의 풍부한 낭만성과 섬세한 감성 표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슈베르트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전기 작가인 요제프 폰 슈파운은 이 곡에 대해 '슈베르트가 너무나 애착을 보였던 작품이며,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이라 쓰고 있다.



곽승



한동일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정기회원은 회원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5월 18일 금요일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난새



이성주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일보사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가 5월 1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무대 위에서 행복을 전하는 지휘자 금난새의 지휘와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가 협연자로 부산시민들과 오랜만에 만난다.

이성주는 뉴욕 비에냐프스키 콩쿠르(1위),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 워싱턴 국제 콩쿠르, 뉴욕의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나움버그 국제 콩쿠르 등에 입상함으로써 한국인의 뛰어난 음악성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 1977년에는 음악전문지 뮤지컬 아메리카가 선정한 미국 최우수 젊은 연주자로 지명되기도 했다.

이화여중 재학 중 도미하여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한 이성주는 고교시절 뉴욕시 고등학교 학생대표로 린지이 뉴욕시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주빌리상’을 받았으며 줄리어드 음악대학교 졸업시 프리츠 크라이슬러 펠로우십을 획득하여 줄리어드 음대 연주학 박사과정을 장학생으로 공부하였다. 1994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초청으로 귀국하여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이성주는 1997년 한국의 떠오르는 별로 자리 잡은 젊은 현악 앙상블 ‘조이 오브 스트링스’를 창단하여 음악감독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2월 웰빙 콘서트에서 부산대학교 김영희 교수가 비발디 ‘사계’ 중 ‘봄’을 협연한데 이어 이성주 교수가 비발디 ‘사계’ 중 ‘여름’을 들려준다. 여름은 폭염을 권태롭게 묘사하면서 시작되어 격렬한 폭풍으로 이어진다. 무서운 번개와 천둥소리가 들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 농작물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스듬히 퍼붓는 하행 패시지와 현악 합주의 트레몰로 강주로 묘사된다.

그 외 우리 귀에 익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교향곡 제9번 마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를 들으며 한가로운 오전 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

■ 입장료 :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30% 할인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해주시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과 함께 하는

2007 부산시립합창단의 7080 그 세 번째 이야기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25일-2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7080 세대들을 위해 부산시립합창단에서 마련하는 7080 그 세 번째 이야기가 5월 25일과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2005년 특별공연으로 기획되어 중장년 청중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7080 콘서트는 청소년 중심의 문화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문화코드이다. 부산시립합창단 7080 콘서트는 7080세대들이 즐겨 부른 추억의 가요, 팝들을 수준 높은 합창 음악으로 편곡해 청중들과 함께 공감하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는 편안한 무대로 인기가 높다.

올해도 김강규 지휘자의 지휘, 해설로 부산시립합창단 최석태가 편곡한 14곡의 7080 레퍼토리를 선곡,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던 아스라한 기억 속으로 추억여행을 떠난다. 이번에 선곡된 곡들은 꽃동네 새동네, 여고시절/여고졸업반, 밤배,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행복한 사람 등 7080 세대들에게 사랑받았던 귀에 익은 곡들이다.

이번 무대를 위해 특별히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이 7080세대들을 위해 부산무대를 찾는다. 안치환은 그의 히트곡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만일' '공야에서' 로 7080 세 번째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김강규



안치환

프로그램

오프닝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아직 마음은 10대 - 꽃동네 새동네 - 여고시절/여고졸업반(워어서 한곡으로)

이루지 못한 사랑의 꽃 노래 - 달맞이 꽃(이용복) - 못다 핀 꽃 한 송이(김수철)

풍경이 있는 노래 - 민들레 훌씨 되어(박미경) -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예민)

함께 부르는 노래 - 밤배 -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행복하게 만드는 노래 - 행복한 사람(이문세)- 행복을 주는 사람(해바라기)

[휴식-Pause] 추억의 CM송과 함께

식지 않는 노래 - 향수(김희갑) - 한계령(양희은) - 큐(조용필) 등

■ 입장료 : 1층 20,000원 · 2층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30% 할인됩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극단 제 29회 정기공연

칼맨

5월 29일-6월 2일 화-토요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곽종필



B-boy 댄스그룹 B.B.D



부산시립극단 단원들

2007 부산국제연극제에 '수전노'를 초청받아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부산시립극단이 부산국제연극제 공연에 이어 대학로 화제의 연극 '칼맨'으로 부산연극애호가들과 만난다.

'느낌, 극락같은' (1999), '이(邇)' (2002)로 전국연극제에서 두차례 대상을 수상한 부산을 대표하는 연출가 중 한사람인 곽종필이 부산시립극단의 객원 연출을 맡아 극단 단원들과 화제작 '칼맨'을 선보인다.

칼맨은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땅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 등 서민극에서 탄탄한 자리를 잡은 인기작가 김태수의 작품이다. 2001년 극단 배우세상이 초연해 그해 관객이 뽑은 베스트 10에 선정되기도 한 이 작품은 칼에 관한 한 도의 경지에 이른 정육점 주인 우두철과 자폐증에 걸린 그의 딸 영애, 과거를 감추고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과격한 사내 병태, 절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부도난 주방용품 사업자 춘삼, 불운한 뮤지컬 지망생 도미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나가 가슴속에 품고 있을 칼에 대해 작가 김태수 특유의 재치로 경쾌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오페라 카르멘과 동음인 이번 연극 <칼맨>은 실제 우리 생활에 있어서 늘 접하게 되는 칼을 소재로 하여,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반목과 용서, 화합, 사랑 등을 칼과 연결하여 교차적으로 엮은, 이른바 '칼을 든 사람들'이란 의미를 지닌 이야기이다. 작가 김태수는 결국 사람들이 내면에 품고 있는 칼은 자기의 정신과 마음을 향해 날이 세워져 있어야 하며, 남을 향해 날이 서 있는 한 끝없는 반목과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돈희가 정육점 주인 우두철로, 이혁우가 세들어 사는 청년 마병태, 김은희가 뮤지컬 여배우 하도미, 염지선이 우두철의 딸 우영애, 황창기가 트럭에 주방용품을 싣고 세일을 하는 공춘삼으로 열연하고 B-boy 댄스그룹 B.B.D가 특별출연한다.

■ 입장료 : 균일 10,000원 · 청소년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극단(607-6136)

부산시립무용단 제 56회 정기공연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 날’

5월 31일 목요일-6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우리 춤의 전승, 보급에 열정을 쏟아온 부산시립무용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1일과 6월 1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 날’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한국적인 멋과 해학이 담긴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춤극으로 재구성한 ‘이쁜이 시집가는 날’은 ‘맹진사댁 경사’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중 청춘남녀의 애뜻한 사랑의 풍경을 중심축으로 만들어낸 춤극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관객의 특별한 상상력을 요구하는 이미지 위주의 창작 무용이 아니라 누구나 잘 아는 희곡 ‘맹진사댁 경사’(오영진 원작)의 이야기를 춤으로 담아낸 만큼 관객과의 공감대를 보다 쉽게 형성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이번 무대를 위해 공연에 앞서 처음으로 쇼케이스 무대를 만들어 3회에 걸쳐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 날’의 하이라이트를 공연하고 주역 무용수와의 만남을 갖는다.



홍기태

수석안무자 홍기태 안무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하현관이 각색하고 극단 시나위 대표 오정국이 연출을 맡는다. 각색, 대본을 맡은 하현관은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고 무용 대본으로 다시 각색을 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나열하기 보다는, 무용수들의 몸짓과 장면의 이미지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원작의 2막 5장을 3막 8장으로 나누었다. 특히 간결하고 선명한 흐름이 소담한 사랑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각색에 더욱 신경을 쓴 흔적을 작품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이번 무대는 더블캐스팅으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간 다른 춤 맛을 볼 수 있다. 5월 31일은 이정인(이쁜이), 김기원(미언), 정진희(갑분이)가 열연하고 6월 1일은 박창희(이쁜이), 최의옥(미언), 권봉정(갑분이)이 관객들을 만난다.

■ 쇼케이스 일정 : 4월 28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5월 19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앙광장

5월 26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앙광장

■ 가족사랑이벤트 : 56회 정기공연 기념 56가족 한정 이벤트(5월 31일:28가족, 6월 1일 28가족)

R석 기준으로 4인 가족에 한해 4인 중 1인은 50% 할인

(단, 선착순 전화예매를 통해서 당일 지정 좌석 제공, 5세 이상 어린이 관람가능.)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회원 카드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6120, www.koreanfolkdance.com)

대극장

김옥련 발레단
2007 숲속 발레 '별'
 1일-2일 화-수요일
 오후 1:00, 3:00, 8:00



어린이날을 즈음해 매년 순수 창작발레를 발표해온 김옥련 발레단의 2007년 창작무용극 '별'.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름다운 별에 대한 순수, 동경, 사랑을 표현한 이 작품은 발레를 통해 잃어 버렸던 순수함과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무대이다.

· 연출, 안무/김옥련(경성대 겸임교수, 김옥련발레단 단장)

· 원작/알폰스 도테의 별

출연

정운식, 정두순, 백주희, 최소정, 신승민, 정수미, 이세진, 서지연, 최연순, 백순선, 백현정 외

· 특별출연/호민(극단 아센 대표), 고충진, 김경태, 이영웅(이상 클래식기타리스트), 신재숙(탭댄서)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김옥련발레단(626-9486, 016-579-9486)

2007 부산국제연극제 세계명작뒤집기

개막작 극단 목화
'로미오와 줄리엣'

5일-6일 토요일 오후 6:30
 일요일 오후 4:00, 7:00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체코, 푸에르토리코, 한국 등 8개국 18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2007 부산국제연극제.

4회를 맞는 올해 무대는 세계명작 희곡을 패러디하고 리메이크 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원작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이다.

개막작 '로미오와 줄리엣'은 2006년 세계적인 극장 '런던 바비칸 센터' 15일간 공연 전회 매진 기록을 세운 작품으로 500년 전 셰익스피어의 감동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 한국의 전통과 언어와 동작과 색채를 셰익스피어 원전의 정수와 결합한 독창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각색, 연출/오태석

출연

정진각, 황정민, 조은아, 강현식, 이병선, 이수미, 이도현, 주혁준, 이동용, 박세용, 김병철, 이해영 외 목화배우

입장료 1층 30,000원 · 2층 20,000원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11-3703, www.bipaf.com)

꼬레아오페라단 10 테너
페스티벌

9일 수요일 오후 7:30

지난해 오페라 '가면무도회'를 부산에서 초연해 화제를 모은 꼬레아오페라단이 들려주는 10 테너 페스티벌.

한 무대에 10명의 테너들이 출연하는 10 테너 페스티벌은 부산에서 보기 드문 음악회로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명의 성악가가 화려하고도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프로그램

카르딜로/무정한 마음

가스탈돈/금지된 노래

번스타인/마리아

존레논/에스터데이 등 수곡

출연

허동권, 오동주, 김지호, 김화정, 윤정윤, 이철성, 김현식, 이은민, 정거화, 권오중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안상철(010-2400-5271)

제 4회 한국가곡 대축제 부산공연
겨레와 함께 노래와 함께
 10일 목요일 오후 7:30

숨겨져 있는 예술성 높은 가곡을 새로이 발굴하여 우리 가곡의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20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가곡축제 부산공연.

출연

소프라노 김인혜(서울대 교수),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강무림, 바리톤 우주호, 베이스 함석헌 외

· 오케스트라/페스티벌오케스트라(지휘/백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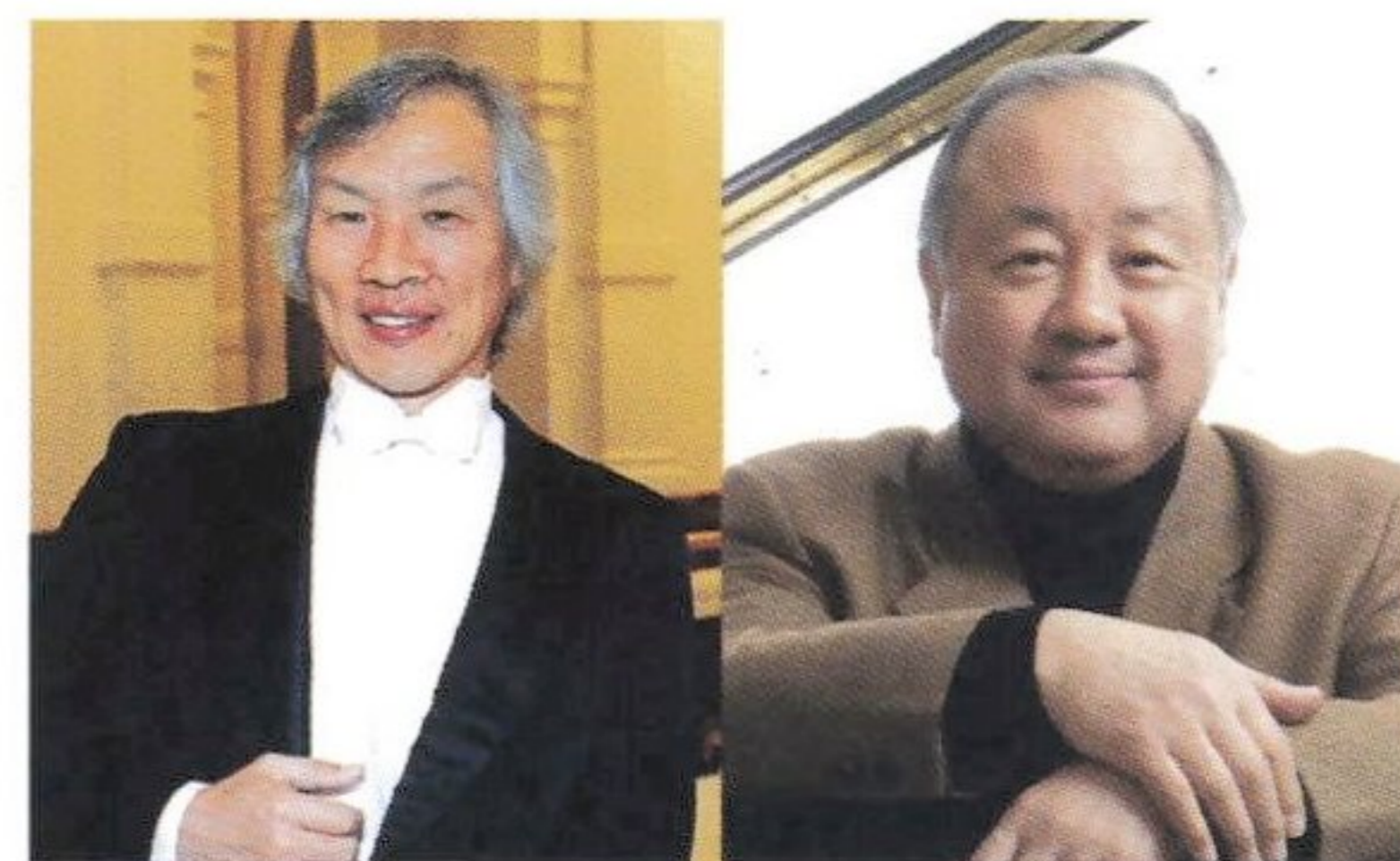
· 합창/예술전문단체 한울림합창단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한국가곡협회 부산지부
 (016-585-026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0회 정기연주회
부산 MBC 창사 48주년
기념 '그레이트 콘서트'

11일 금요일 오후 7:30



곽승

한동일

줄리어드 음대를 거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리벤트리트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주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이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30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브람스/피아노 협주곡 제2번 내림나장조 작품 83

슈베르트/교향곡 제9번 다장조 '그레이트' 작품 944

· 지휘/곽승 · 피아노/한동일

· 해설/곽근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뮤지컬 2007 루나틱

12일-13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닐 사이언의 '굿 닥터'에서 모멘트를 얻어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각색한 국내 순수 창작 뮤지컬 '루나틱' 2007년 무대.

'Lunatic'이란 '달의 영향을 받은' 뜻에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미치광이 같은'의 뜻이다.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집단발표를 통해 그들이 각자 미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진행한다.

· 연출/백재현

출연

강지연, 윤선희, 김도형, 정재민, 전수미, 서길자, 이화진, 백재현, 인성호, 김성일, 배진성, 최오식

입장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www.anticket.co.kr)

사랑이 있는 음악회

그리움이 가득한 오월의 향기

14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 음악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친 음악 기획자 故 김석형 4주기 기일을 맞아 부산 콘서트콰이어가 고인과 친분이 있는 음악인들과 함께 마련하는 추모음악회.

프로그램



평화를 주소서, 기차는 8시에 떠나고, 김석형 추모곡 그리움(최석태 작곡, 이상헌 작사) 물망초, 그대의 찬손, 칠갑산 등 수곡 출연

부산콘서트콰이어, 김동윤, 백재진, 박찬엽, 김형욱, 고충진

입장료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오페라 갈라콘서트

소프라노 김문희 교수 정년음악회

15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 김문희 교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해 김문희 교수와 제자들이 함께 마련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정년을 맞을 때까지 20번의 독창회를 계획했던 김문희 교수는 제자들과 아미티에 성악연구회를 결성, 폭 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 2중창'

이수인/내맘의 강물

한국민요/신고산타령

베르디/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벨리니/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 등 수곡

출연

김문희, 전귀만, 김양자, 김경희, 이은정, 서정아, 장은영, 옥혜나, 양성희(이상 소프라노), 차순례, 김윤희(이상 메조소프라노), 정종철, 양승엽(이상 테너), 하병욱, 조현수(이상 바리톤)

입장료 초대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칸타빌레 남성앙상블 2007년 교과서음악회

16일 수요일 오후 7:30



유럽 명문 대학에서 유학 및 활동을 하고 귀국, 대학에서 후진 양성과 더불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 전문 연주단체인 칸타빌레남성앙상블이 들려주는 교과서 음악회.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는 칸타빌레 남성 앙상블은 이번 연주회에서 단원들의 애창곡 무대, 학창시절 배웠던 국내외 가곡 등을 남성중창 특유의 하모니로 들려준다.

출연

이흥득, 이은민, 윤정윤(이상 테너), 안상철, 심정보(이상 바리톤), 김길수, 박기범(베이스)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야마하 공식 A/S점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피아노/박기덕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안상철(010-2400-5271)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제 20회 정기공연

17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고에서 무용수업을 하고 있는 무용학과 재학생들이 선보이는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정기공연.

프로그램

한국 무용 '빛을 여는 동백의 노래' (안무/이은영 · 출연/김민심, 김정연, 류지니, 박성아, 서난이, 양근화, 이상미, 이아림, 곽아등 외)
현대무용 '한 여름 나-앗의 꿈' (총안무 및 연출/성은지 · 출연/이연주, 이유리, 이정민, 정유한, 최성은, 황성재, 황지연 외)
발레파 '파키타' (재안무/이화성 · 출연/강정훈, 이승환, 권혜인, 김다정, 김은지 외)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예술고등학교(515-8106)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18일 금요일 오전 11:00



금난새

이성주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일보사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

콘서트 '금난새와 11시에 만나요!'

무대 위에서 행복을 전하는 지휘자 금난새의 지휘와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가 협연자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드보르작/슬라브 무곡 작품 46-8

비발디/바이올린 협주곡 '사계' 작품 8 중 '여름'

드보르작/교향곡 제 9번 마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중

· 지휘 및 해설/금난새

· 바이올린/이성주(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입장료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테너 이철성 독창회

19일 토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이태리 까를로 베르곤지, 오르페오, 보게라, 손드리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귀국, 폭 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이철성 독창회.

이철성은 엔리소 카루소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으로 처음으로 우승했다.

프로그램

롯시니/망명자, 나는 고요히 불평하리라
도니젠티/탄식, 치명적인 사랑, 사랑의 서신들
벨리니/그대 더욱 기쁘게 해주오

김동진/내마음 등 수곡

· 특별출연/유승공(바리톤)

· 반주/이화영선

입장료 VIP 50,000원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프리모아트매지너(622-5529)

부산예술고등학교 음악부
제 20회 정기 연주회

21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예고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있는 차세대 주역들이 펼치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슈만/그랜드소나타 제 3번 바단조 작품14
라흐마니노프/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 2번 작품 17

차이코프스키/슬라브행진곡 작품 31 등 수곡

· 관현악 지휘/오창록

· 합창지휘/윤정윤

· 피아노/김동영, 강광원, 하지원, 김태기(3년)

· 피아노 5중주/강지윤, 박나경, 홍승아, 김경화, 남준휘

· 소프라노/이민영(3년)

· 마림바/김주현(3년)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고등학교(514-1202)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22일 화요일 오후 7:30



러시아 음악의 황제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이끄는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우리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협연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자이며 지휘자이기도 한 천재 아티스트 미하일 플레트네프가 1990년에 창단한 러시아 역사상 첫 독립 오케스트라이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피아노협주곡 제3번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 지휘/미하일 플레트네프

· 협연/백혜선

입장료 R석 160,000원 · S석 120,000원

A석 80,000원 · B석 5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B석 제외 5%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과 함께 하는
2007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7080 그 세 번째 이야기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25일-2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중장년층에게 인기를 모은 추억의 가요를
 수준 높은 합창음악으로 편곡,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
 기획 연주회 7080 세 번째 만남.

프로그램

오프닝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아직 마음은 10대/꽃동네 새동네, 여고시
 절, 여고졸업반
 이루지 못한 사랑의 꽃 노래/달맞이꽃(이용
 복), 못다 핀 꽃 한 송이(김수철)
 풍경이 있는 노래/민들레 흠씨 되어(박미
 경),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예민)
 함께 부르는 노래/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행복하게 만드는 노래/행복한 사람(이문세),
 행복을 주는 사람(해바라기) 등 수곡

- 지휘, 해설/김강규
- 특별출연/자유를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
- 객원출연/김정태(포크기타), 김진훈(드럼)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입장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2007 해동검도공연
 27일 일요일 오후 6:00



한국전통무술인 해동검도를 전통 음악과
 의상 등을 곁들여 공연 형식으로 재구성, 일
 반일들에게 해동검도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2007 해동검도 공연.

프로그램

해동쌍검무, 단체검무, 격검무, 쌍수검과 검
 무, 전통음악과 어우러진 쌍검베기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사)세계해동검도연합회
 (633-1780~1,
www.haedong2001.com)

부산시립무용단 제 56회 정기공연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 날'
 5월31일-6월1일 목-금요일
 오후 7:30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시립무용단이
 의욕적으로 선보이는 제 56회 정기공연.

영화, 연극, 뮤지컬로 각색되어 많이 알려
 진 '맹진사댁 경사'를 춤극으로 새롭게 재
 구성,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답
 고 멋드러진 춤극을 선보인다.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수
 석안무자)

· 원작/오영진 · 각색/하현관

· 연출/오정국

주역

이정인(이쁜이), 김기원(미언), 정진희(갑분
 이), 박창희(이쁜이), 최의옥(미언), 권봉정
 (수석, 갑분이), 장래훈(수석, 미언 숙부), 김
 병주(부수석, 맹노인), 이정식(맹진사), 오숙
 레(맹진사 부인), 이창규(삼돌이) 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 학생단체 3,000원
 (50인 이상)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중 크 장

독일가곡연구회 제 31회
정기연주회

1일 화요일 오후 7:30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탑앞
 (미니몰 건너편)

각종 공연에 매처

통도원타자, 경주월드, 광안리미월드 연중계속 예매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 ~ 3월까지는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 문우당서점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층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1987년 독일어권에서 수학한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로 결성된 독일가곡연구회 정기 연주회.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는 독일가곡 연구회는 동아대학교 김명규 교수를 회장으로 30여명의 회원들이 매년 2회의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등으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슈트라우스/봄의 소리

슈베르트/소야곡

멘델스존/봄의노래

베토벤/아델라이데

슈만/달밤 등 수곡

출연

김현주, 김혜정, 정서영, 황정원(이상 소프라노), 김효순(메조소프라노), 김지호(테너) 허종영, 김종화(바리톤)

· 피아노/곽윤희, 김성희, 박혜선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현식(011-566-4172)

정우영과 클라리넷 이야기

2일 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과 함께하는 클라리넷 이야기.

정우영은 부산클라리넷콰이어, 부산필원드앙상블, 한국아카데미 체임버앙상블을 창단하여 클라리넷 및 관악앙상블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프로그램

메사제/콩쿠르를 위한 독주

브람스/클라리넷 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120 제 2번

생상/클라리넷 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167

빛시/리골레토 주제에 의한 협주적 환상곡

· 피아노/이은정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조영훈(011-574-3687)

멜로매니아 제 13회 정기연주회

3일 목요일 오후 7:30

전국에서도 보기드문 아마추어 솔리스트 동호회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해온 멜로매니아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채동선/망향

김동환/그리운 마음

김노현/황혼의 노래

토스티/4월 등 수곡

출연

테너 차희종, 테너 김덕영, 테너 최성협, 바리톤 한성권, 바리톤 민정식, 테너 석동호, 테너 원요한, 바리톤 김성홍

· 우정출연/테너 오거돈

· 트레이너/박광하 · 피아노/곽윤희

입장료 초대

문의 멜로매니아(301-9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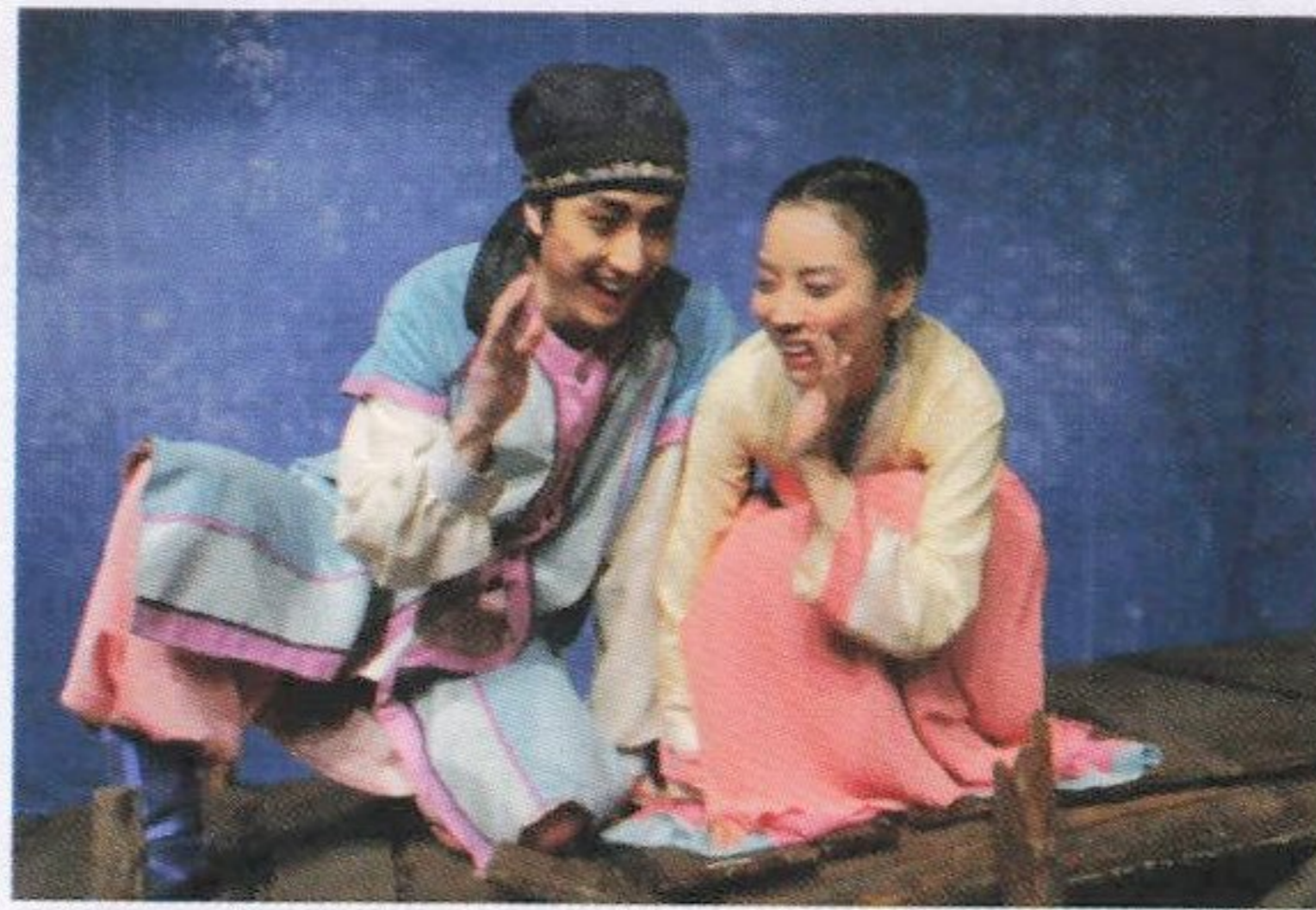
2007 부산국제연극제

5일-15일 토-화요일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프랑스, 체코, 푸에르토리코, 한국 등 8개국 18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부산국제연극제.

■한국 스테이지티(Stage-T)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5일-6일 토요일 오후 3:00, 일요일 오후 2:00, 5:00



춘향전과 심청전의 절묘한 만남으로 고전을 새롭게 재해석한 한국 스테이지 티의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쉬운 사랑, 참지 못하는 사랑, 쉽게 잊혀지는 사랑에 물들어 있는 우리시대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본질인 인내와 순수함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 작/박새봄 · 연출/최성신

· 작곡, 음악감독/신경미

· 안무/이유미

■부산시립극단 '수전노'

9일-11일 수-금요일 오후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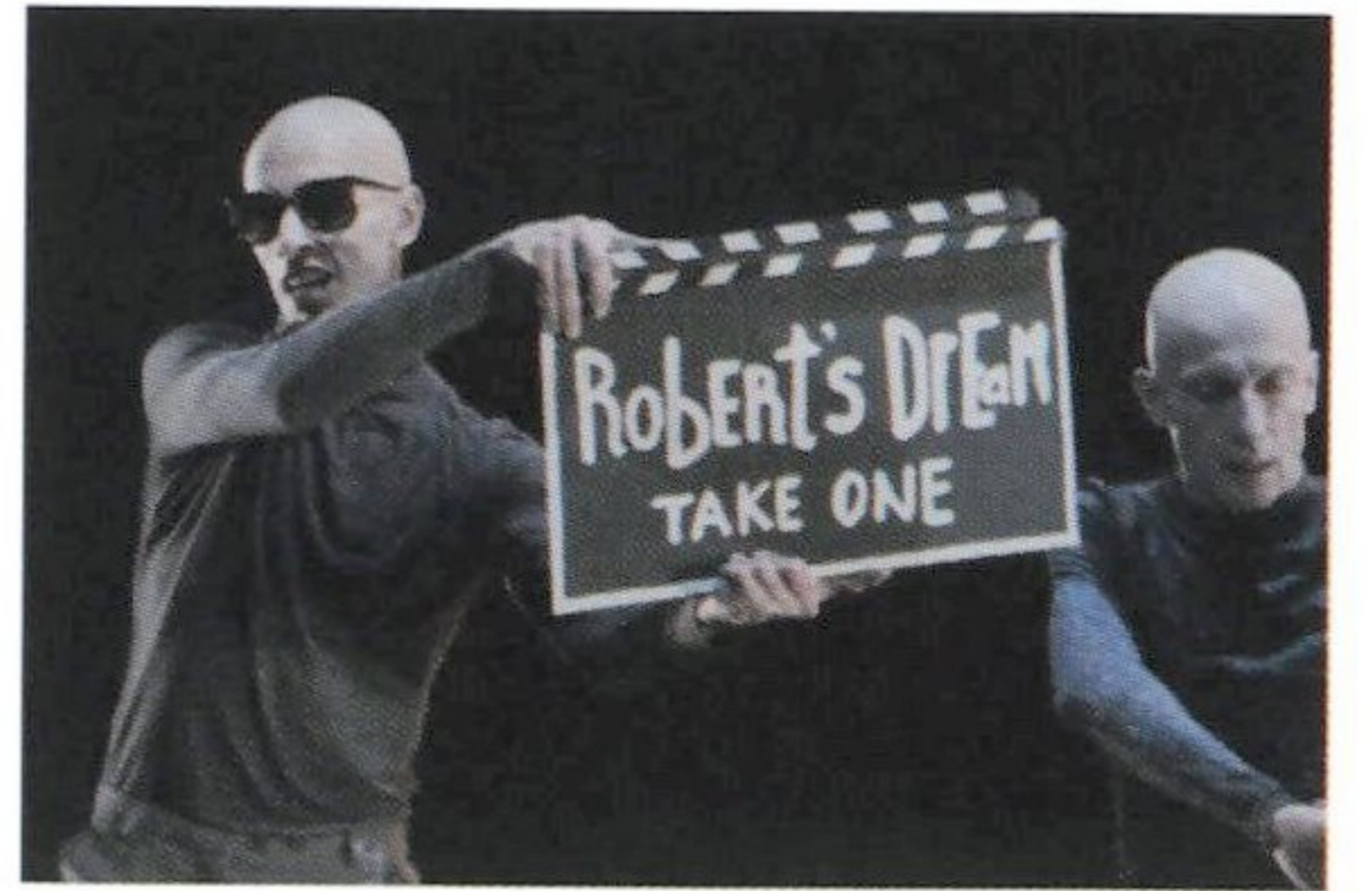
3월 정기공연무대에서 큰 사랑을 받은 부산시립극단의 수전노. 17세기 프랑스 대표

극작가 몰리에르 만년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전노'는 몰리에르 특유의 사회풍자와 함께 재치 있는 대사와 몸짓이 웃음과 감동이 넘친다.

· 연출/손기룡

■폐막작 독일-러시아 극단 데레보 (Theatre DEREVO) 로버츠 드림 (Robert's Dream)

14일-15일 월요일 오후 8:00, 화요일 오후 7:30



신체극의 대명사로 불리는 세계적인 극단 데레보가 선보이는 '로버츠 드림'은 영국 록 음악의 신화 '로버트 와이어트'를 모티브로 신체적 언어로 표현한 작품이다.

· 연출/아다진스키 안톤

입장료 개 · 폐막 공연 1층 30,000원

2층 20,000원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단, 개 · 폐막 공연 1층 30,000원

2층 20,000원)

문의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627-2726, www.bipaf.com)

최윤자의 춤

16일 수요일 오후 7:30



김진홍 전통춤연구회 회원, 부산민속협회 회원으로 우리 춤의 맥을 잇고 있는 최윤자의 전통춤 한마당.

프로그램

승무(춤/최윤자)

동래입춤(특별출연/문장원)

동래한량춤(춤/최윤자)

태평무(특별출연/엄옥자)

살풀이춤(특별출연/김진홍)

지전춤(춤/최윤자)

입장료 초대

문의 최윤자(010-3156-2496)

트리오 방데레 초청내한공연

17일 목요일 오후 7:30



1997년 프랑스의 권위있는 음악상인 '음악의 승리상'을 수상하고, 2000년 올해의 최우수 실내악 앙상블상을 수상한 프랑스 뮤지션 트리오 방데레 부산연주회.

젊은 대가의 가능성, 역동적이면서 세밀한 앙상블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있는 트리오 방데레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출신의 뱅상 꼭(피아노), 장-마르크 필립-바르자베디앙(바이올린), 라파엘 삐두(첼로)로 결성되었다.

프로그램

드뷔시/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메시앙/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테마와 변주곡

투리나/피아노삼중주 작품 91 제 3번 등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학생석 10,000원

문의 사)부산문화(633-8990)

부산치과의사남성앙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19일 토요일 오후 7:30

2001년 7월에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 시내 치과의사들이 모여 결성한 부산치과의사 남



성앙상블은 정기연주회.

현재 14명의 치과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치과의사남성앙상블은 2003년 4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정기연주회, 부산 소년의 집 청소년 오케스트라 자선음악회, 일본 동경지역 교회 순회공연 등을 가졌다.

프로그램

우덕상/그대 눈 속의 바다

돈베직/훨훨 날리라

이수인/가지산 억새바람 등 수곡

출연

윤경규, 박경호, 이진호, 최봉인, 김귀재, 안세호, 윤재각, 윤경규, 박이훈, 강병화, 최점일(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명수, 최은종, 정동수, 이강민

· 음악감독/연명희 · 반주/문지은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유섬, 이병옥(치과 의사, 색소폰)

입장료 초대

문의 강병화(628-1214)

제 23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20일 일요일, 24일-25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지역 피아니스트 15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의 2007년 무대.

1996년 결성된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은 매년 두 차례 피아니스트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피아노 앙상블 연주와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 우수 신인발굴에 열정을 쏟아왔다.

■첫째날 20일(일) '우수 신인 연주회'

지난 2006년 11월에 부산연주가클럽에서 주최한 제 4회 우수 신인 콩쿨에서 대학부와 일반부에서 입상한 수상자들이 들려주는 우수신인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작품 27-1 1, 4악장, 소나타
작품 10-3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제 7번 1, 3악장

쇼팽/소나타 작품 35 1, 4악장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제 1번 등

· 연주/김기연(부산대대학원 1년), 김아림(부산대 4년), 정은혜(부산대 3년), 최진현(동의대 대학원 2년), 김경표(동의대 대학원 1년), 노지영(동의대 대학원 졸업), 박민선(부산대 대학원 2년)

■둘째날 24일(목) '신정아 독주회'

부산예술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을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만하임음대와 슈투트가르트음대 최고연주자과정(최고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신정아독주회.

프로그램

슈베르트/방랑자 환상곡 다장조 라장조
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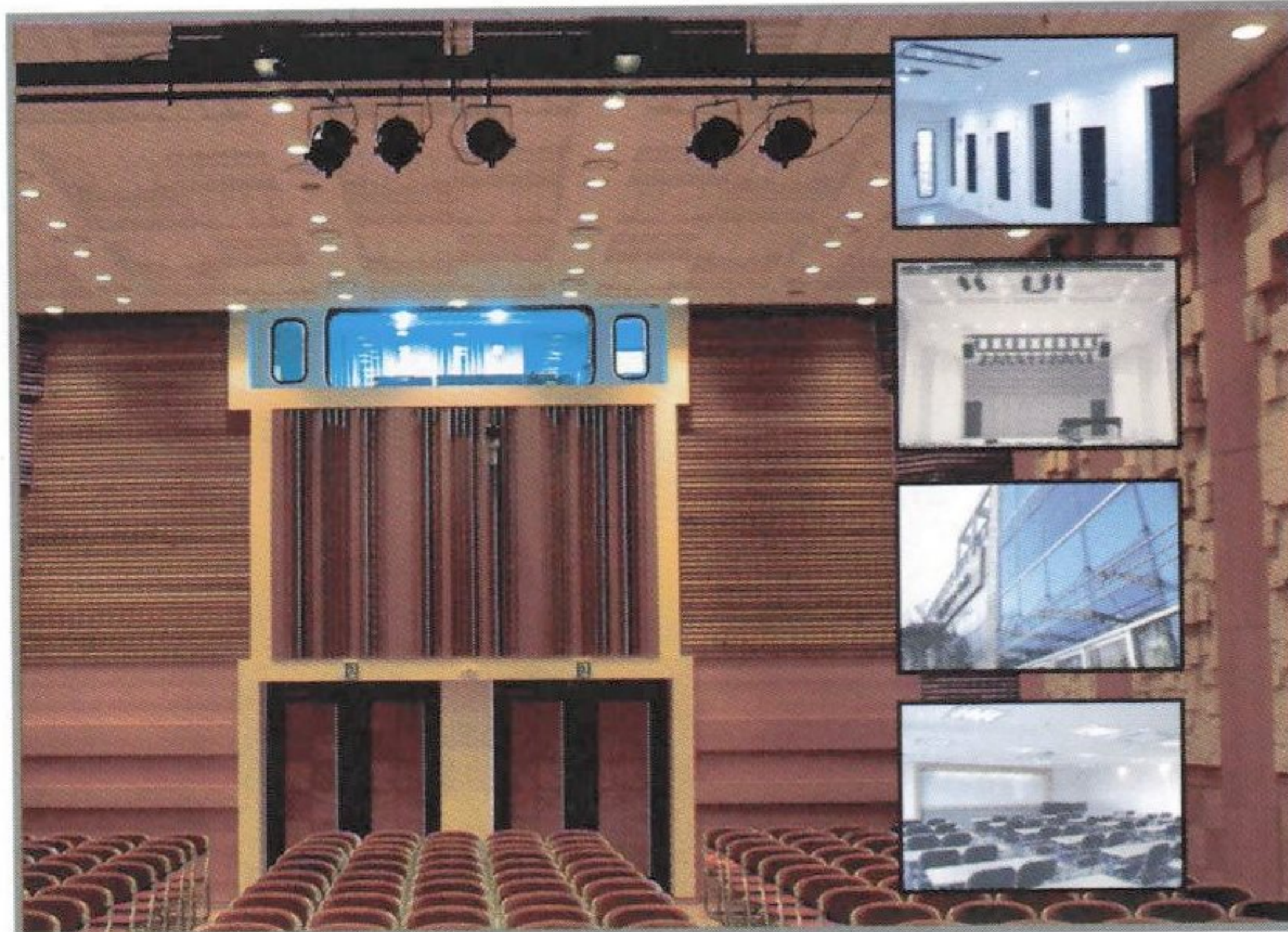
프로코피에프/피아노소나타 가장조

■셋째날 25일(금) '피아노 페스티벌의 밤'

정광민, 윤혜정, 김진희, 이명숙, 공소현, 김미연, 박현정, 김성희가 들려주는 피아노 페스티벌의 밤.

프로그램

바흐/프렐류드와 푸가 올림다단조



GloVil
Art Hall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감탄하는
국제수준 어쿠스틱연주, 녹음홀
부산에 있습니다 _글로벌아트홀

레코딩스튜디오 • 글로벌콘서트바토리
공연대관|녹음, 음반|연습실|세미나



GloVil 문화예술원
Culture & Art Center

051-505-5995 glovil.org / glovil@paran.com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 지하철3호선 미남역 1번출구 5분거리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스크리아빈/에튀드 작품 8 제 12번
쇼팽/발라드 작품 52 바단조, 론도 등 수곡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소영(011-9336-1679)

작곡동인 잉태 제 2회 작곡발표회
5월의 향기-시와 음악의 아름다운 만남
21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곡가들의 모임인 잉태(회장 송필석)의 두 번째 작곡발표회.

통영시 자생원 장애인들이 7년 동안 써온 시에 곡을 붙인 창작곡들을 발표한다.

- 작곡가/권오철, 백승태, 송필석, 최석태, 구영립, 이승재, 문지은, 정일영, 김수진, 정원상, 최천희, 이승임
- 시인/심재홍, 배청대, 전귀남, 주라미, 강희숙, 김교육, 박화석, 신태식, 윤희원, 이병석, 정용환, 조윤희
- 연주/장원상, 오동주(이상 테너), 신진범, 성정아(이상 소프라노), 서숙지, 이수민, 이경미(이상 피아노)

입장료 초대
문의 최석태(607-6126)

부산 피아노 듀오 협회 제 33회 정기연주회
26일 - 27일 토 - 일요일 오후 7:30

피아노 듀오를 통해 피아노음악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는 부산피아노듀오협회의 정기연주회.

■제 1일 26일 솔로음악의 밤

동주대학 실용음악과 박선미 교수를 비롯 피아니스트 배수정이 들려주는 솔로 음악의 밤.

프로그램
쇼팽/녹턴 올림 바단조 작품 48 제 2번

바르톡/모음곡 작품 14
프랑크/프렐류드, 코랄, 푸가
■제 2일 27일 듀오의 밤
프로그램

라흐마니노프/Six Piece Op.11 for Piano Duet
미요/스카라뮤슈 작품 165b(2Pianos, 4Hands) 등

연주
장효진, 김선화, 송화연, 이현정, 김정숙, 박은희, 안미정, 김진희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서숙지(018-563-6692)

고신대학교 제 8회 관악연주회
28일 월요일 오후 7:00

고신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음악도들이 들려주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리드/아르메니안 댄스
J.B첸스/바리에이션 등 수곡
· 지휘/박성은

입장료 초대
문의 고신대학교(017-843-1410)

윤대우 초청 피아노 독주회
29일 화요일 오후 7:30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현 하버드대교수 Joshua Fineberg's Spectral Music에 관한 논문으로 맨하탄 음대 박사학위를 취득해 기대를 모은 피아니스트 윤대우 초청 독주회.

피아니스트 윤대우는 Five Town Piano Competition(1997)에 우승했다.

프로그램
바흐/프렐류드와 푸가 BWV 880 바장조
베토벤/소나타 작품 111 다단조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등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부산문화(635-9081)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6회 정기연주회
바로크 음악의 향기
31일 목요일 오후 7:30



박치상 박미선 전병호

바로크시대 음악을 테마로 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제 26회 정기연주회로 웅장하고 거대함 위에 다채로운 장식이 가해지는 바로크시대의 대표작곡가 헨델과 바흐의 작품과 바로크시대의 음악을 편곡한 근대작곡가 베베른과 스트라빈스키의 작품들로 바로크 음악의 향기를 전한다.

프로그램
바흐-베베른/‘음악의 헌정’ 중 6성부 ‘리체르카타’ 작품 1079

바흐/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작품 1043

헨델/‘왕궁의 불꽃놀이 음악’ 중 서곡,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스트라빈스키/모음곡 ‘폴치넬라’ 등 수곡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박치상(바이올린), 박미선(바이올린) 전병호(테너)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607-6108~9)

양욱진 정성흡 듀오 리사이틀
6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양욱진과 피아니스트 정

성함이 들려주는 듀오리사이틀.

프로그램

드뷔시/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베토벤/첼로 소나타 2번 사단조 작품 5-2
쇼스타코비치/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단조 작품 40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소극장

제 3회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독창회 찬불가곡과 한국가곡의 밤 3일 목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와 동대학원, 이태리 리마델 가르다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메조소프라노 김정미가 들려주는 찬불가곡과 한국가곡의 밤.

프로그램

변규백/청산은 나를 보고
박이제/임의 숨결
홍난파/사랑

김연준/창산에 살리라 등 수곡
· 우정출연/권상무(피아니스트), 이성준(대금), 조승완(바리톤),
· 합창/문수사합창단, 복천사합창단

입장료 초대

문의 김정미(010-7499-0108)

2007 부산국제연극제 5일-15일 토-화요일

■미국 타이니 닌자 극단 닌자 햄릿(Tiny Ninja Theater presents Hamlet)
6일-7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오후 8:00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이니 닌자 극단'이 선보이는 닌자 햄릿.

셰익스피어의 고전명작이 1인치 크기의 닌자 인형과 다양한 모형의 인형들로 펼쳐진다.

· 연출 및 배우/도브 와인스타인

■한국 극단 미지(M.I.Z.I) '산책하기 좋은 날'
9일-10일 수-목요일 오후 8:00

6·25 동란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훤르난도 아라발'의 작품을 각색한 산책하기 좋은 날은 기괴함과 악동의 기질로



전쟁의 심각한 상황에 어린애와 같이 소풍이라는 놀이를 제시한다.

· 원작/훤르난도 아라발
· 연출/양지웅

출연

유재명, 조창주, 문성미, 권우람, 이용탁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627-2726, www.bipaf.com)

향사회 정기작곡발표회 故임종길 교수 추모 음악회 17일 목요일 오후 7:30



향사회 창립멤버인故 임종길 교수를 추모하며 그동안 친분이 두터웠던 회원들이 임종길 교수를 기리며 마련하는 추모 음악회.

프로그램

조영윤/현악 4중주곡
최인식/피아노 5중주곡
임종길/현악 4중주곡 1번
정승원/첼로 솔로를 위한 '영혼을 위한 기도문' 2
하순봉/바 이 올 린 과 피 아 노 를 위 한 'Caddish' 등
· 연주/아르스 현악 4중주단

입장료 초대

문의 정승원(624-657, 011-554-1657)

박영신, 김현애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21일 월요일 오후 7:30

계명대학교 피아노과와 동대학원, 독일 부퍼탈 국립음대를 졸업한 박영신은 그동안



박영신

김현애

5회의 독주회와 헝가리 바르톡 현악 4중주단과의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김현애는 숙명여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피아노 듀오협회 회원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훤멜/유쾌한 론도
모차르트/소나타 K.448
스트라우스/박쥐 등

입장료 초대

문의 박영신(011-562-2694)

부산시립극단 제29회 정기 공연 '칼맨'

5월 29일-6월 2일 화-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몰리에르의 '수전노'로 부산국제연극제 무대에 선 부산시립극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제 29회 정기공연작품 '칼맨'.

칼을 소재로 한 '칼맨'은 해방이후 월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는 우두철과 자폐증을 앓는 그의 딸 영애, 그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는 병태와 춘삼, 도미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을 칼에 대해 작가 김태수 특유의 재치로 경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전국연극제에서 두 차례 대상을 수상한 연출가 곽종필이 객원 연출을 맡았다.

· 작/김태수 · 연출/곽종필
· 특별출연/손상우 외 5명 (B.B.D) B-boy
댄스그룹

입장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의 부산시립극단(607-6136)

- _음악
- _무용
- _연극
- _아동극
- _영화
- _콘서트
- _행사
- _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너른소극장(622-3572)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미리내소극장(504-2044)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화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이청행 피아노 독주회

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와 미국 워싱턴대(학사), 보스턴대(석사), 노스텍사스대(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청행 독주회.

프로그램

리스트/오베르만의 골짜기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 8번 '비창'
모차르트/피아노 소나타 제 11번 K.331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KOREART(02-3775-3880)

PBC 화요일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 1일 은정 뮤직아카데미 초청연주회

· 출연/박나리, 이명지, 정승경, 임지언, 김준형, 황민영, 진정현, 김진아, 서지우, 송원경, 박다운, 이승민, 김도환

■ 8일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1979년 창단 이후 그동안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와 유진박, 소프라노 조수미와의 협연무대로 실력을 인정받은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 15일 차세대 유망주 음악회

· 피아노/박소영(삼정중 1년), 신수지(김해여중 2년), 조현정(브니엘예고 3년), 김기혁(신주중 2년)

· 첼로/류지영(브니엘예고 3년)

■ 22일 조태희교수 문학생 제 3회 특별순회연주회 '스페인의 열정'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최초의 오페라 '춘희'의 비올렛타로 데뷔, 한국 성악계를 이끌어온 소프라노 조태희(한양대학교 명예교수)와 그의 문

학생들이 마련하는 순회연주회.

■ 29일 소프라노 이영은 초청독창회

이탈리아 L.Refice 콘서바토리오 국립음대, 로마 A.I.D.A 아카데미아, 벨라 바르톡 아카데미아를 졸업한 소프라노 이영은 초청독창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톨릭센터(462-1870)

금정수요일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2일 가족사랑음악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 이탁근과 교사 오카리나합주단 바운스앙상블이 들려주는 가족사랑음악회.

■ 9일 차세대 비르투오조의 밤-정희자 클래스

바이올리니스트 정희자의 제자들이 마련하는 클래스 음악회.

■ 16일 바리톤 정성민 독창회



동의대학교 음악학과와 대구 효성가톨릭대 음악대학원, 러시아 Magnita gorsk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현재 청공 남성중창단 단장

으로 있는 바리톤 정성민 독창회.

■ 23일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세레나데



플루티스트 이상창과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이 작곡가 줄리아니, 카롤리, 쿠프너의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 30일 러시아가곡연구회 창단공연

러시아에서 음악수업을 받은 성악가들로
결성된 러시아가곡연구회 창단공연.

- 출연/베이스 박기범, 소프라노 박미경, 노
미숙, 전영무,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 특별출연/박미경(경성대학교 교수)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박진홍(017-563-7966)

제 1073회 MBC목요음악회

코아 클라리넷앙상블 연주회

3일 목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코아 클라리넷앙상블 초청무대로 마련되
는 제 1073회 MBC목요음악회.

프로그램

C. Grundman/클라리넷을 위한 카프리스
베일리/Long Long Ago 'Fantasy'
몬티/차르다시 등 수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오페라 마술피리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4:00,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요 아리아와 중창을 중심으로 한 빠른
극적 전개와 능청스러우면서도 코믹한 연

기, 신기한 마술과 재미있는 랩송 등 온 가
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오페라로 재탄
생 한 오페라 '마술피리'.

- 연출/안지환(신라대학교 교수)
- 드라마투르기/오계영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B석 10,000원

(R, S석 4인 가족석 25% 할인)

문의 그랜드오페라단(610-1004)

최은주 · 김은희 피아노 듀오연주회

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최은주

김은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 프랑
스 파리 에콜 노르말음악원을 졸업한 최은
주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및 독일 예
센 국립음대, 라이프찌히 국립음대, 마틴루
터 대학교(석사)를 졸업한 김은희가 함께 들
려주는 피아노 듀오무대.

프로그램

모슈코프스키/신 스페인 무곡 작품 65
슈베르트/환타지 바단조 D. 940
피아졸라/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등
· 플루트/김선영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은주(011-592-5697)

안티 스티뮴(An-ti Stimmung) 제 6회 정기 작곡발표회

9일 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대구 및 부산, 서울지역의 대학교수들과
실력있는 대학강사들로 구성된 '안티 스티
뮴(An-ti Stimmung)'은 지난 2000년 창
단연주회 이후 21세기 창작음악의 방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해오고 있다.

프로그램

정지영/선상의 탕고
주창근/강으로 죽으러 가는 사람들
정수란/시편 18

조희주/파도여 당신은 등 수곡

· 작곡/김유리, 정지영, 주창근, 진영민, 정
수란, 진소영, 박기섭, 조희주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정수란(011-9500-0469)

유니스 콰르텟 창단연주회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솔리스트로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
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엄세희, 비
올리스트 김가영, 첼리스트 유대연이 함께
하는 유니스 콰르텟 창단연주회.



부산유일의 심야꽃집

24시 꽃백화점
(전국꽃배달서비스)

소중한 내마음을 24시간 배달해 드립니다.

고급장미 · 슈퍼장미 / 100송이꽃 포장전문점 / 경조화환 · 꽃바구니 등, 서양란 · 관엽

* 대연동 유연로타리 문화회관 박물관 맞은편

TEL : 051-625-1665 / 무료전화 : 080-240-7979

FAX : 051-625-1664 / H · P : 010-6676-1665

· 부산은행 : 030-12-040646-0 · 예금주 : 최동윤

· 농협 : 943-02-225001 · 예금주 : 강자인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프로그램

하이든/현악4중주 제 77번 '황제'
드보르작/현악4중주 제 12번 '아메리칸'
쇼스타코비치/현악4중주 제 9번 작품 117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클래식 프로인트(521-5729)

11시 브런치 콘서트

10일 목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저녁시간에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앙상블 클라시아가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하이든 현악 4중주, 브람스 5중주,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등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앙상블 클라시아(506-6305)

부산국악작곡가회 제 6회 정기연주회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그동안 부산시인들의 詩를 주제로 한 창작곡을 통해 부산을 널리 알려온 부산국악작곡가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대학교 황의중 교수를 비롯한 작곡가 7명의 창작 실내악곡과 성악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실내악 '藝脫界樂', 숲속의 초대(이해인

詩), 봄 햇살 속으로(이해인 詩), 나를 사랑하는 님이여(황의중 詩) 등 수곡

· 시낭송/이해인 수녀

입장료 초대

문의 황의중(510-2942)

소프라노 옥헤나 귀국 독창회

1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프랑스 크레테이 국립음악원, 세르지 폰투와즈 국립음악원, 파리 인터내셔널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옥

헤나 귀국 독창회. 옥헤나는 창원시립합창단 부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입장료 초대

문의 YJ엔터테인먼트(011-9604-8082)

여성을 위한 행복한 11시 음악회

11일(금), 18일(금), 25일(금)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11일 신진성악가들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소프라노 손호진, 김민지, 테너 박윤희 등 신진성악가와 글로벌라이어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 해설/신영순(작곡가)

· 입장권/균일 5,000원

■18일 글로벌 가요금앙상블 연주회

· 출연/최주실, 이남연, 이민지, 김단비

· 해설/신영순(작곡가)

· 입장권/균일 5,000원

■25일 엄마랑 아가랑 함께하는 요들송



· 연주/그린샬레스위스

· 입장권/일반 7,000원 · 아가 5,000원
엄마랑 아가랑 10,000원

입장료 글로벌아트홀(505-5995)

제 3회 애광음악원 바람난 클래식

1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NAMA 솔리스트앙상블, 서울 펠리체앙상블, 락밴드 Trueline가 출연, 클래식과 대중가요, 락, 민요가 함께하는 크로스오버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사회복지법인 애광원(514-7717)

제 5회 아카데미 콘서트

12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음악전공자들의 무대경험을 통한 연주력 향상을 위해 아지무스오페라단이 마련하는 아카데미 콘서트.

· 출연/박미숙(동아대 대학원), 최햇살(인제대 3년), 전아름(동의대 1년), 최정원(경성대 1년), 김호빈(부산예고 3년), 김희경(두실초등 5년)

입장료 초대

문의 아지무스오페라단
(011-9520-4649)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테마콘서트 2 So Romantic

1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의

두 번째 테마콘서트.

황지원은 이번 무대에서 브람스와 프랑크, 비에냐프스키의 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나눔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
2007 스승의 날 기념음악회
15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스승의 날을 맞아 사제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전, 현직 교사들의 아마추어 솔리스트 앙상블과 여성합창단 세실, 미즈 챔버코랄, 영도여고합창단, 테너 김이수, 메조소프라노 허귀지가 출연, 사랑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조경규(011-878-3369)

피아노트리오 아르코발레노 제 3회 정기연주회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바이올리니스트 신나영, 첼리스트 박정열, 피아니스트 김유진 등 젊은 음악인들로 결성된 아르코발레노 3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브람스/피아노트리오 제 1번 나장조 작품 8
아렌스키/피아노트리오 제 1번 라장조 작품 32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아르코발레노(011-568-2156)

소프라노 이재란 독창회
17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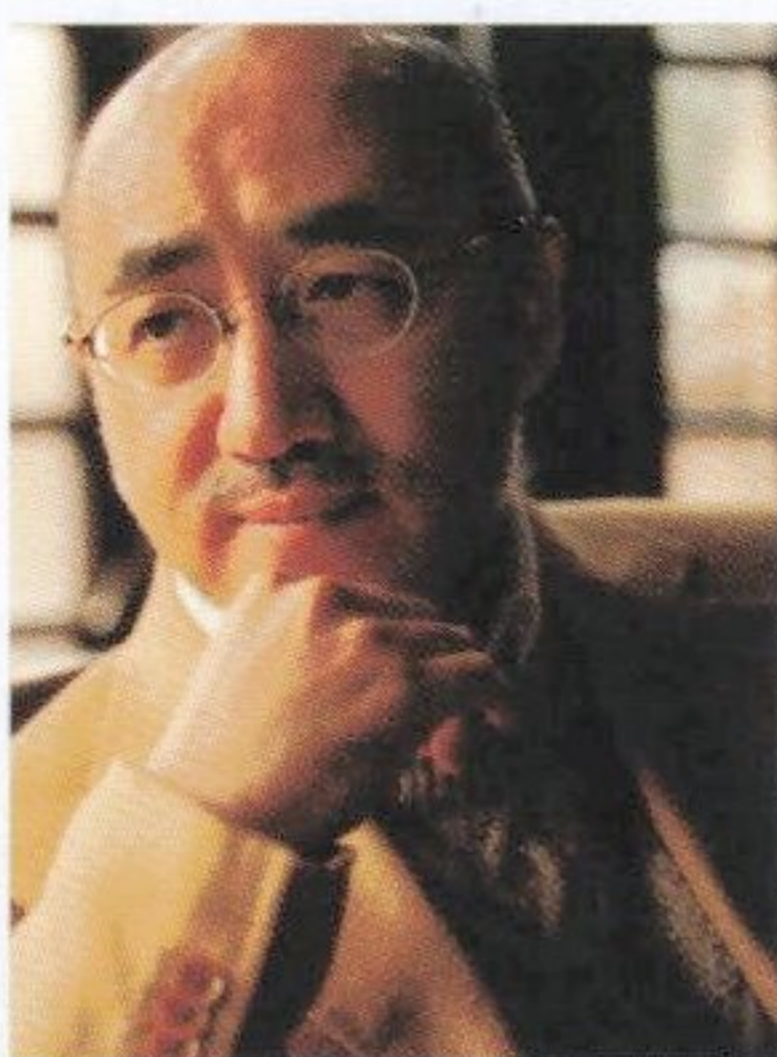


대구 가톨릭대 성악과 및 동대학원, 이태리 L.Perosi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온 소프라노 이재란 독창회.

프로그램
들장미, 아베마리아, 바위 위의 목동, 2개의 솔라이카 노래, 4개의 미농 노래 등 수곡
· 피아노/최민경 · 클라리넷/백종필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오페라단 가아(747-6139)

유기 구라모토 그랜드 콘서트
17일 목요일 오후 8:00
KBS부산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기 구라모토 부산공연.

프로그램
챔버 오케스트라, 기악 솔리스트와 함께 추억과 사랑, 자연과 여행이라는 일상적 소재로 웅장하면서도 정갈한 선율을 들려준다.

입장료 VIP(2인석) 140,000원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A석 44,000원
문의 올리버엔터테인먼트(1588-4430)

제 21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 청소년 관악페스티벌
18일 금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지역 5개 고등학교 관악대가 펼치는 부산 청소년 관악페스티벌.

출연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지휘/변해주), 동명정보공업고등학교(지휘/고일봉), 동의공업고등학교(지휘/배일환), 대양전자정보고등학교(지휘/안창섭),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지휘/하오석)

입장료 균일 3,000원
문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이승재 귀국작곡 발표회
18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고신대학교와 독일 트로싱엔국립음대를 졸업한 작곡가 이승재 귀국 작곡발표회.

이승재는 이번 무대에서 일본 켄다이스트링콰르텟 위촉곡 '현악4중주를 위한 80]80:58:80' 비롯 창작가곡, 피아노 독주곡, 클라리넷 독주곡, 컴퓨터음악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입장료 초대
문의 이승재(010-9453-0061)



봄바람 **핑크핀**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기간 : 4/1 ~ 6/30

생태계의 신비가 있는 봄의 축제~! 온 몸으로 느껴보는 체험의 신비! 제주도엔 알록달록~ 봄이 활짝~!
수서생태관에서 만나는 교과서 체험학습 병어리 천마리와 함께하는 봄 체험교실 바다속으로 떠나는 제주도 봄나들이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부산신포니에타 제 58회 정기연주회

21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제프리 리드 송언경

보울링 그린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지휘자로 있는 제프리 리드가 지휘하고 바수니스트 권동련, 첼리스트 송언경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부산신포니에타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하이든/첼로협주곡 사장조
비발디/바순협주곡 마단조
쇼스타코비치/신포니아 제 8번 작품 110 등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문의 김영희(510-2911)

부산남성합창단 가족음악회

21일 월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아마추어 성악가들로 결성된 부산남성합창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가족음악회.

입장료 무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제 33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Kammermusik abend -

22일 화요일 오후 8:00
가람아트홀



독일에서 음악공부를 하고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우

회의 33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생상/피아노와 오보에를 위한 소나타 작품 166
슈베르트/바위 위의 목동 작품 129
멘델스존/트리오 제 1번 작품 49

·출연/김문주, 원영아, 이문숙(피아노), 유수민(오보에), 황진용(소프라노), 손경균(클라리넷), 김성은(바이올린), 박현영(첼로)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공연기획(626-6664)

소프라노 김한나 독창회

22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 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의대학교 성악과와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에콜 노르말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료한 소프라노 김한나가 들려주는 아리아와 가곡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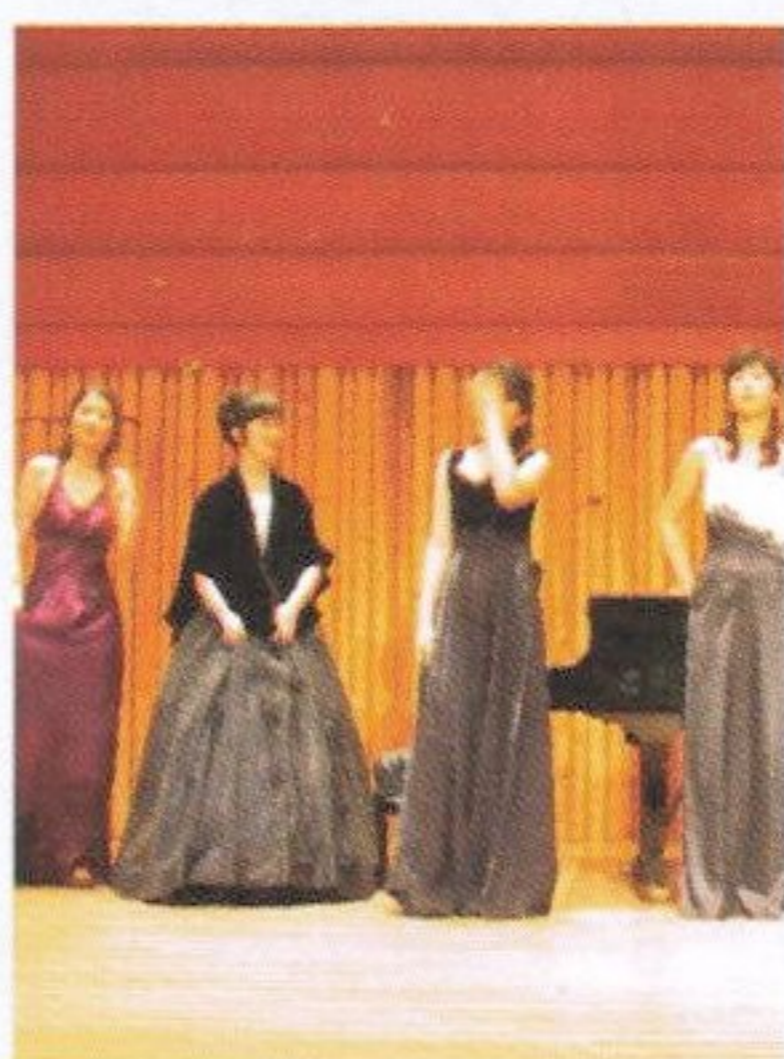
·우정출연/테너 전병호
·피아노/홍지혜

입장료 초대

문의 CSM매니지먼트(747-1567)

제 4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우수입상자 연주회

22일 화요일 오후 8:00
글로벌아트홀



기량이 뛰어난 젊은 연주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아트홀이 마련한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각 부문 1위 입상자들을 위한 연주무대.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한정민 피아노 독주회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한양대학교 피아노과와 프랑스 파리고등사범음악원(사범과정 및 최고사범과정), 파리국제음악원(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



아니스트 한정민 독주회.

1부 판타지모음곡 전곡에 이어 2부 아베그바레이션, 유로레스크 전곡 등 슈만의 곡들을 들려준다.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27-2572)

부산오르가노 제 17회 정기연주회

22일 화요일 오후 7:30 거제교회

스웨덴의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로 중기 바로크음악의 한 정점을 이루었던 D. 북스테후데 서거 300주년을 맞아 그의 작품들로 들려주는 부산오르가노 정기연주회.

입장료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문의 윤호정(011-9334-1847)

루마니아 박하우스 필하모니 초청연주회 정안선 클래스 협주곡의 밤

23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루마니아 박하우스 필하모니와 피아니스트 정안선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출연/강영아, 권미영, 이선영, 이지혜, 김선정

·특별출연/김윤정(바이올린)

입장료 초대

문의 김영근(011-858-9434)

로템 플룻 앙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24일 목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2004년 플루티스트 하은경, 하지민, 김민정, 원지영으로 결성된 로뎀 플룻 앙상블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나부코' 중 서곡
라이하/4대의 플룻을 위한 4중주
모리스/플룻 4중주 모음곡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공연기획(626-6664)

**서혜주와 그랜드챔버의
로맨싱 더 바이올린**

2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바이올리니스트 서혜주가 이끄는 스트링오케스트라 그랜드챔버가 로맨스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클래식과 영화음악, 재즈를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콘서트.

· 오프닝공연/소프라노 배수진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2007 글로벌아트홀 특별기획 시리즈3
니노 코치아렐라 초청연주회

25일 금요일 오후 8:00
글로벌아트홀



'성공을 멈추지 않는 피아니스트'라는 평가를 받으며, 개성있는 연주로 미국내에 빠른 명성을 얻고있는 니노 코치아렐라 초청연주회.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현과 춤과 재즈의 리얼리티 콘서트

26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도진미

클래식과 재즈연주, 비보이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온 가족을 위한 퓨전콘서트.

10대를 위한 비보이공연을 비롯 20대를 위한 영상과 함께하는 영화 OST 모음곡, 30~4대를 위한 감미로운 재즈 등 장르를 뛰어넘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출연/도진미(바이올린), 이은정(피아노), 안우성 재즈콰르텟, 부산예술대학 비보이팀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2007 글로벌아트홀 특별기획 시리즈4
**재미 피아니스트 김지윤
피아노 연주회**

28일 월요일 오후 8:00
글로벌아트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인디애나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재미 피아니스트 김지윤 독주회.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예술중학교
제 9회 정기연주회**

2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지역 예술영재 교육의 요람인 부산예술중학교 개교 8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제 9회 정기연주회.

· 지휘/김용만(관현악), 이상철(합창)
· 솔로/안정민(성악), 이효진(바이올린), 박소민(피아노), 이현수(오보에), 이바다가야금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중학교 음악부(512-8092)

신문정 피아노 독주회

2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3차례 독주회를 비롯 다양한 무대에 서온 피아니스트 신문정 독주회.

신문정은 이번 무대에서 리스트, 코다이 등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들과 스크랴빈, 바흐의 곡을 들려준다.

입장료 초대
문의 피아니스트(244-1924)

**루마니아 박하우스 필하모니
초청연주회**

29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우크라이나 필하모니 지휘자 슬라바 레디아가 이끄는 루마니아 박하우스 필하모니 초청연주회.

프로그램

멘델스존/핑갈의 동굴 서곡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 23번 K.488
베토벤/심포니 제 2번 등
· 협연/고태욱(피아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문의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
(011-858-9434)

**지휘자 슬라바 레디아와 함께
협주곡의 밤**

30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그동안 새로운 장르의 음악 개발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패기 넘치는 무대를 선보여 온 우크라이나 필하모니 지휘자 슬라바 레디아와 함께하는 협주곡의 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한국국제예술교류협의회
(011-858-9434)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무용

제 11회 부산동인춤마당

2일-3일 수-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한국춤연구회 '숨'

■2일 부산한국춤연구회 '숨' (안무/임나영), 동아발레단 'Crazy Frog' (안무/주정현), 로고현대무용단 '줄다리기(Tug of War)' (안무/손영일), 춤패 배김새 '가슴에 초록빛을 새긴다...' (안무/김경아)

■3일 땡브르발레연구회 '또 다른 나...' (감독/이유하), 하야로비현대무용단 '산으로 간 소풍' (안무/왕영숙), 현대무용단 주-□ '담기다' (안무/임혜주), 그랑발레 '미운오리새끼' (안무/정두순)

입장료 일반 12,000원 · 학생 8,000원

문의 임나영(016-879-6090)

2007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동문 초청공연

16일 수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부산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한 6명의 젊은 안무가들이 펼치는 열정적인 무대.

작품

강영선류 태평무(출연/강미선), Burst(안무 및 출연/임현미), 사랑해요??(안무/정미영) 미운오리 새끼(안무/정두순), 영혼이 새처럼 날아가 버리다...(안무/이유리), 백조의 호수 중 2막 달빛어린 호숫가(출연/강선연)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대학교(510-1740)

제 21회 부산청소년예술제 - 무용공연

20일 일요일 오후 4:00
시민회관 대극장

참가팀 및 작품

부산예술고/빛을 여는 동백의 노래, 한 여름 나 - 앓의 꿈, 파키타

브니엘예중/재즈댄스, 호두까기 인형 중 갈대피리

브니엘예고/장고춤, 북춤

학산여고/바람의 전언

· 축하공연/터~울림(안무/최은희 · 경성대 교수), 나무꾼의 야심(안무/장정윤 · 동아대 교수)

입장료 일반 12,000원 · 청소년 8,000원

문의 부산무용협회(632-5116)

연극

사랑에 관한 다섯개의 소묘

4월 6일(금)-5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가마골소극장

여관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섯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다양한 사랑을 선보이는 뮤지컬.

· 작, 연출/위성신

· 출연/이지수, 민충석, 라미란, 주현종 외

입장료 일반 25,000원 · 학생 20,000원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2007 부산연극제 자유참가작

극단 사계 프로포즈 시즌3

4월 10일(화)-5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결혼의 가치가 물질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풍토를 풍자해 사랑과 결혼의 참된 의미를 묻는 코믹 뮤지컬.

· 작/이강백 · 연출/김만중

· 출연/양진억, 황자미, 박정원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주)코엔(1544-3164)

유순웅의 1인극 염쟁이 유씨

4월 12일(목)-5월 1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소강당

2006년 서울연극제 인기상을 수상한 배우 유순웅의 모노드라마 '염쟁이 유씨'는 죽음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작품이다.

· 작/김인경 · 연출/위성신

입장료 균일 25,000원

문의 (주)코엔(1544-3164)

2007 부산국제연극제

5일(토)-15일(화) 시민회관, 경성대학교, 너른소극장, 액터스소극장

■부산연극제작소 동년 '바리데기'

6일(일) 오후 3:00, 6:00, 7일(월)-8일(화) 오후 8:00 시민회관 소극장

전통설화 '바리데기'를 현대적인 연희양식으로 새롭게 창조한 작품.

· 연출/심문섭

■시월 네트워크 비보이 퍼포먼스 '스핀 오딧세이'

6일(일) 오후 2:00, 5:00, 7일(월)-9일(수) 오후 8: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자유로운 비보이의 몸짓과 신화적 상상력이 결합된 비보이 퍼포먼스.

· 작, 연출/김진만

■러시아 아케 엔지니어링 극단 'Mr. 카르멘'

6일(일) 오후 6:00, 7일(월) 오후 8: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남성 호세와 여성 카르멘의 갈등과 관계의 비극적 해결을 그린 작품.

■삼일로창고극장 창작뮤지컬 '결혼'

6일(일) 오후 3:00, 6:00, 7일(월)-9일(수) 오후 8:00 너른 소극장

현대의 물질적 결혼관에 일침을 가하는 창작뮤지컬.

· 원작/이강백 · 연출/정대경

■Theatre 정 모듬 'Love 죽여? 살려!'

8일(화)-11일(금) 오후 8:00, 12일(토) 오후 7:00, 13일(일) 오후 3:00, 6:00

액터스 소극장

이 시대 연인들을 위한 유쾌한 사랑지침서.

· 연출/이강혁

■코포럴씨어터 몸풀 '리어카, 뒤집어지다'
9일(수)-10일(목) 오후 8:00 경성대학교 예
노소극장



서민들의 땀과 눈물을 대변하던 '리어카'
를 통해 그들의 삶을 몸짓으로 풀어낸 작품.
· 연출/윤종연

■푸에르토리코 유턴 댄스컴퍼니 '사이의
거리'

10일(목)-11일(금) 오후 8:00 시민회관 소
극장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그린 연극적 댄스 퍼포먼스.
· 안무/김정웅

■체코 파벨 반젤리 인형극단 '마리오네트
프라하'

11일(금) 오전 11:00, 오후 8:00, 12일(토)-
13일(일) 오후 2:00, 5:00 너른 소극장

마술에 걸린 도시 프라하의 감춰진 미스
테리를 찾아 떠나는 어린 꼬마와 요술쟁이
아저씨의 모험을 그린 파벨 반젤리의 1인극.
· 대본, 감독, 출연/파벨 반젤리

■극단 앙상블 '익스트림 로미오와 줄리엣'
12일(토) 오후 7:00, 13일(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익스트림 스포츠 어그레시브 인라인을 통
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역동적으로
그려낸 작품.
· 대본, 연출/김진만

■프랑스 서커스 바로크 '인생은 아름다워!'
12일(토) 오후 7:00, 13일(일) 오후 3:00,
14일(월) 오후 8: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세 명의 배우가 보여주는 뛰어난 곡예와 춤
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코믹 가족극.
· 작/앤 쥬비노 · 연출/쥘 콜라

■마리오네트 극단 보·물 '목각인형콘서트'
12일(토)-13일(일) 오후 2:00, 5:00, 14일
(월) 오후 8: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연극대학
에서 마리오네트를 공부하고 귀국한 연출가
김종구의 정통 마리오네트 인형극.

· 연출/김종구

■일본 JP 스튜디오 '상현이가 소가 됐네'
13일(일) 오후 2:00, 5:00, 14일(월) 오후
8:00 시민회관 소극장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소재로 게으름을 피
우는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작품.

· 연출/모리 료스케 · 안무/박정자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7-2744)

2007 가마골소극장 고정레퍼토리

서툰사람들

5월 11일(금)-6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필요하면 다 흠
치는 겁많은 도둑
과 사랑에 서툰지
만 용감한 집주인
의 하룻밤 이야기
'서툰 사람들'.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김지현, 한상민, 차민엽, 이정욱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해운대문화회관 개관 기획작

전통놀이극 어무이 어무이요

11일 금요일 오후 8:00
12일-13일 토-일요일 오후 4:00
7: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중요무형문화재
동해안 별신굿의
거리굿 형식을 빌
린 전통놀이극으로
한 어머니의 일생
을 파노라마식으로
전개시켜 우리의
전통윤리사상인

'효'를 이야기한 작품이다.

· 작/김경화 · 재구성, 연출/이정남

입장료 1층 10,000원 · 2층 8,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2)

제 21회 부산청소년연극제 축하공연

친구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소극장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구수한 사투리와 70년대 음
악으로 그려낸 창작뮤지컬.

· 작, 연출/최재민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2007 마당놀이 변강쇠전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변강쇠와 웅녀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허
위와 욕망에 대한 집착을 마당놀이 특유의
신명과 웃음으로 풍자한 작품이다.

· 작/김지일 · 연출/손진책

· 출연/윤문식, 김성녀, 김종엽 외

입장료 마당석, 변강쇠석 40,000원

웅녀석 30,000원 · 일반 20,000원

문의 컬쳐아이(1588-8477)

제 21회 부산청소년연극제

22일(화)-23일(수), 25일(금) 오후
4:00, 7:00 시민회관 소극장

· 22일 부산영상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
웅' (지도교사/김준영, 김태현)

· 23일 부산여상 '탈선춘향전' (지도교사/조
영수)

· 25일 부흥고 '다녀오겠습니다' (지도교사/
지혜경)

부산시내 기타공연 · 전시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연극협회(645-3759)

오아시스세탁소 습격사건

5월 22일(화)-6월 2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놀이소극장

오아시스세탁소를 배경으로, 소시민의 삶을 웃음과 해학으로 그려낸 작품.

· 작/김정숙 · 연출/권호성

· 출연/조준형, 문상희, 정종훈, 김현미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중고생 15,000원

문의 원스테이지(1588-0881)

아 동 극

어린이날 맞이 세계명작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3일 목요일 오전 10:20, 11:4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4일 금요일 오전 10:20, 11:40, 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6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못된 늑대에 맞서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형제애를 그린 가족뮤지컬.

· 작, 연출/오계영

· 연출/조일영, 길수경, 김기양, 이선화 외

입장료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00원
할인, 매표소에서 카드제시)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5일-6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머리 위로 떨어진 똥무더기의 주인공을 찾아 길을 나선 꼬마 두더지의 이야기를 그린 어린이 뮤지컬.

· 작, 연출/김영주 · 음악/김두환

· 출연/오하영, 엄태영, 김미연, 정병삼 외

입장료 VIP 25,000원 · R석 20,000원
A석 15,000원

문의 나눔기획(1566-1085)

팔죽할멈과 호랑이

24일(목),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1:00, 3:0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민담으로 전해내려오는 전래동화를 흥겨운 사물장단으로 풀어낸 가족뮤지컬.

· 작, 연출/오계영

· 연출/조일영, 오계영, 송판수, 이선화 외

입장료 균일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00원
할인, 매표소에서 카드제시)

문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영 화

2007 호주영화제

4일(금)-11일(금) 오후 1:00,
3:00, 5:00, 7:30 시네마테크 부산

세계적인 호평을 받은 호주의 최근 영화들을 비롯 호주의 자연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 단편영화 24편이 소개되는 2007 호주영화제.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랑데부 드 부산 2007 프랑스영화제

15일-17일 화-목요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5:00, 7:30
시네마테크 부산

사랑해 파리, 파리의 연인들, 수면의 과학, 키리쿠 키리쿠, 탕기 등 예술성과 재미가 함께하는 프랑스의 최신영화 5편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상영전.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오슨 웰스의 재발견

18일(금)-31일(목)
시네마테크 부산(시간 미정)

세계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위대한 천재감독 오슨 웰스 특별전.

시민 케인, 위대한 엠버슨가 등 대표작을 비롯 상하이에서 온 여인, 악의 손길, 이방인 등 12편의 주옥같은 작품이 상영된다.



입장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2007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16일(수)-19일(토)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소극장, 소강당(시간 미정)

아시아권에서 제작된 다양하고 새로운 단편영화들을 소개하는 영화 축제의 장 2007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문의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사무국
(742-9600)

콘서트

2007 장운정 어버이날 디너콘서트 트로트 카네이션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6:00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입장료 균일 160,000원

문의 (주)폰즈(1544-2498, 816-3428)

노래로 보답하는 카네이션 콘서트-현철

8일 화요일 오후 8:00 KBS부산홀

입장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40,000원

문의 PPM엔터테인먼트(442-6500)

박효신 부산콘서트

12일 토요일 오후 7:30, 13일 일요일 오후 6:30 KBS부산홀

입장료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문의 소리엔터테인먼트(755-4545)

행 사

제 42회 동래전통민속예술 축제

6일 일요일 오전 10:00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놀이마당

동래야류를 비롯 동래학춤, 동래지신밟기, 동래고무 등 무형문화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동래전통민속예술축제.

입장료 무료

문의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555-0092)

세계 가면 체험전

1일-6일 화-일요일 오전 10:00
시민회관 대극장 1, 2층 특별전시장

한국을 비롯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 세계 각국의 가면 200여점이 한자리에 전시되는 세계 가면 체험전.

입장료 일반 5,000원 · 어린이 3,000원

문의 시민회관(630-5200)

제 2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2일-6일 수-일요일 오전 10:00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전 세계 최정상급의 매지션들이 함께하는 환상적인 마술의 세계 부산국제페스티벌 2007년 무대.

입장료 일반 7,000원 · 청소년 5,000원
(개 · 폐막식 30,000원 · 24,000원 /갈라쇼 20,000원 · 16,000원)

문의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
(628-0935, www.hibimf.org)

제 61회 시울림 시낭송회

9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초대시인/박선미, 박윤규, 신정민, 이초우, 정진경, 진명주, 천종숙
· 사회/한창옥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017-573-6080)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2007

- 생명의 金魚를 찾아서 -

19일(일)-26일(토) 금정산 및 부산 시내 일원

금정산 · 동래지역 역사체험, 온천천 생태 체험, 금정산 살림 대동장승굿, 달빛걷기 등 다양한 생태, 문화 체험행사가 펼쳐지는 금정산 생명문화축전.

문의 금정산생명문화축전 추진위원회
(807-0490, www.sangood.org)

전 시

한국현대미술속의 자연

3월 9일(금)-7월 17일(화)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740-4218)

헤르만 헤세 탄생 130주년 기념 특별전

3월 29일(목)-6월 3일(일)
부산박물관

입장료 일반 9,000원 · 학생 7,000원

문의 (주)아모르FX엔터테인먼트
(621-4634)

부산디자인센터 개원 특별 기획전

4월 20일(금)-5월 14일(월)
부산디자인센터 전시관

· 1층 전시관/부산 향토기업의 역사展
· 2층 전시관/부산 디자이너展

문의 부산디자인센터(790-1042)

이성은 사진전 - 숨비소리

4월 24일(화)-5월 6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Spirit of Africa

4월 24일(화)-9월 30일(일)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문의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055-340-7000)

랑데부 드 부산 2007

WA 임시자율 공간전

4월 27일(금)-5월 27일(일) 부산역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부산역사에 조성된 프랑스 현대 벽화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랑데부 드 부산 2007 노주련 설치전

5월 4일(금)-5월 26일(토)
부산프랑스문화원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강해자 서양화

5월 7일(월)-5월 15일(화)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이승민 사진전 새벽마트

5월 8일(화)-5월 13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묵운회전

5월 15일(화)-5월 20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四季의 풍경展

5월 17일(목)-5월 30일(수)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Recommended Performance in May

The 2nd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2th(Wed)-6th(Sun) 10:00a.m. BEX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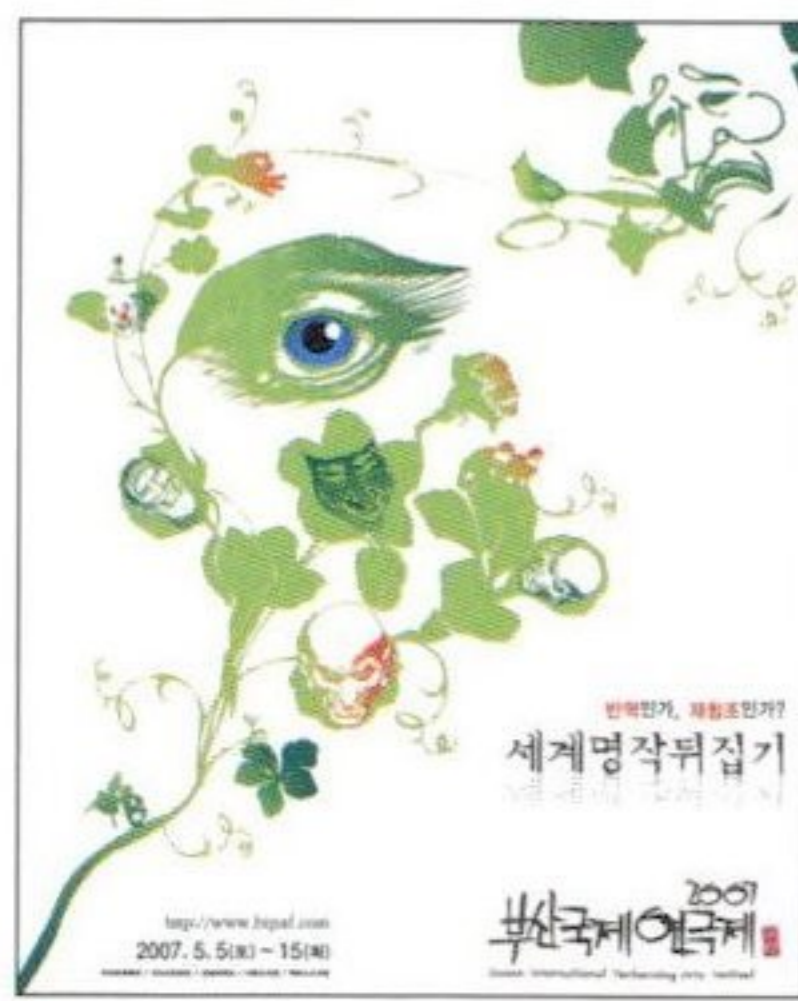
Busan International Magic Festival will be held with distinguished local and international magicians. It is made up of fantastic opening show, family magic show, magic competition, magic gala show and so on.

Ticket: Adult 7,000won · Student 5,000won(opening · closing 30,000won · 24,000won/GalaShow 20,000won · 16,000won)

For More details:628-0935, www.hibimf.org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5th(Sat)-15th(Tue)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 Medium Theater · Small Theater · Outdoor Stage, Busan Citizen's Hall Main Theater · Small Theater, etc.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kicks off at nine separate venues around the Busan. Titled 'Revolt or Recreation', the Busan festival tries to reinterpret masterpieces of theatrical plays to highlight the everlasting value and power of each work.

Seven productions, remakes or parodies of the world's classic pieces are expected to add modern twists to the originals, and to make audiences discover their true meaning. 18 plays from 8 countries.

Main performances

- THE CLASSICS - Opening: Theater Mokhwa of Korea Romeo and Juliet/Closing: Theatre DEREVO Robert's Dream/Hamlet'by Tiny Ninja Theater from the United States, Mr Carmen'by the AKHE Engineering Theater from Russia, Indang's Blues'by Korean Stage-T, and etc.
- BIPAF OFF - CIRQUE BAROQUE 'A cour & En corps' from France, U turn Dance Company SAI'from Puerto Rico, Korean Siwolnetwork B-boy performance spinodysey'and etc.
- THEATERS FOR FAMILY - Pavel Vangeli Theatre 'Prague-the enchanted city' from Czech, JP Studio (JP. スタジオ) '牛になったサンヒョン) Japan, Marionett Theater Bo · mul Sound of folk music'from Korea, and etc.

Ticket: opening, closing 1st floor 30,000won · 2nd floor 20,000won/others adults 20,000won · students 15,000won

For More details:627-2726, www.bipaf.com

'Great Concert', by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the 430th Subscription Concert & the 48th Anniversary of Busan MBC

11th(Fri)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Many Korean classical fans must have awaited the pianist, Mr. Han



Dong-il. Han was the first winner of international concours as a Korean in 1965, many people might have been proud of him and since then he has played a symbolic part of Korean classical

music.

Program

J.Brahms/Piano Concerto No.2 in B^b Major op.83

F.Schubert/Symphony No.9 in C Major The Great'D.944

· Conductor/Sung Kwak · Piano/Han Dong-il

Ticket: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s:607-6101

Russian National Orchestra in Busan

22th(Tue)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The worldwide Russian National Orchestra, led by the emperor of Russian music Mikhail Pletnev, visits Busan. They are offering magnificent music to us with the contemporary great pianist HaeSun Paik.

Program

P. Tchaikovsky/Symphony No. 5

S.Rachmaninoff/ Piano Concerto in D minor, Op.30

· Conductor/Mikhail Pletnev · Piano/HaeSun Paik

Ticket:R 160,000Won · 120,000Won · A 80,000Won
B 50,000Won

For More details:747-1536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the 56th Subscription Performance

Dance Drama 'The Wedding Day of Ippeunee (Miss. pretty)'

31th(Thu)-1st, June(Fri). 7:3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It is an traditional and familiar old story but this version is not old fashioned. It is adapted in fresh and enjoyable dance drama. Regardless of age or sex, we can enjoy it.

· Composition & dance composition/Hong Kitae

· Drama/Oh Youngjin · Adaptation/Ha hyunkwan

· Director/Oh Jungguk

※ Show case schedule

- 28th, April(Sat) 5:00p.m. Busan Cultural Center Small Theater

- 19th, May(Sat) 5:00p.m. Busan Cultural Center Con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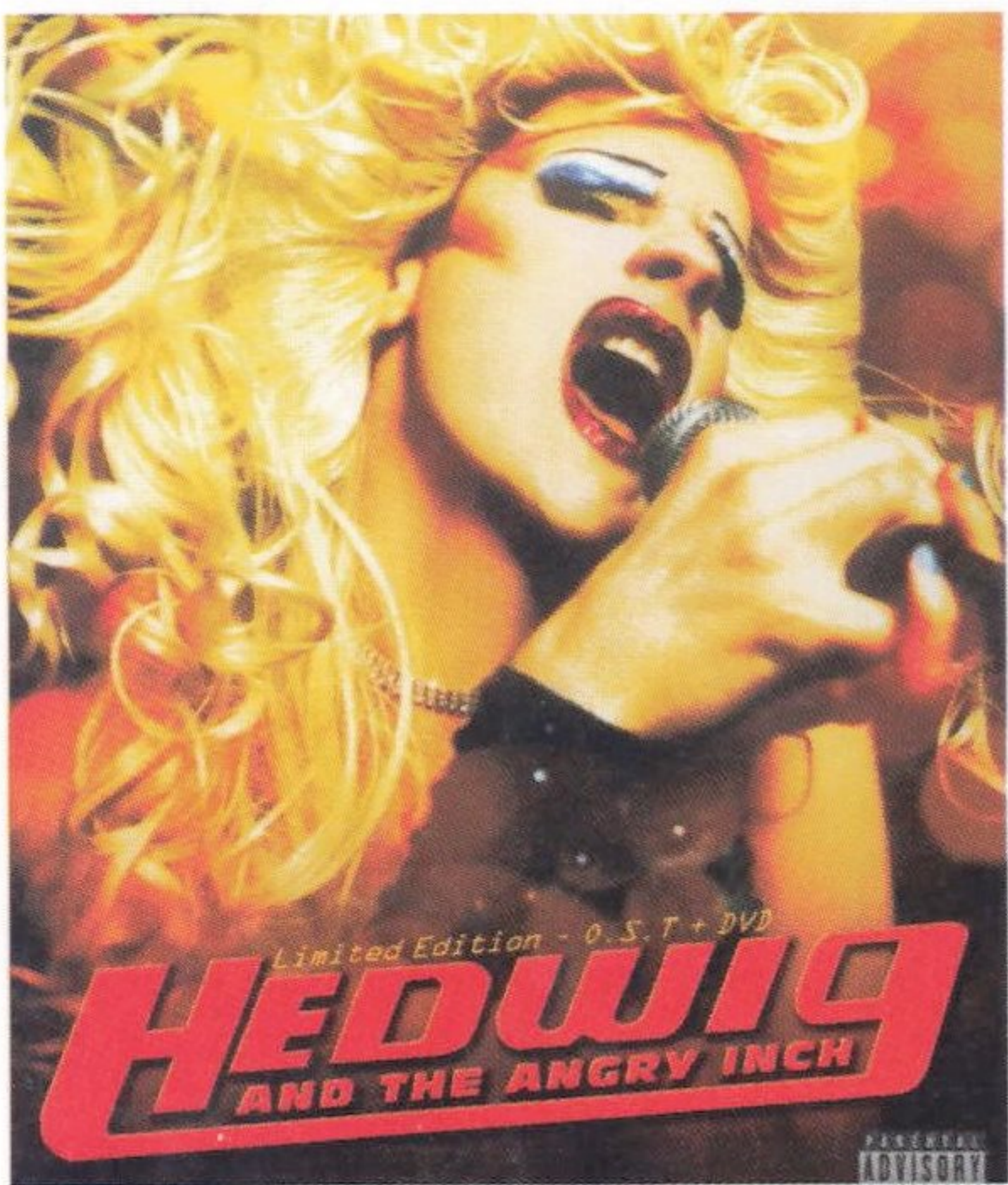
- 26th, May(Sat) 5:00p.m. Busan Cultural Center Concourse

Ticket: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For More details:607-6070

뮤지컬 헤드윅

이상훈 · 뮤클(뮤지컬&클래식) 운영자



2002년 영화로 한국에 먼저 소개가 되었지만 헤드윅 원작은 뮤지컬이다.(최근엔 케이블 TV에서 자주 방영되기도 하였다. 얼핏 보기엔 공중과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포장과 달리 제 짝 찾기라는 자연스러운 사랑이야기이다.)

또 하나의 반쪽을 찾기 위해, 하나가 되기 위해 헤매는 것. 바로 사랑이다. 이 작품의 대표적인 뮤지컬 넘버 The Origin of Love 사랑의 기원의 노래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이 초라했다. 1994년 미국 뉴욕의 드래그 퀸(여장남자)전용 바가 첫 무대. 차츰 이름이 알려지면서 오프 브로드웨이의 작은 극장에 입성. 예상외의 성공을 거둔 이후 브로드웨이 웨스트빌리지 극

장을 비롯하여 런던,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베를린 등 세계에서 순회공연을 가지며, 2005년 국내무대에도 선을 보인다. 그리고 부산도 그 해에 약 2주간의 장기공연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헤드윅 영화는 뉴욕타임즈 선정 10대 명작에 선정, 그 이듬해인 2001년 선댄스 영화제 감독상, 관객상 수상, 2001년 베를린 영화제 테디 베어상 수상, 2002년 골든 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 노미네이트 등등 각종 영화제를 휩쓴다. 우리나라에선 2005년 스포츠조선 주최 한국 뮤지컬대상 8개부문 최다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남자 인기스타상 외 3개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내용인 즉 독일의 한 록가수가 본인의 불완전한 성 정체성 문제를 안은 채 남성에서 헤드윅이라는 이름의 여성 록커로 과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린 록 뮤지컬 형식의 작품이다. 헤드윅은 원제는 Hedwig and the Angry Inch 우리말로 옮기면 정말 이상한 제목이다. 도대체 열받은 일인치가 뭘지? 그 사연이 궁금하다. 그러나 막이 올라가면 주인공 헤드윅의 모놀로그와 노래 하드락 밴드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게 된다.

국내에선 조승우, 오만석, 송용진, 김다현, 이석준 등 아홉명이 무대에 섰으며 공연전 화제의 중심인 조승우 외에 번갈아 무대에 오른 다른 배우들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뮤지컬 배우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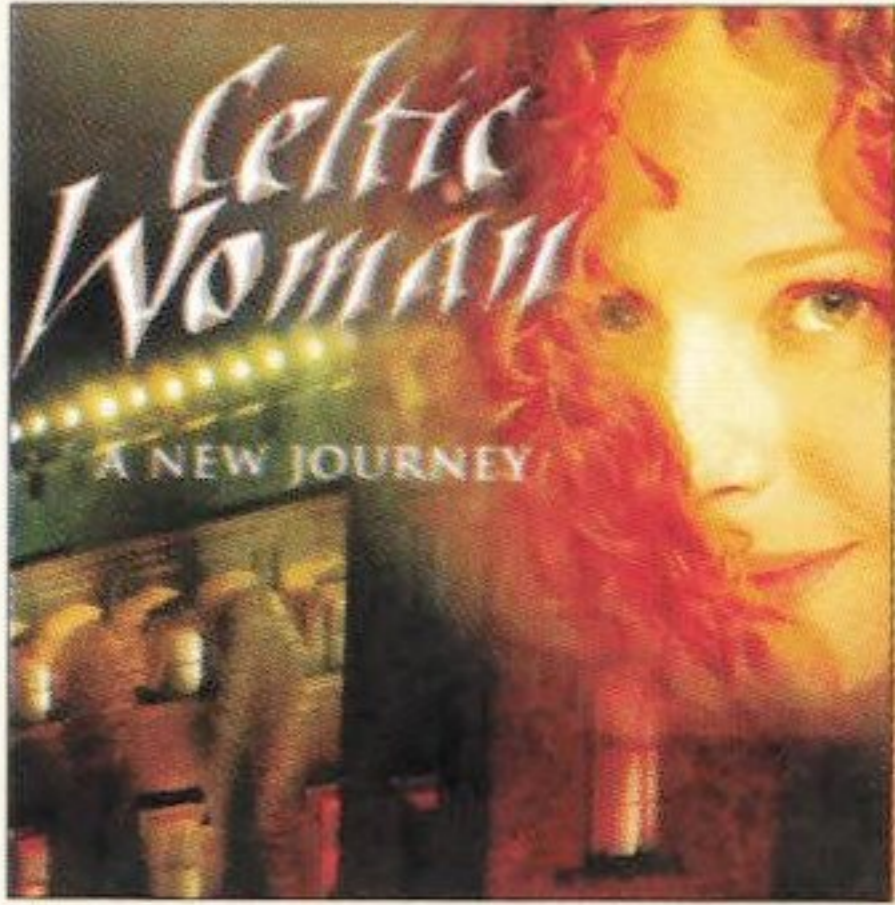
최근엔 헤드윅의 오리지널 캐스트이자 극작가인 존 카메론 미첼이 내한할 예정으로 역대 헤드윅들과 함께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다. 그리고 그 일정 중에 부산도 포함되어 있어 반갑다.



베토벤 현악사중주 연주 : 부슈현악4중주단

기념비적인 명연을 엄선해 품위있는 패키지에 담아 선보이는 안동림 교수의 '이 한 장의 역사적 명반 시리즈'로, EMI에서 녹음한 부슈 4중주단의 베토벤 현악4중주 전집이다.

베토벤이 세상에 남긴 예술작품 중 교향곡, 피아노 소나타와 더불어 위대한 업적인 현악4중주곡. 이곡의 최고 명연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부슈 4중주단 절정기의 높은 예술적 경지가 집약된 역사적 음반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국내발매 되었다.



켈틱우먼 2집 'A New Journey'

전 세계를 켈틱 음악의 매력에 빠지게 했던 켈틱 우먼이 기존 멤버인 천상의 목소리 클로에, 리사, 올라, 메이브, 그리고 피들연주자 메어리드에 미성소녀 헤일리 웨스턴라를 영입해 제작한 새로운 음반이다. 헨델 <울게 하소서>, 비발디 <사계>를 편곡한 <Vivaldi's Rain> 등 클래식 작품을 비롯하여 <Over the Rainbow>, <Scarborough Fair>, <The Last Rose of Summer> 등 귀에 익은 아름다운 선율들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오프닝 <The Sky and the Dawn and the Sun>부터 환상적인 타악기 앙상블과 함께 펼쳐지는 <Mo Ghile Mear>의 감동적 합창까지, 데이비드 다운스의 놀라운 편곡과 제작능력이 집결된 완성도 높은 음반이다.



브람스 : 첼로 소나타 1번 op.38, 바이올린 소나타 op.78(편곡), 클라리넷 소나타 op.120-1(편곡) 연주 : 피터르 비스펠베이(첼로), 데얀 라지치(피아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신의 새로운 첼로, 1760년산 지오반니 바티스타 과다니니 첼로와 그리고 멋진 파트너 데얀 라지치와 함께 자신의 오랜 레퍼토리를 다시 한번 향해하고 있는 피터르 비스펠베이가 베토벤에 이어 브람스로 시선을 돌렸다. 파울 코멘(포르테피아노)과 함께 만들었던 첫 번째 녹음(CCS 5493)에서 들려주었던 시대악기의 활력과는 다른 중후한 원숙미가 돋보이는 역작이며, 첼로 소나타 1번 외에 브람스가 직접 첼로용으로 편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라장조(op.78), 비스펠베이 자신이 직접 편곡한 클라리넷 소나타 바단조(op.120-1)를 담고 있어서 더욱 다채롭다.



2007년 라 페니체 신년 음악회

연주 : 베니스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지휘/카즈시 오노), 디미트라 테오도시오우(소프라노), 주제페 필리아노티(테너), 로베르토 프론탈리(바리톤), 마시모 쿠아르타(바이올린)

2007년의 서두를 화려하게 수놓은 베니스 라 페니체 오페라극장의 신년음악회. 1792년에 건설된 이 아름다운 극장은 1836년과 1996년 두 차례나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불사조(Fenice)라는 이름 그대로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매년 첫날 이 극장에서 펼쳐지는 신년음악회는 빈의 그것과 더불어 유럽 음악계를 대표하는 신년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7년 콘서트는 지휘자로 예정되었던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신상의 이유로 불참하면서 현재 벨기에 왕립 모네오페라의 음악감독인 일본의 기대주 카즈시 오노가 그 대역을 훌륭히 해내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하이라이트,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등 친근한 관현악곡들과 로시니, 베르디, 벨리니의 유명 아리아들과 합창곡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2002년 영예의 베르디 황금상 수상자인 세계적인 소프라노 디미트라 테오도시오우, 차세대 벨칸토 테너 주제페 필리아노티,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정상급 바리톤 로베르토 프론탈리, 1991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인 마시모 쿠아르타가 올해 무대를 빛냈다.

■ 비바체클래식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100선

국립중앙박물관 편저 / 안그래픽스 / 260p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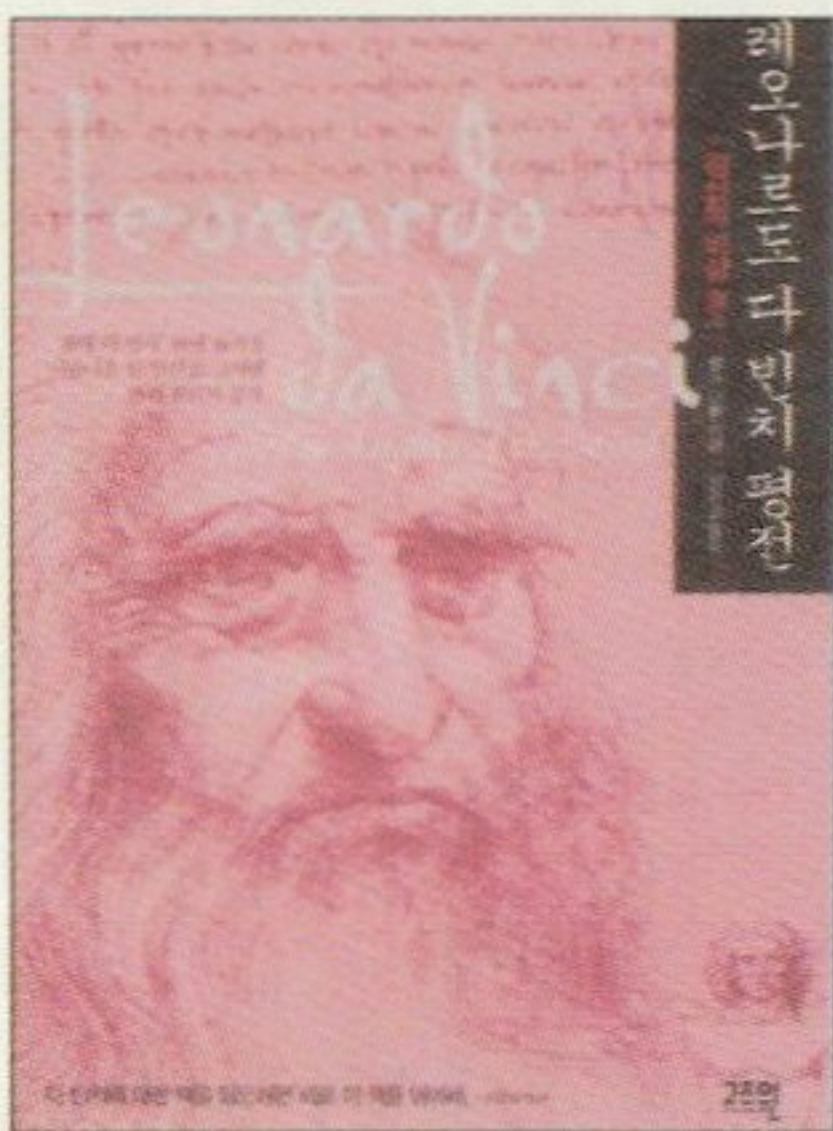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중 백미로 꼽히는 100종의 명품을 소개한 도록. 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는 부장용품이나 의식에 사용되는 것들도 많지만, 목가구와 백자 등 도자기의 대부분이 생활 용기였던 점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명품이란 단어는 일상의 생활 용품이나 상품에 앞서 1970년대 초 전통문화인 고미술분야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펴내는 소장품 도록에도 '명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다.

우리 민족은 이 땅에 자리 잡아 살면서 삶의 흔적을 담은 여러 조형물을 남겼다. 그 중 구석기시대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적 의의가 큰 유물과 미적 성취가 높은 조형 예술품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 중에서 고르고 추린 것들이다.

직접 보면서 제대로 감상하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이 책을 옆에 두고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민족의 문화재를 바라보는 심미안이 넓어지고 깊어지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평전

찰스 니콜 지음, 안기순 옮김 / 고즈윈 / 480p / 1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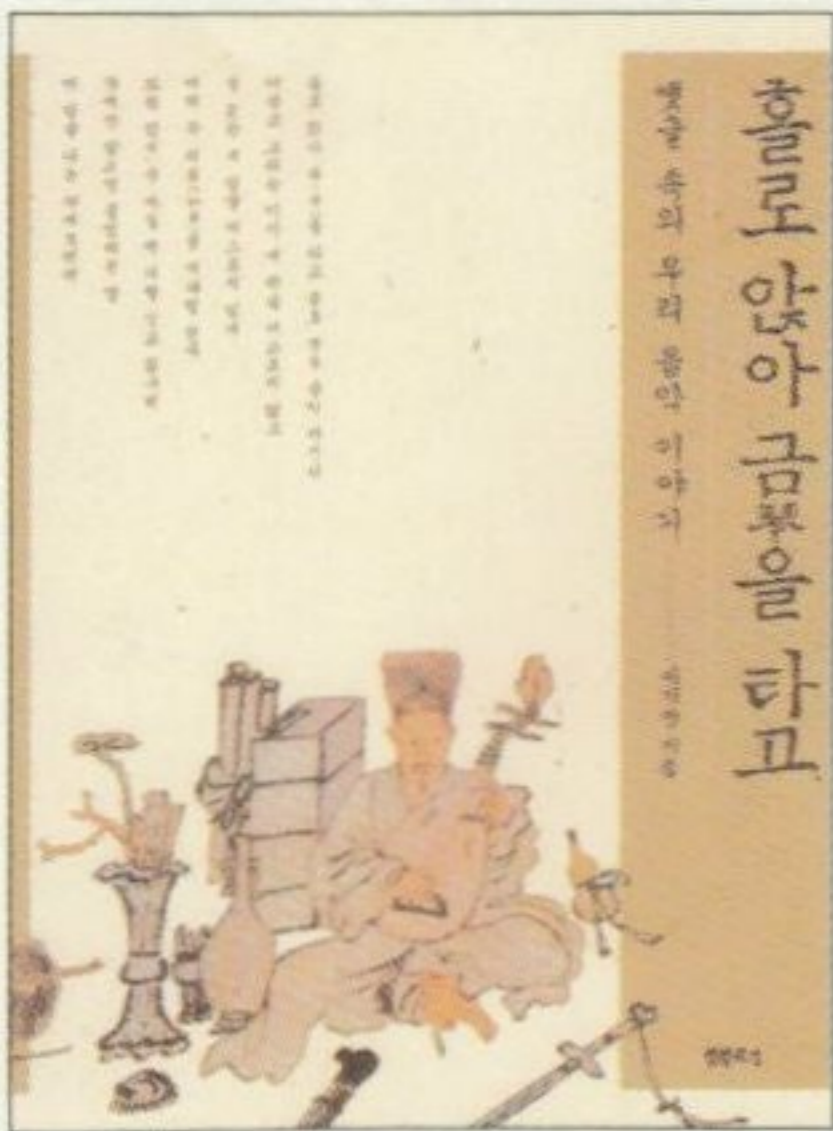


화가, 발명가, 음악가, 해부학자, 과학자, 철학자. '레오나르도 다 빈치' 만큼 수식어가 많이 붙는 예술가도 없을 게다. 예술과 과학을 아우르는 활동영역과 그 성과 덕분에 다 빈치는 '천재'로 불렸다. 하지만 '천재'라는 말은 한 인간의 피나는 노력과 끈질긴 성취욕 등 고통스러웠던 과정은 간과하고 그저 저 높은 무엇의 은혜를 입은 '경이'나 '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책에서는 '천재'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인간' 레오나르도가 중심이다. 저자는 이탈리아에 수년간 머무르며 다 빈치가 직접 남긴 노트와 메모, 작품들을 연구해 '인간' 다 빈치를 복원해낸다.

저자가 다 빈치를 천재가 아닌 인간으로 느끼게 된 계기는 영국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메모 한 장 때문이었다. 기하학 도식이 그려진 메모 끝에 쓰여진 '수프가 식기 때문에'라는 글귀에서 연구를 미루고 수프를 먹기 위해 식탁으로 다가가는 천재가 아닌 인간 다 빈치를 발견한 것이다. 저자는 다 빈치의 생애를 꼼꼼히 추적하며 몇 가지 단서가 될 만한 메모를 통해 다 빈치가 수줍음 많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지만, 때때로 농담을 즐겨하고 장난을 좋아했던 인물임을 보여준다. 인간 다 빈치를 만나보자.

홀로 앉아 금꺽을 타고

이지양 지음 / 샘터 / 326p / 15,000원



한문학자인 저자가 옛글 속에 담긴 우리 고전 음악과 음악가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책.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게 생각하는 우리 민족 전통음악에 대한 오해를 씻고, 그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옛 음악들이 만들어진 배경과 주제, 양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꼼꼼히 정리하고, 역사 속에 묻힌 우수한 예술가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 보여준다. 또, 그 이야기 속에서는 풍류를 즐기며 여유롭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생생한 삶과 문화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이름만 알려졌을 뿐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내용의 곡들인지 알기 어려웠던 옛 음악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해설한다. 피리 소리가 마치 바닷물 속의 용이 구불구불 즐겁게 헤엄치면서 휘파람을 부는 소리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수룡음>이나, '황하가 천

년에 한 번 맑아진다'는 의미에서 나온 <황하청>, 별이 아주 곱고 따사로운 늦은 봄을 뜻하는 <염양춘> 등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이름만 들었던 옛 노래들을 찬찬히 그 배경과 역사를 훑어가며 쉽고 자세하게 풀어준다.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좋아했던 인가가요 해설서인 셈이다.

■ 박현주/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화려한 선율에 박수 갈채

-4월 12일 예술의전당 2007교향악축제-



전국 21개 교향악단이 참가하는 2007 교향악축제에서 11번째 무대를 장식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000여 객석을 가득 채운 관중들에게 감동의 선율로 기립 박수를 받았다.

공연 전부터 21개 교향악단 중 가장 독특한 프로그램을 선곡해 기대를 모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곡과 익숙한 곡을 두루 선정, 음악애호가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번에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한 곡은 1부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보이지 않는 도시 키테쥐와 성녀 페브로니아의 전설' 모음곡과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과 2부 '발퀴레의 비행', '트리스탄과 이졸데' '탄호이저' 서곡.

음악평론가 이종욱(서울종합예술원 교수)씨는 "관객들의 분위기가 열광적이고 음악 선정과 연주에 군더더기가 없었다"면서 "까다로운 바그너 곡을 전체 주제로 잡은 데다 앵콜곡으로 그의 '로엔그린'과 '마이스터 징거' 까지 연주한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시립무용단 제 56회 정기공연 '이쁜이 시집가는 날' 쇼케이스 공연



5월 31일과 6월 1일 제 56회 정기공연 '이쁜이 시집가는 날'을 선보이는 부산시립무용단이 공연에 앞서 관객들에게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쇼케이스 무대를 갖는다.

한국적인 멋과 해학이 담긴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춤극으로 재구성한 '이쁜이 시집가는 날'은 '맹진사댁 경사'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중 청춘남녀의 애틋한 사랑의 풍경을 중심축으로 만든 서정적인 춤극이다.

관객의 특별한 상상력을 요구하는 이미지 위주의 창작 무용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춤극인 만큼 관객들의 기대가 크다.

공연에 앞서 무용이 관객들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이쁜이 시집가는 날'의 하이라이트 공연과 함께 주역 무용수와 만남의 시간이 마련된다.

• 주요일정

4월 28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5월 12일, 26일 오후 3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앙광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7 Hi! Seoul Dynamic Busan!'

-5월 18일 국립국악원 예약당-

지난 200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창단 20주년을 기념해 서울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Hi! Seoul Dynamic Busan!,' 무대를 가졌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5월 18일 서울 국악애호가들에게 부산의 흥과 열정이 살아있는 '2007 Hi! Seoul Dynamic Busan!' 무대를 선사한다.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는 'Hi! Seoul Dynamic Busan!'은 전통의 맥을 잃지 않으면서 새 시대에 맞는 특색 있는 위촉곡을 중심으로 연주하여 부산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다이나믹한 무대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젊은이의 희망찬 모습을 노래한 창작관현악 '해운대 위에 잔디', 부산 사계절의 모습을 세 개의 악장으로 표현한 색소폰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바다의 사계', 강은교 시인의 '문 열어라 온갖 차별이여'를 중심으로 작곡한 성악과 관현악 '문열어라', 2005년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위촉곡을 2006년 새롭게 편곡한 '축제의 향연 II' 등으로 풍성한 무대를 열어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서울 연주에 앞서 5월 5일 전남 보성에서 열리는 '제 33회 보성다향제 맞이 영·호남 화합 축하공연'에 초청받아 연주한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전 로비 콘서트 개최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지난 3월 27일 부산시립합창단이 대극장 계단을 무대로 작은 로비콘서트를 가진데 이어 4월 10일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 9중주 팀이 공연 시작 전에 20분간 로비 콘서트를 개최, 음악회에 참석한 애호가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앞으로 정기연주회가 있는 날에는 공연전에 로비음악회를 개최, 청중들과 만날 계획이다.



꿈과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고신대학교복음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문화회관 협약체결

부산문화회관 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족 특별우대

■예약문의: 협진협력병원 경우/ 진료의뢰센터 (051-990-6613)



1·2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협진협력병원에서, 3차진료는 고신대학교복음병원으로

아시아어브병원·임센터전문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 고려학원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602-702

대표전화 (051) 990-6114
전화예약 (051) 990-6900
응급의뢰센터 (051) 9906-119
암예방검진센터 (051) 990-5051
진료의뢰센터 (051) 990-6613
International Clinic (051) 990-6155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가로문제

- 순수무대공연예술의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여 관객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한 무대공연예술 종합 관람권.
- 5세기 초 아프리카 반달족(族)이 지중해 연안에서 로마에 걸쳐 약탈과 파괴를 거듭한 일에서 유래된 말로, 도시의 문화·예술이나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 신라 유리왕 때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12부족의 연맹체를 통합하여 김수로왕의 형제들이 세운 여섯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몸과 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으로,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한 농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음을 이르는 말.
-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 데에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리자 1년을 354일로 정하는 태음력에서 계절과 역월(曆月)을 조절하기 위해 19년에 일곱 번, 5년에 두 번의 비율로 1년을 13개월로 만든 해.
- 조선 성종 때에, 문인 정극인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로, 자연에 파묻힌 생활 속에서 봄날의 경치를 찬탄한 내용이다.
- 영화 '꽃잎' '강원도의 힘' '오구' 등 영화음악으로도 유명한 국악작곡가.
- 다섯 가지 중요한 곡식. 쌀, 보리, 콩, 조, 기장.

- 빅토리아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와 더불어 세계 3대 폭포.
-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 대한민국의 수도.
- 일정한 거리를 규정에 따라 걸어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
- 기원 전후경부터 5세기경 사이에 파키스탄 페샤와르 지방에서 만들어진 그리스, 로마풍의 불교미술.
- 용호동 장산봉이 바다로 향해 있는 곳에 직각으로 경사진 절벽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반딧불이 서식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 나이 서른 살을 달리 이르는 말. 공자가 서른 살에 자립한 데서 유래했다.
- 신령(神靈)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과 의사가 통하여, 혼령과 인간을 매개하는 사람. 곧 무당이나 박수가 이에 해당한다.
- 성모마리아를 칭송하는 곡으로, 구노와 슈베르트의 곡이 특히 유명하다.
- 태양에서 네번째로 가까운 행성.

세로문제

- 판소리 '춘향가' 중 삽입 가요로, 춘향과 이도령이 만나는 첫날밤 장면에서 부르는 조선시대 잡가.
-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자치구. 주도는 라싸.
- 밤에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딱정벌레. 개똥벌레.
- 소설가 이청준의 '남도사람'을 원작으로 한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 조용한 밤의 분위기를 나타낸 서정적인 피아노곡. 녹턴.
-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등 3부로 이루어진 단테의 서사 장편시.
- 동요 '고향의 봄'을 작사한 아동문학가.
- 건반악기이면서도 파이프나 리드를 진동체로 하는 악기. 풍금.
- 공치를 차게 말린 것.
-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추는 남자.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잡았으며, 스포츠로도 각광받고 있다.
- 경주의 옛 이름.
- 로마 시대 이래로 그리스와 더불어 서양 문명의 원천이었던 국가. 수도는 로마.
- 발해의 시조. 고구려의 유민으로, 699년에 진(震)을 세워 왕이 되고, 713년에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여 국호를 발해라 고쳤다.
- 화면에 나오는 배우나 가수의 입술 움직임과 음성을 일치시키는 일.
- 일본 제 3의 무역향. 지난 1995년 1월 7.2의 대지진으로 4,484명이 사망하고 1만 4679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 난초, 국화, 대나무와 더불어 사군자의 하나.

지키후정답

부	산	연	극	제	공	주	마
림	개	비	탈	리	카	약	
	이	소	령			산	
동	문	보	드	카	드	가	
요	가	이	색	툰	드	라	
	장	끼	전		림	김	
	무	투	탕	카	멘		영
검	도	구		델		레	임
	회	훈	노	노	스	바	
저	영	자		존	레	논	

- 산마루골터(구.돈방불패)
 - 안숙현(해운대구 좌동)
 - 손영옥(연제구 거제2동)
 - 조학순(해운대구 우1동)
 - 김재은(동래구 온천3동)
 - 이혜영(연제구 연산동)
- 가미골 소극장 초대권
 - 이중훈(수영구 광안4동)
 - 박홍관(동구 수정1동)
 - 김정혜(영도구 동삼1동)
 - 이상준(중구 중앙동 4가)
 - 김영은(부산진구 양정2동)
- 큰집 식사권
 - 이경란(사하구 장림2동)
 - 정성봉(부산진구 양정1동)
 - 김쾌우(연제구 거제3동)
 - 형정민(동래구 온천3동)
 - 심현아(해운대구 좌2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 이준호(금정구 부곡3동)
 - 김양성(수영구 광안4동)
 - 이예지(금정구 구서2동)
 - 최철호(금정구 서2동)
 - 임대룡(남구 대연2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식점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산마루 골터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UN로타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미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미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5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십년 후’

“십년 후 라는 제목부터가 마음을 참 끌어당겼었죠. 내 나이 서른이 되고 처음 본 연극.

30대가 된 여자들... 그녀들의 수다라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여자를 위한, 여자의 삶. 그 이야기에 보여지는 겉모습의 화려함이 전부가 아닌, 감추어진 베일에 가린 쓰라림이 있을지라도... 인생의 알싸함을 보여주는 달콤 쌉싸름한 연극!” - 차화연

‘우모자’

“정말 대단했다. 음악을 통해 흑인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평화와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이들.

‘I have a dream’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찡했다.

피부색, 나이, 성별과 관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꿈.

인류가 평화로웠음 좋겠다는 그들의 꿈.

힘찬 음악과 몸짓으로 모든것을 말해주는 그들에게 더없이 힘찬 박수를 보냈다.” - 김주희

‘뮤지컬 동물원’

“동물원의 음악으로 뮤지컬을 만든 발상이 대단합니다. 대중 음악이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친숙한 느낌을 주니까 뮤지컬 음악에 더욱 매료되고 내용 이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상황에 맞는 음악을 골라 넣어서 어쩔 저렇게 잘 넣었을까 하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동물원 노래를 몇 곡밖에는 모르지만 배우들의 연기, 노래 모두 대단했습니다!!!

관객이 많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준 모습 꼭 기억할게요...” - 남세현

새로운 시설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레스토랑
모짜르트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와 ‘Q&A’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와 ‘Q&A’ 질문과 답변은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 후기를 보내주신 분중 3명을 선정하여 모짜르트 2인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과 함께 한 4월 테마여행 감물염색체험장과 와인 터널로 떠난 청도여행



폭우가 내리는 4월 13일 아침, 테마 여행 출발에 앞서 세차게 몰아치는 빗줄기를 보며 다소 긴장감이 들었다. 빗속에서 여행을 계획대로 진행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안고 청도로 출발했다.

4월 청도 감물염색체험장 '꼭두서니'와 와인 터널로 떠나는 봄 여행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주자 오은영과 해금 주자 하지행이 동행했다. 와인터널에서 펼쳐질 음악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과 함께 연주자들에게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여행지 청도가 가까워지면서 맑게 개인 하늘이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겼다. 청도를 대표하는 감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을 하는 여행이었지만 4월 우리가 만난 청도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또 다른 청도의 명물 복사꽃이 고운 자태로 반겼다.



비온 뒤 더욱 선명한 복사꽃, 바람결 따라 춤추는 감물염색 천이 한눈에 들어오는 '꼭두서니'는 전국적으로 이름난 감물염색 체험장이다. 대구에서 사업을 하던 주인장 김종백씨가 고향인 청도로 내려와 동네 할머니들에게 전통 방식대로 천을 염색하고 천이 사각거리도록 풀을 먹이는 방법을 배웠고 감물염색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방을 만들었다. 공방이름 '꼭두서니'는 천연염색에 사용되는 풀뿌리이다.

감물염색은 감즙이 방부제 역할을 해 땀이 묻은 채 두

어도 썩지 않는다. 드디어 체험시간, 미리 준비해간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끼고 지난 봄에 만들어둔 감물에 천을 담그고 10분간 주물렀다. 정성껏 주무른 천을 줄에 늘어 말리는 동안 김종백씨의 염색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과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감물염색은 특히 정성이 필요하다. 한번 감물에 담근 천이라도 매일 한번씩 물을 적셔 말리기를 일주일. 어떻게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염색한 천의 색이 달라진다.

점심 식사 후 기다리던 와인 터널로 향했다. 와인터널은 청도 특산품인 감을 주원료로 생산되는 '감 와인'의 숙성 저장고이다. 1904년 경부선 철도 터널로 만들어진 와인터널은 경부선의 노선이 변경되면서 와인 저장고로 이용하고 있다.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와인저장에 안성맞춤이다. 감으로 만든 와인은 어떤 맛일까, 호기심이 발동하여 시음열기가 대단했다.

드디어 4월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와인 터널 속의 국악연주. 오은영, 하지행 두 연주자의 해설을 들으며 황톳길, 밀양아리랑, 섬집아기, 첩밀밀 등 연주가 이어졌다. 처음으로 가야금, 해금을 가까이에서 본 것도 잊을 수 없지만 공연장 멀리서 바라보던 연주자들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 음악에 한발 다가갈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우리는 그날 오후 쌉싸름한 감 와인에, 흥이 넘쳐나는 우리 음악에 취했다.

〈여행협찬 : 레임 투어편〉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5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10명을 추첨, 1인 2명에게 여행상품권을 드립니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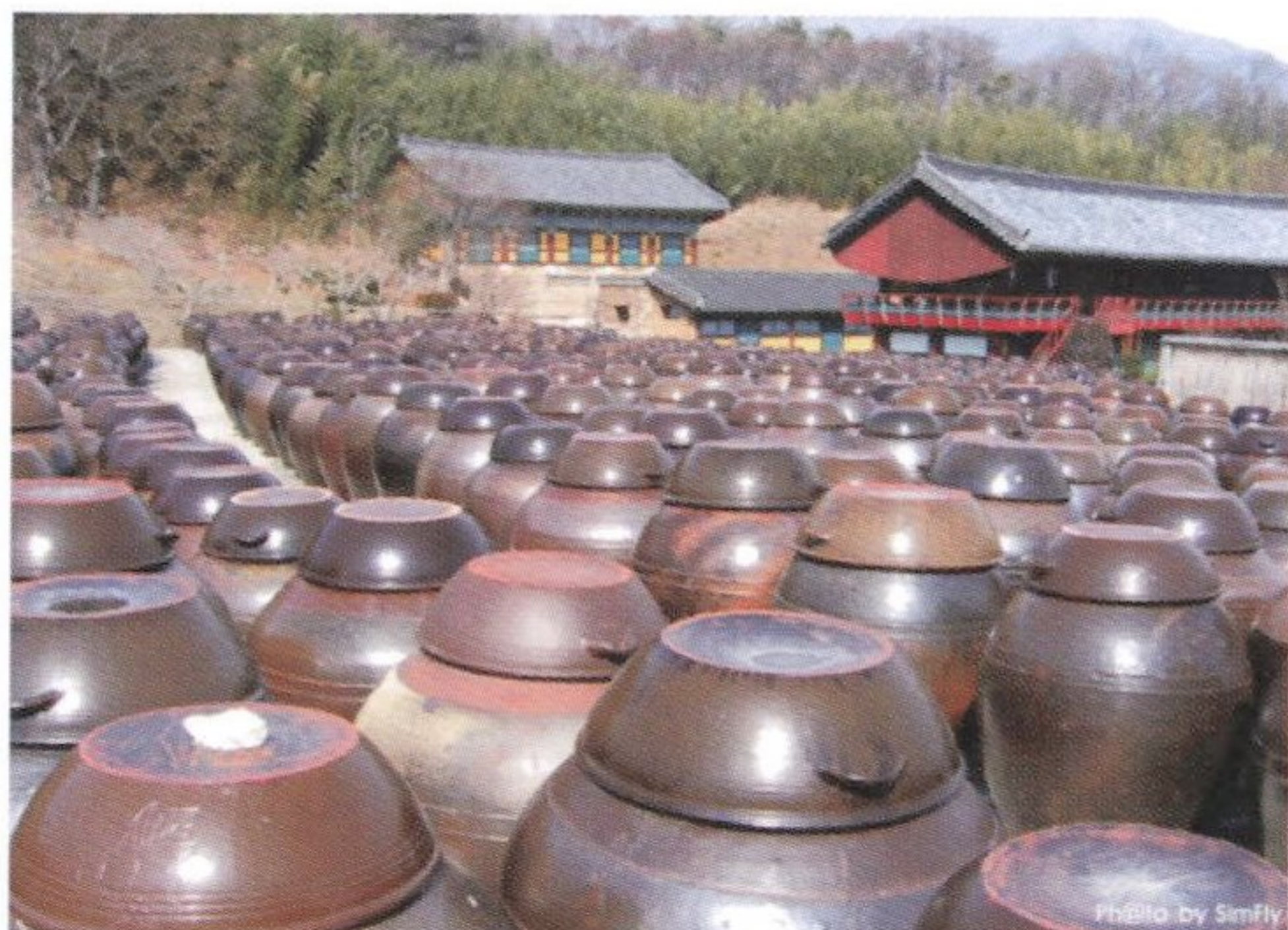
■ 발 표 : 5월 25일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 〈예술의 초대〉지면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정기회원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6월 8일 금요일 부산항 탐방 및 통도사 서운암 들꽃 기행

부산의 재발견! 부산항에서 경험하는 작은 음악회, 싱그러운 초여름 들꽃의 향연과 함께 하는 서운암 나들이.

- 10: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1:00 부산항만안내선 승선, 부산항 탐방
- 12:40 점심 식사
- 13:40 서운암 도착
- 16:00 양산 출발
- 17:30 부산 문화회관 도착예정



▶ 7월 13일 금요일 석남사, 배내골 팜스테이마을

초여름 아침의 고즈넉한 산사와 싱그러움이 가득한 산속 마을에서의 하루!

- 08:30 부산 문화회관 집결
- 10:00 석남사 도착
- 11:00 배내골 장선 휴마을 도착
- 12:00 점심식사
- 13:00 팜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참가
(두부만들기, 감자, 토마토따기 등)
- 16:00 배내골 출발
- 17:00 부산 문화회관 도착예정

※ 이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5월 당첨자

▶ 5월 13일 (금)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떠나는 우포 자연여행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배영한(동래구 온천2동)
한정숙(동래구 온천3동)
정영옥(부산진구 개금동)
주현정(중구 중앙동4가)
김덕근(사상구 덕포동)
장유남(부산진구 당감동)
박옥선(동래구 사직2동)
박경정(사하구 다대2동)
정래원(금정구 부곡4동)
허미숙(서구 암남동)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정주식(사하구 하단동)
이용희(사하구 다대2동)
김재하(서구 암남동)
박성진(남구 용호1동)
김재환(남구 용호동)
홍정남(연제구 연산5동)
조효정(금정구 남산동)
장유선(서구 암남동)
김도현(금정구 서동)
박미정(동래구 사직2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극단 제 29회 정기공연

“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칼을 하나씩 품고있지.
하지만 자기 가슴을 향해 날이 서 있어야
미래라는게 있는 것이지.
남을 향해 서 있으면 몰락하고 마는 거야.
”



원 작 김 태 수
객원연출 곽 종 필


특별출연 B-boy (B.B.D)

2007. 5. 29(화) ~ 6. 2(토)

평일 19:30 토요일 16: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 장 권 일반 10,000원 청소년 5,000원 (현장판매)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남구 면학도서 사하구 향학서점 부산진구 영광도서, 동보서적
중구 남포문구 북 구 대한도서

인터넷예매 : 티켓365 www.ticket365.co.kr

일반예매: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 607-6070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극단 051) 607-6136~8 www.busantheater.org

맨



“황금돼지해”

2007년 HAPPY 허니문

평일/주말/야간 상담가능



2007 Honeymoon event

미리미리 예약하고 **왕창** 할인받자!

30만원 할인 이벤트

www.tourfun.co.kr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NAVER

투어편

테마 ① 중국여행

거대한 문화 유산
북경/만리장성 3박4일

포함내용 **349,000원**

만리장성, 명13릉,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천단공원, 발맞사지, 북경서커스, 특식 (오리구이, 샤브샤브, 한식 등)

세계 최고의 절경
상해 / 장가계 / 원가계 3박4일

포함내용 **769,000원**

천자산, 장가계 풍경구, 십리화랑, 금편계곡, 황룡동굴, 보봉호수, 상해야경, 황포강유람, 발맞사지

천하제일 명산
상해 / 항주 / 황산 4박5일

포함내용 **739,000원**

비취계곡, 황산 케이블카, 서호, 영은사, 육화탑, 서해대협곡, 몽필생화, 임시정부, 홍구공원, 예원, 외탄지구, 황포강 유람선, 상해 서커스

테마 ② 일본여행

특급 온천호텔과 뉴카멜리아
북큐슈 관광 온천 3박4일

포함내용 **359,000원**

크루즈왕복, 온천호텔2박, 벳부관광, 아소활화산, 원승이쇼, 쿠마모토성, 천만궁

일본속의 유럽, 네델란드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북큐슈 온천 3박4일

포함내용 **389,000원**

크루즈왕복, 하우스텐보스 1일패스권, 하우스텐보스 내 특급호텔 1박, 온천호텔 1박, 아소활화산, 원승이쇼, 쿠마모토성, 천만궁

일본의 알프스 6m 대 설벽 관광
다테야마 / 알펜루트 3박4일

포함내용 **869,000원**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 관광, 레인보우 브릿지, 비너스 포트, 신도청 전망대, 신주쿠 번화가, 아시호수 유람선, 나고야성, 아즈다 신궁

테마 ③ 제주 & 국내여행

초록색 물결의 끝없는 녹차바다
보성차밭 / 딸기따기 / 낙안읍성 (당일)

포함내용 **40,000원**

왕복교통, 여행자보험, 보성차밭, 녹차 다도 체험, 딸기따기, 낙안읍성, 선암사

알뜰살뜰
제주일주 편투어 3일

포함내용 **199,000원**

왕복항공, 승마체험, 성읍민속마을, 미니월드, 중국기예단쇼, 일출랜드, 섭지코지 등

제주도에서의 잊지못할 추억
제주 푸른밤 펜션 자유여행 3일

포함내용 **262,000원**

왕복항공, 제주푸른밤 펜션 2박, 제주여행자료, 렌트카 NF소나타(LPG) 54시간

테마 ④ 자유여행 프리스타일

베이징 프리스타일 3박4일

추천일정 **299,000원**

천안문 - 자금성 - 천단공원 - 북경서커스 - 오리구이 - 만리장성 - 이화원 - 용경협 - 짬뽕시장 - 북한식당

포함 :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공항샌딩

동경 프리스타일 2박3일

추천일정 **419,000원**

하라주쿠 - 시부야 - 신주쿠 - 디즈니랜드 - 오다이바 - 하코네 - 닛코

포함 :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공항샌딩

홍콩 프리스타일 3박4일

추천일정 **429,000원**

침사추이 - 몽콕야시장 - 빅토리아 피크 야경관광 - 점보레스토랑 - 리펠스베이 - 명품쇼핑 - 마카오 관광

포함 : 왕복항공, 숙박, 안내자료, 공항샌딩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5월 토요일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5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연주회



- 푸치/검투사의 입장
- 드뷔시/골리워그의 케이크워크
- 모차르트/ '마술피리' 中 '밤의 여왕'
- 브루벡(헨더슨 편)/터키풍 블루 론도
- 조플린/래그타임 댄스
- 슈프린(헨더슨 편)/미션 임파서블 주제곡
- 거쉬인/써머타임
- 월러/열쇠 한줌
- 코스타(헨더슨 편)/튜바 타이거 래그

※출연/이반 네텔체프(호른), 드미트리 로카렌코프(트럼펫 I), 안명기(트럼펫 II), 정선화(트럼본), 송인봉(튜바), 조용길(세트드럼)

● 5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관악영산회상 중(집박/유경조 · 대금/채수만, 엄익준, 황두호 · 피리/박춘석, 강영현, 진형준 · 해금/조남순, 정수경, 이은주 · 아쟁/최희정 · 장구/이장우 · 좌고/송강수)
- 거문고 산조 '한갑득 류' (거문고/이대하 · 장구/신문범)
- 판소리(판소리/박성희 · 고수/신문범)
-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18현/오은영, 옥경화 · 22현/이명일, 김혜련 · 장구/이장우)
- 시나위(대금/채수만 · 피리/김용우 · 해금/김민정 · 아쟁/권혜정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강상호 · 장구/신문범 · 징/전학수)

※지휘/박호성

※해설/백규진

• 입장권 : 무료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연극 서툰 사람들

10% 할인



- ▶ 날짜 : 2007. 5. 11(금)~6. 3(일)
- ▶ 시간 : 평일 7:30/토요일 4:30, 7:30/
일요일 3:00, 6:00(월 공연없음)
-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 입장권 :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
-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이미 예매하신 분은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음악회에서는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 앵콜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

The 56th Subscription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부산시립무용단 제56회 정기공연



춤

이쁜이시집가는날

안무·구성 홍기태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5. 31 (목) 이정인(이쁜이) 정진희(갑분이) 김기원(미언)

6. 1 (금) 박창희(이쁜이) 권봉정(갑분이) 최의옥(미언)

2007. 5. 31(목)-6.1(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본 공연은 5세 이상의 어린이 관람이 가능하며 보호자의 동반 및 보호를 요합니다.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표채널 KNN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인터넷 예매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부산은행 - 티켓 365 www.ticket365.co.kr 남구 면학도서관 사하구 향학서점 진구 영광도서관 동부산서적 중구 남포문구 북구 대한도서관

문의 부산문화회관 625-8130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607-6118, 6120 www.koreanfolkdance.com

photo & design 정준규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과 함께 하는 2007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 7080 그 세 번째 이야기

주로 느린 노래... 가끔씩은 빠르게... 거의 다 따라할 수 있는 노래...
그리고 우리들의 노래!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안치환

아직 마음은 10대

- 꽃동네 새동네
- 여고시절/여고졸업반(엮어서 한국어로)

이루지 못한 사랑의 꽃 노래

- 달맞이꽃(이용복)
- 못다 핀 꽃 한 송이(김수철)

풍경이 있는 노래

- 민들레 흩씨 되어(박미경)
-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예민)

행복하게 만드는 노래

- 행복한 사람(이문세)
- 행복을 주는 사람(해바라기)

[휴식-Pause] 추억의 CM송과 함께 식지 않는 노래

- 향수(김희갑) - 한계령(양희은)
- 큐(조용필)

특별초청 안치환

-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내가 만일 - 광야에서

J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J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J난 너를 못 잊어
J난 너를 사랑해

2007.5.25(금) 오후 7:30 / 26(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지휘, 해설 / 김강규
- 편곡 / 최석태
- 특별출연 /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 안치환

- 입장료 : 1층 20,000원 · 2층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607-6126)